건축사

KIRA 2012 02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www.KIRA.or.kr

칼 럼 건축계의 염원이 풀리는 한해를 기대하며
시 론 다시 '광장(廣場)'의 책장을 넘기며
특 집 2011 아카시아 어워드 수상작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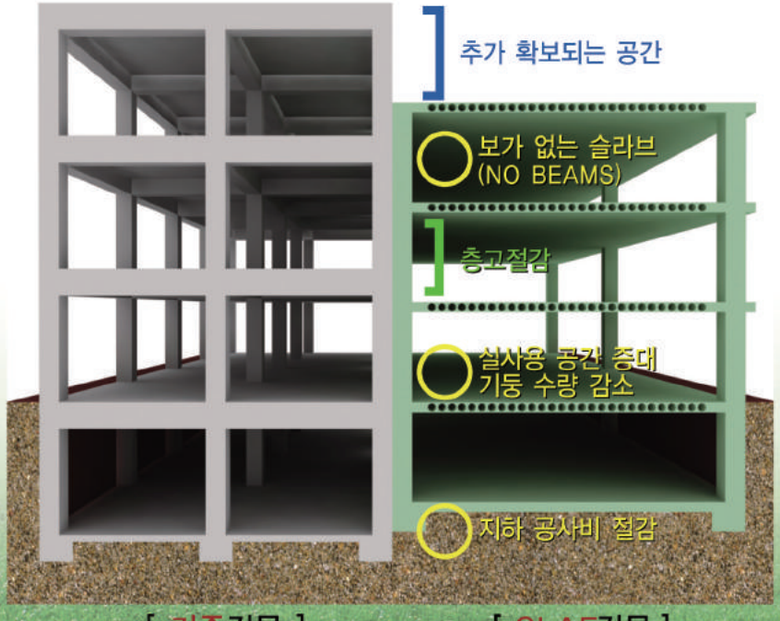
에너포르

www.kkp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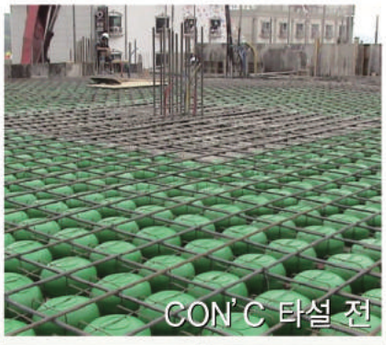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데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A/S : 02)333-4448

■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E-mail : cgp210@kornet.net ■ FAX : 054)973-0067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빌딩 솔루션도 **삼성 시스템에어컨**이 앞서갑니다

초고층 빌딩 공조시스템 : 최대 110m 고낙차 설계 DVM Plus Ⅳ

스카이라운지 : 빌딩의 역풍을 고려한 설계 DVM WATER

주거공간 : 인테리어까지 고려한 초슬림 디자인 **인테리어 1-WAY**

오피스 : 구획(Zoning)에 따른 공조설계 Mini AHU

상업공간 : 최적의 기류설계 DVM AHU
공공구역 : 친환경 대용량 지열시스템 적용 DVM GEO

지하방재실 : 설비통합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설계 Zensys

최적화된 혼합공조로 에너지 절감형 빌딩 솔루션

삼성 시스템에어컨

사용자 편리성
24시간 고장 감지 솔루션RMS(옵션)

경제성
설비기기(공조, 조명, 블라인드 등)間
협조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형 통합관리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COP 4.90(DVM Plus Ⅳ 14HP 기준)의
최고 수준 에너지 효율

설계 가변성
공간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실내/외기 조합 가능

www.samsungb2b.co.kr
삼성전자 B2B(특판) 구매상담 : 1588-3536

삼성전자 SAMSUNG

brother
at your side

건축,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위한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A3용지 인쇄 PRINT A3용지 스캔 SCAN A3용지 복사 COPY A3용지 팩스 FAX

PC MAGAZINE EDITORS' CHOICE
MFC-J6710DW
01/Jun/2011

기자들의 선택상 수상제품
(선정 2011. 6. 1)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3C	LC73M	LC73Y	LC73BK
600매	600매	600매	600매

LC77XL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LC77XL-M	LC77XL-Y	LC77XL-BK
1200매	1200매	1200매	2400매

brother
at your side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이제 당신의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시스템 솔루션에서 세계정상의 자리에 있는 제임스 하디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제임스 하디는, 추운 기후를 가진 한국에 적합한 상품을 디자인, 생산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시스템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데 전념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추운 기후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구성이 강하고, 가벼우며, 환경 친화적이고 비용 효율이 높은 품질의 클래딩 솔루션을 가질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제임스 하디만이 제공하는 선진공학 그리고 기술적 지원과 함께, 너무도 간편하게 당신의 디자인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제임스 하디와 함께, 주거 양식 이상의 것을 창조할 수 있으며, 세월과 거친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걸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JamesHardie®

보다 나은 건축방식.

jhcs@jameshardie.com

® denote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James Hardie Technology Limited. Additional installation information, warranties and warnings are available at www.jameshardi.com.ph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2 February 02

COVER STORY

경관법 제정과 함께 경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민의 이해와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
우리의 삶과 경관, 도시, 풍경들…
현하 건축사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표지사진 :
전 경 애(Monica Cheon)_ '도시 엿 보기' 중에서
www.monicacheon.com

발 행 인	강성익
건축사지편찬TF위원장	박찬정
위 원	구만열, 김희곤, 송호섭, 이동우, 정병협, 최동호
취 재 · 편 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98~9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현진크리에이티브 02_2276_6341~3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ang, Sung Ik
Committee Chairman	Park, Chan-jung
Committee	Ku, Man-yeol & Kim, Hee-gon & Song, Ho-seob & Lee, Dong-woo & Chung, Byung-hyup & Choi, Dong-ho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98~9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2 칼 럼 COLUMN
건축계의 염원이 풀리는 한해를 기대하며
Wish to have a year that aspiration of architectural field has come true
_최동규

013 시 론 FOCUS
다시 '광장(廣場)'의 책장을 넘기며
Turn over the pages of 'The plaza' again
_유인재

014 만 평 CARTOON
용꿈
Dragon dream
_김진균

016 특집 –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작
한무숙 문학관
THE HMS HOUSE
_조인숙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022 회원작품 WORKS
한국선원센터
KOREA SEAFARERS' CENTER
_안용대 | (주)가가 건축사사무소

인덕대학교 콤플렉스 센터
INDUK UNIVERSITY COMPLEX CENTER
_강삼래 | ㈜유창이엔씨 건축사사무소 + 김태창 | ㈜디앤에이 건축사사무소 + 유대근 | ㈜유용준 건축사사무소 + 정성훈 | 인덕대학

Contents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2년 02월호 통권 514호

숭실대 레지던스홀
SOONGSIL RESIDENCE HALL
_이성관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판교 525-8
PANGYO 525-8
_우대성 • 조성기 • 김형종 | (주)건축사사무소 오퍼스

046 설계경기 COMPETITION
LH본사 신사옥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HEAD OFFICE

파주 가람도서관
PAJU GARAM LIBRARY

054 건축초대석 INTERVIEW
이종갑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Lee, Jong-kab KVCA president
_박찬정, 송호섭

060 100작품 SKETCH WORK
개념의 건축화된 4카테고리 스케치
Sketch on the four categories for the Architecturalization of conception
_최동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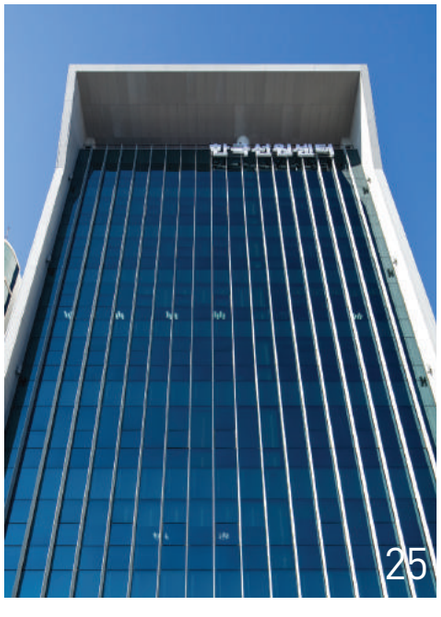
064 연 재 SERIAL
法돌이 2/6
Beopdoli
_이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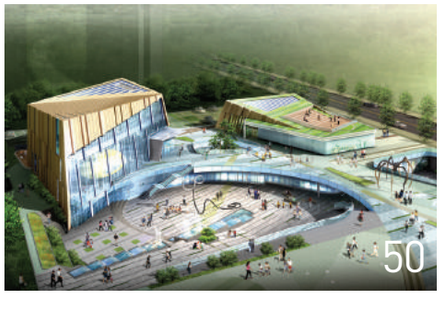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2/5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_정재희

072 연구 RESEARCH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 최적설계 4/4
Sustainable Optimum Design by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Efficiency
_우지환

078 기 고 FEATURE
당당한 서울의 성문
Magnificent Gates of Seoul
_짐 앳킨스, 조성중

087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건축계의 염원이 풀리는 한해를 기대하며

Wish to have a year that aspiration of architectural field has come true

최동규 | Choi, Dong-kyu, KIRA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바야흐로 대한민국에 2012년 벽두부터 정치의 계절이 왔다. 4월에 총선과 12월에 대선. 이렇게 한해에 동시에 두 개의 선거가 겹치는 것은 마치 개기일식이 오랜만에 오는 것처럼 드문 일이다. 가뜩이나 정치에 대한 욕구가 높은 한국에서 이런 사건은 정치판에 뛰어든 참여자나 투표만 할 수 있는 관전자인 국민에게 흥미만점이다.

왜 서두를 정치이야기로 꺼내는 고 하니, 정치인은 솔직하다. 권력을 잡고 싶은 것이다.

신문에서 보면 모든 사건들이 정치적인 계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기를 쓰고 권력의 중심근처에서 빙빙 돈다.

한 예를 들어보자.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감기약, 드링크 류의 수퍼마켓 판매는 시행령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했다. 이유는 전국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많은 약사들의 저항이 두려워서이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8천개의 건축사사무소와 그 수하에 같이 있는 건축사보까지 합하면 무시하지 못할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그 힘과 영향력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대통령도 진저리를 낼만한 사설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많은 정치인들이 덕을 보거나 피해를 보았다. 덕을 본 사람은 권력을 잡았고 피해를 본 사람은 그 반대의 약자 입장에 서게 되었다.

건축계에 해결해야할 문제가 여럿 있을 터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할까? 여기에서 건축인들 사이에도 답이 갈린다. 우선 최근에 개설되어 활발한 논의가 개진되고 있는 페이스 북의 첫 주제도 아쉽게도 건축가, 건축사 호칭문제, 다음으로 건축사면허시험의 난이성 그리고 저작권 등을 가지고 논전이 계속되고 있다. 건축인들의 문제의 우선순위가 일치해야 집중력을 발휘하고 힘을 얻을 텐데 여기에서 핀트가 어긋나 있어 아쉽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최우선순위가 건축계의 양극화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마치 다이너마이트의 전선처럼 발주제도까지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용기 없고 소심한 건축사는 이 문제를 공공연하게 꺼내지도 못한다. 왜? 현업에서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대형사무소의 기세에 눌려서이다. 그리고 그들의 심사가 뒤틀릴까 두려워서이다. 덩치가 커도 한참 큰 일들을 힘차게 나눠채는 그들의 실력 앞에 그저 기가 죽어 있을 뿐이다. 아! 이제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작은 사무소들은 현 상황에서 감히 참가할 엄두도 못내는 이상한 계절이 온지도 한참이나 되었다.

왜 내가 낸 세금의 일부까지 포함된 공공재의 설계경기에 유독 대 조직만이 들어와 일을 물어가는 이 상황의 구조화는 언제부터일까?

한동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에서 발주제도문제에 대해 여러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고민한바 있다. 그때 느낀 것은 마치 철갑옷처럼 무겁고 복잡한, 이러한 불편한 법이라는 미명하의 옷을 감히 떨쳐낼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한편으로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나 이었다. 이렇게 불편하고 잘못된 법을 만든 정부가 다시 깔끔하고 산뜻한 법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어야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든다. 이렇게 전국의 대부분의 건축사에게 불편한 법이 소수의 누구에겐가는 아주 달콤하고 훌륭한 옷일 거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낡고 추악한 옷은 만든 사람이 벗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용기 있는 건축사 100명이 탄원해서 이 낡고 추악한 발주제도의 법을 재건축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 그리고 갑자기 흑기사처럼 나타나 대한민국 사회를 구원할 듯한 안철수 교수의 출현, 그리고 그들도 용기 있게 양극화의 부조리에 대해 외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양극화 1:99의 사회현상을 바로잡지 않고는 건강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고?

모재벌이 '한명의 유능한 사람이 일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했다. 그런데 모 경제학자가 거꾸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명의 유능한 사람이 일만 명을 굶게 한다'고, 말은 뒤집으면 또 다른 면이 부각되게 마련이다.

지금 2012년 양대 선거가 있는 대한민국은 정치권력의 지형도가 바야흐로 바뀔 수도 있는 역사의 전환기에 있다. 건축계에도 이전환기에 불건전한 하나의 시스템이 바로 잡힐 수도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보자.

오늘 아침 차기대통령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접근해 있는 박근혜 의원의 말 "시장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에서 탐욕을 방치하면 피해를 입는 약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양극화를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되며 개입해 바로잡아야한다" 는 말에 희망을 품어도 되나?

다시 '광장(廣場)'의 책장을 넘기며

Turn over the pages of 'The plaza' again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뒤채면서, 숨을 쉰다" 4.19 혁명의 뜨거운 열기가 가시기 전 최인훈이 발표한 그의 불후의 명저 '광장'의 첫 구절이다. 읽을 때 마다 영혼 깊은 곳을 우릿하게 하여 가슴이 먹먹해지게 하는 마력이 있다. 그가 몇 번에 걸쳐 이 구절을 수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첫 구절에 그가 책속에서 전하고자하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최근의 일이다.

소설 속 주인공인 이명준은 해방 후 사회 ·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개인의 밀실(密室)인 광장과 개인의 광장인 밀실의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러나 자유로운 밀실은 있지만 사회적 광장이 없는 남한과 강요된 사회적 광장은 있지만 내밀한 밀실이 없는 북한 사이에서 고뇌하다, 휴전 후 광장도 밀실도 없는 중립국을 선택하여 떠나다 남중국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 생을 마감한다.

즉, 책의 첫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누구에게는 전부이고 어느 시기에는 절대적인 것 같은 이데올로기들이 광장에서 충돌하여 혁명으로 전개되거나 더 큰 반동으로 후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묵묵히 흐른다는 것이리라.

바야흐로 광장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2012년 새해는 20년 만에 맞는 양대 선거의 해로서 북한의 권력 교체기와 맞물려 해묵은 보수 · 진보 논쟁으로부터 성장 · 복지, 집중 · 균형, 중앙 · 지역, 미래 · 현재, 유상 · 무상 등 양립하기 어려운 온갖 가치들이 광장에서 충돌할 것이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논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던 건축부문도 건설예산이 최근 복지예산 확대의 최대의 장애물로 간주되면서 광장으로 불려나와 혹독한 논쟁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간 SOC나 주택수요의 절대적인 부족 속에서 건설은 호황기에는 민간부문 주도로 불황기에는 정부주도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스톡(Stock)이 확보되어 성장의 임계점을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 위주의 건설시장 상황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과 같이 광장과 밀실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건설 및 건축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과 관행,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아직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혁명가(革命歌)이자 현재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를 접한 베토벤은 1807년, 공화제와 광장의 자유를 꿈꾸며 혁명의 열기를 담아 '제5번 교향곡(운명의 동기가 사용되었다 하여 개인적 역경과 관련된 '운명교향곡'이라 불리지만, 사실 프랑스 혁명가가 인용된 '혁명교향곡'임)' 등을 작곡하였다. 하지만 1815년 나폴레옹 퇴위 이후 앙시앙 레짐(구체제)으로 복귀되자 작품의욕을 상실하고 내면의 밀실로 침잠하였다.

그러나 1821년 이 모든 것을 예술혼으로 극복하고 밀실에서 나와 광장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담은 인류의 '라 마르세예즈'인 제9번 합창 교향곡을 작곡함으로써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

건축인들에게 현재, 눈앞에 펼쳐진 또는 전개될 냉엄한 시장이 마치 이명준이 뛰어들 때 바라본 남중국해의 크레파스처럼 진하고 무심히 넘실되는 바다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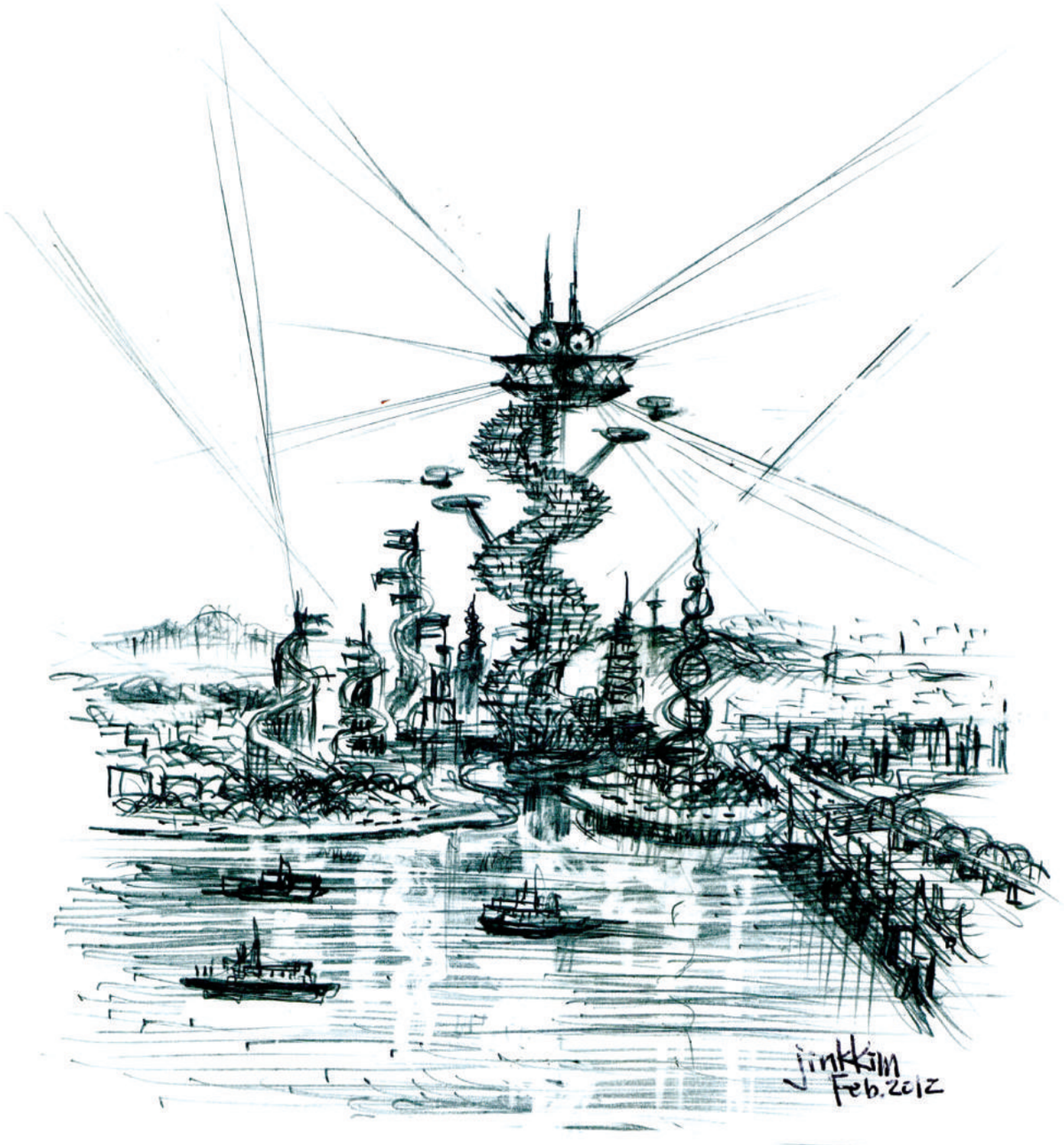
하지만 프랑코 만쿠조가 "유럽의 역사는 광장의 역사"라고 했듯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창조해야할 수많은 도시의 광장이 남아있고, 이러한 광장을 만들 수 있는 밀실의 자유도 넉넉히 누리고 있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작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시의 광장을 진정한 역사의 광장으로 거듭나게 하여 도시와 그 속에서 호흡하는 시민들이 풍요로워 질 때 진정한 역사와 복지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베토벤과 같이 밀실에서 당당히 걸어 나와 광장을 만들고 광장의 중심에 설 시간이다. 어떻게 광장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파블로 네루다의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누가 나에게 시란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시는 대답해 줄 것이다"

유 인 재 | Yu, In-jae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과장

약력
- 성균관대 건축과
- 기술고시 제29회 합격
- 런던대학교 대학원 Bartlett School
- 클래식바움 회장



"외국건축사들만의 설계안을 백지화한 발주처는 국내건축사만을 대상으로 벌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설계경기에서 건축사 모씨의 '**용틀임**'을 당선작으로 결정했습니다."

– 용띠 건축사 모씨의 임진년초 발칙한 용꿈 –

김진균 | Kim, Jin-kyoon

약력
- 공학박사, Hon FAIA
- 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원장
- 전 대학건축학회 회장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작

올림픽플랜테이션 팜샵 _ 이상림 /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본지 513호(2012년 1월호)
한무숙문학관 _ 조인숙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 본지 514호(2012년 2월호)

아카시아 건축상에 대한 소개 아카시아 건축상은 아카시아(아시아 지역 건축사 연합회; Architects' Regional Council of Asia: ARCASIA)의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아시아 지역의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우수한 설계를 고무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1992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1998년 4회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었다. 따라서 아카시아 건축상은 포럼으로 열리는 홀수의 해에 제출, 평가 후 선발한 뒤 Council Meeting이 있는 짝수 해에 메달을 수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축상의 컨비너는 개최하는 나라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은 정관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데, 심사위원은 아카시아 회장, 건축상 컨비너, 개최지의 비건축 저명인사, 회장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저명한 건축사 두 명, 아시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초청받은 저명한 건축사로 총 여섯 명이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야는 4개의 그룹, 12개의 건물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그룹 및 건물종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A 그룹 주택부분(단독주택 A1, 주택단지A2, 공공주거단지A3), B 그룹의 공공건축물(상업건물 B1, 리조트 B2, 사회/종교 B3, 관공서 B4, 특수건물 B5, 복합개발 B6), C 그룹의 산업시설, D 그룹의 보존건물(보존 D1, 복원 및 재활용 D2)
그동안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이 많은 수상을 해오던 중,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의 이근창 국제위원회 고문이 아카시아 회장을 맡으면서 한국 작품의 비중을 높여 해마다 일본에 대적할 만한 수의 작품이 금메달을 수상해왔다. 금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카시아 건축사대회에서는 베트남 협회의 황 후페(Ar. Hoang Huu Phe)이사가 건축상 컨비너로서 역할을 하고 죠우지 구니히로 아카시아 회장 등 모두 여섯 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올해는 총 12개국에서 132개 작품이 제출되었다. 한국은 11개의 작품이 제출되었고 홍콩이 20개 작품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제출했다. 일본이 19개, 중국이 18개의 작품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일본이 9개를 받는 데 비해 한국은 두 개의 작품이 수상했는데, 공공분야의 상업건물(B1)에서 이상림 건축사(공간건축 대표)의 올림픽플랜테이션 팜샵이, 복원 및 재활용(D2)부분에서는 조인숙 건축사(다리건축 대표)의 한무숙기념관이 선발되었다. 수상작은 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카시아 포럼에서 전시되고 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 또한 수상작은 아카시아의 공식잡지인 계간지 「Architecture Asia」에 실리게 되고 18개국의 회원국 및 다른 여러 나라에도 소개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아카시아 건축상은 아시아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우수한 건축작품을 선발해 아시아 건축의 우수성을 장려하고 그 우수성을 세계의 다른 지역에 알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작품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국제무대에서 우리 건축사들의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제출되고 좋은 평가를 받으므로 우리 국내건축설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 건축사들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해외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카시아 작품상에 작품을 제출하고 저 하는 건축사들은 우리 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아카시아 홈페이지의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국제담당 이사 신춘규

ARCASIA Award for Architecture 2011~2012
CATEGORY D-2 : RESTORATION AND ADAPTIVE RE_USE
with Additions and Modif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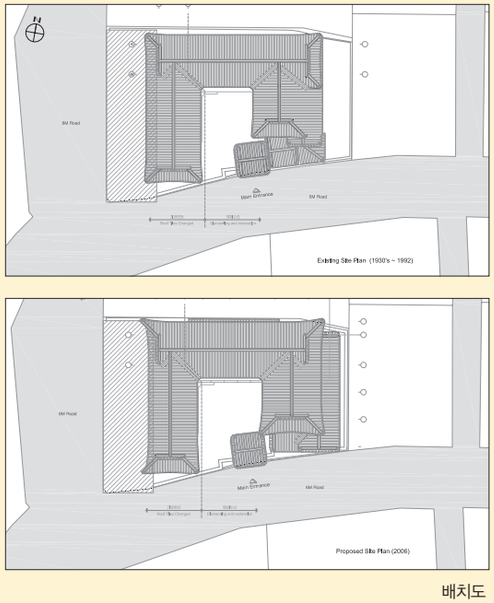
한무숙 문학관

THE HMS HOUSE

조인숙 – 정회원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Architect - Cho, In-Souk· KIRA

설계팀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건축주 | 한무숙 재단
대지위치 |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33–100
대지면적(Site Area) | 345.4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25.82㎡
연면적(Gross Floor Area) | 344.0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65.38%
용적률(Floor Area Ratio) | 84.89%
규모(Building Scope) | 1F　　구조 | 일반목구조(한식)
구조설계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설비설계 | (주)차림설계기술
전기설계 | (주)성우설계연구소　　시공사 | 건축주 직영
마감재 | 전통마감재　　사진(Photographs) | 강일중

Project Team | DaaRee Architect & Associates
Client | the HMS Foundation
Location | 33-100 Myungryundong 1-ga, Jongno-gu, Seoul
Structure |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Structural Engineer | DaaRee Architect & Associates
HVAC Engineer | Charim ENG Co.
Electrical Engineer | Sungwoo ENG Co.
Finishing Materials | traditional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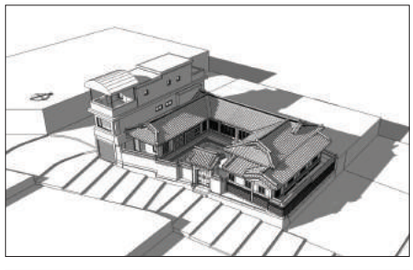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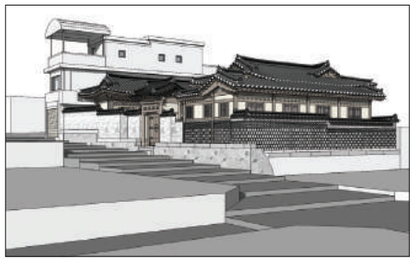
배치도

2011년 8월 베트남 다낭에서 보수 및 활용부분으로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2011–2012건축상에 선정된 한무숙 문학관은 소설가 故 향정(香庭) 한무숙(韓戊淑, 1918–1993)이 생전에 작품 활동을 하던 곳으로 사후에 부군 백농(栢儂) 김진흥(金振興 1916–2005)이 재단을 설립하여 기념관을 열게 되었고 2006년 이후 장남 김호기 박사 내외가 거처하면서 문학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1930년 대 후반에 처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ㄱ"자형 평면 두 채를 연결하여 조적 벽체를 세우고 처마를 덧대어 내부를 확장하여 결과적으로는 약 160 제곱미터 규모의 "ㄷ"자 형 평면으로 구성된 한옥이었다. 게다가 1993년 지하 1층 지상 3층의 조적조 건물을 한옥에 연결하여 증축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2006–2007년 수리 당시 조사결과는 기와의 파손이 심하고 연목은 누수로 썩었으며 전체적으로 가구(架構)의 변형이 심한 상태였다. 조적 증축으로 인해 심하게 변형된 목구조는 드잡이로 바로 잡고 구조 및 기능상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집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수리(修理)했다. 가능한 구(舊)부재는 재활용하고 무엇보다도 생활공간과 기념관의 연결 및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문학관 기능에 맞는 건축공간으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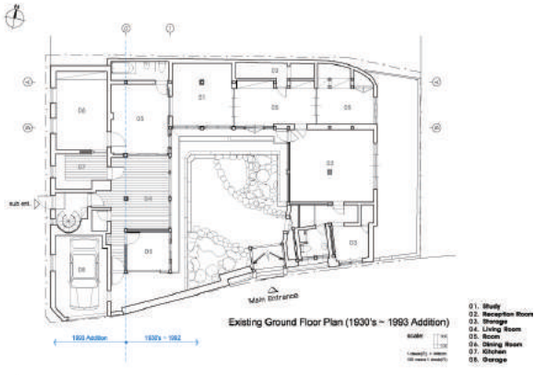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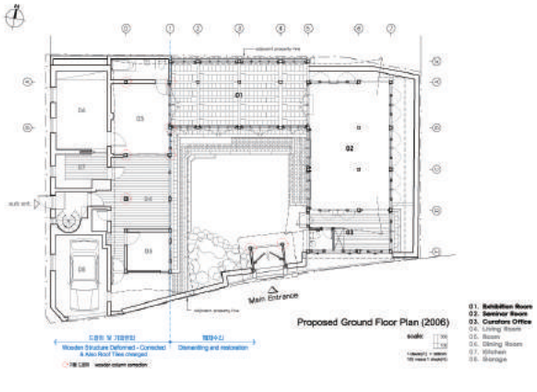
"The HMS House" was selected for the 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Award for Architecture 2011- 2012 in the Category D-2: Restoration and Adaptive Re-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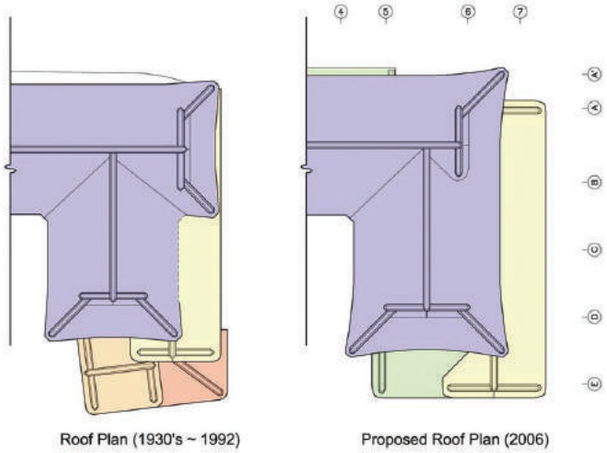
"The HMS House" is a privately initiated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project integrating an existing Hanok, a traditional Korean house of wooden structure, using organic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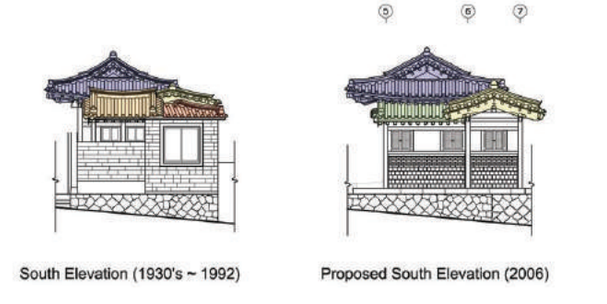
It is located in Myeongryun-Dong, Seoul. The house was the home of Hahn Moo-Sook (1918 – 1993), a noted Korean novelist who first began to publish in the 1940s. Her eldest son, Dr. Kim Hoagy and his wife continue to live in this house which is now part of a museum designed to perpetuate her mem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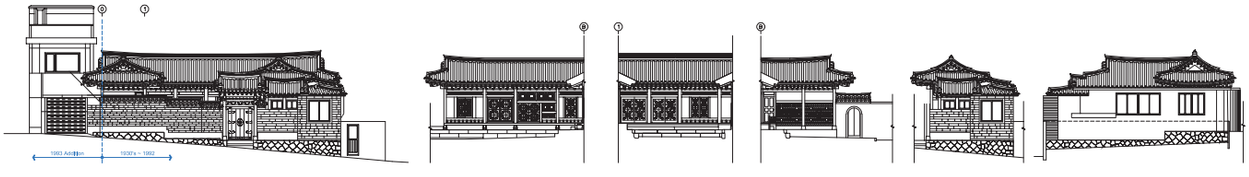
I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work, careful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historic character of the building, both in the interior and exterior. To find the original structure and to keep the original structure, to connect and separate between living space and memorial museum easily and for the exhibition and seminar function, the spatial arrangement had to be reorganiz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for the restoration work were the use of the traditional organic building materials, such as mud, clay, wood, stone and the use of traditional skills handed down by many generations. To maximize authenticity as much as possible, the historic part was to be retained and the original elements and materials would be re-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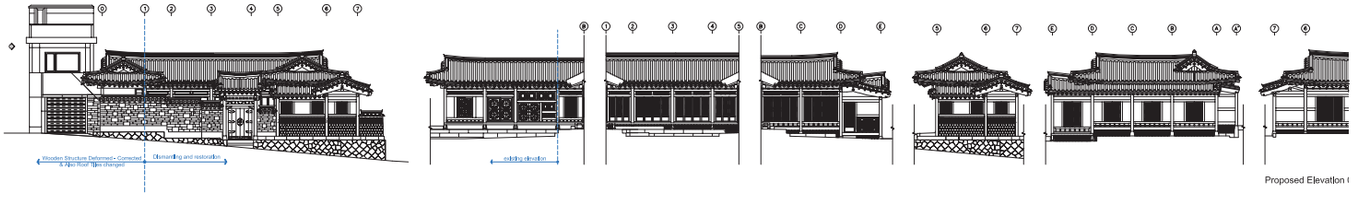

Main Entrance
Existing Ground Floor Plan (1930's ~ 1993 Addition)
01. Study
02. Reception Room
03. Storage
04. Living Room
05. Room
06. Dining Room
07. Kitchen
08. Garage


Main Entrance
Proposed Ground Floor Plan (2006)
01. Exhibition Room
02. Seminar Room
03. Curators Office
04. Living Room
05. Room
06. Dining Room
07. Kitchen
08. Sto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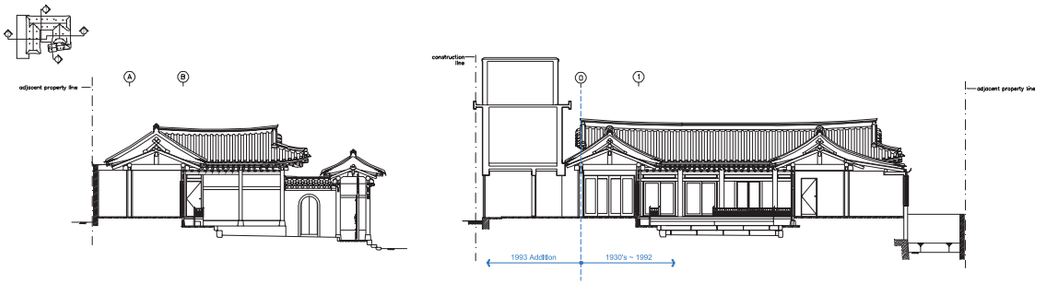

Roof Plan (1930's ~ 1992)
Proposed Roof Plan (2006)


South Elevation (1930's ~ 1992)
Proposed South Elevatio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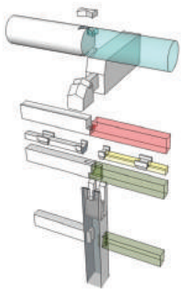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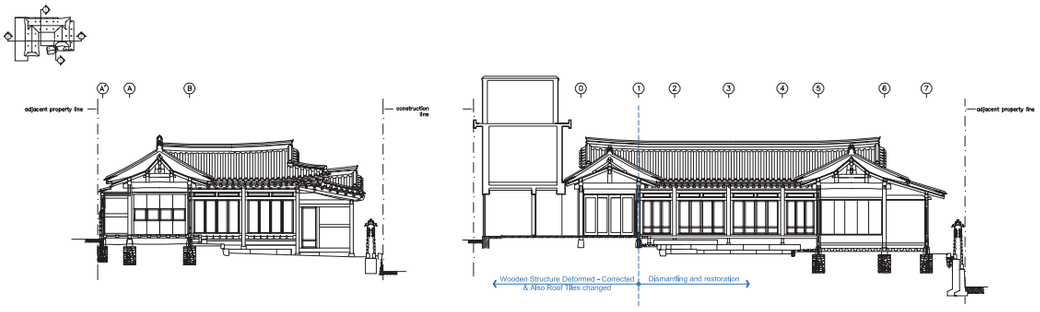
Proposed Elevation



Existing Section 1~2 (1930's ~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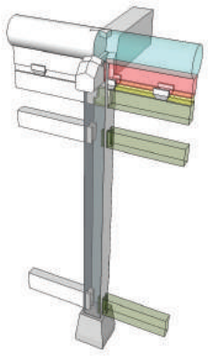
scale:





Proposed Section 1~2 (1930's ~ 1992)

scale: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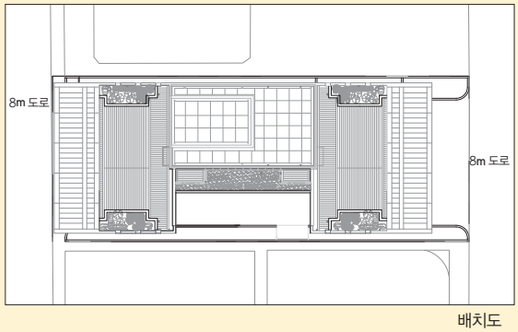
한국선원센터

KOREA SEAFARERS' CENTER

안용대 – 정회원 | (주)가가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Ahn, Yong-dae · KIRA

설계팀 | 곽고일
건축주 | 전국선박관리선원 노동조합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4–7
대지면적(Site Area) | 987.80㎡
건축면적(Building Area) | 764.46㎡
연면적(Gross Floor Area) | 4,986.4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77.39%
용적률(Floor Area Ratio) | 481.60%
규모(Building Scope) | B1–10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설계 | (주)유진구조이엔씨
설비설계 | 기술사사무소 한길
전기설계 | (주)광명토탈엔지니어링
시공사 | 동신종합건설
마감재 | THK24복층유리,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사진(Photographs) | Yoon, Junh–wan

Project Team | Kwak, Ko-il
Client | Korea Special Seafarers' Union
Location | Busan Jung-gu Jungang-dong 4-g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eel Structure
Structural Engineer | YUJIN STRUCTURAL ENG. CO.,LTD
HVAC Engineer | HAN GIL Professional Engineer`s Office
Electrical Engineer | KWANG MYUNG TOTAL ENGINEERING CO.
General Contractor | DONGSHIN Construction & Development Co.,Ltd.
Finishing Materials | THK24 pair glass,
Autoclaved Cement Extrusion Panel



배치도

대지가 위치한 중앙동은 각종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부산의 원도심지역(Old Downtown)이다. 하지만 대개의 원도심지역처럼 쇠퇴하여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는 활기가 부족하고 빌딩은 공실이 많다. 그래서 북항의 재개발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는 부산의 중요한 과제이다.
대지는 부산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앙로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곳에 위치한다. 동측으로는 부산역의 철도부지와 접하고 그 넘어서 북항이 보이는 곳이다. 3층 이상에서는 북항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평면구성이 필요하다. 반면에 8m의 일방통행 도로가 동측, 남측으로 접해 있고, 대지 형태는 북항을 향한 폭이 좁고 깊이는 길어서 평면의 효율성은 불리하다.
프로그램은 지상 1층은 커피숍, 주차장(타워파킹), 지상 2~4층에 선박관리선원조합, 선원복지센터, 선원교육실, 기타 층은 주로 선박관련회사들이 사용하는 오피스빌딩이다. 임대규모가 전용 20평~60평의 소규모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소규모면적으로 분할이 쉬운 평면 구성이 요구된다.
평면계획의 주안점은 소규모 분할에 대한 효율성과 북항으로의 조망확보, 저층부와 상층부의 요구면적 차이에 따른 매스차이를 조형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를 위해 1층~2층은 하나의 매스로, 상부층은 'ㄷ'자의 중정형 평면으로 계획한다. 중간에 코어와 중정을 두고 양측에 각각 전용 60평의 실로 분리함으로서 서측의 사무실도 동측으로 열릴 수 있다. 따라서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고 서측매스도 상부층에서 북항으로 열린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지는 상층부를 범선에서 유추한 역동적인 사선의 형태를 도입하여 선원시설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입면은 정면과 배면의 알루미늄 수직루버, 측면부는 좁고 긴 수직창과 베이스패널로서 단순하고 힘 있게 구성하였다. 이는 예산에 맞추기 위한 시공의 경제성에 대한 고려와 에너지 절약과 근무환경 향상을 고려한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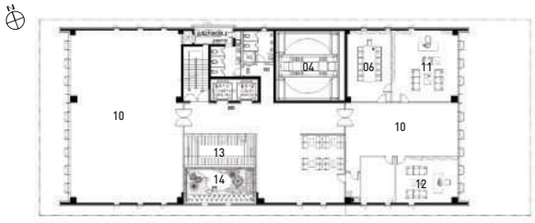
The site is located on Jungang-dong, which is Busan's old downtown lined with many office buildings. However, it has been on the decline like most old downtowns and its business is not so brisk as it used to be. Thus, the revitalization of old downtowns along with North Port redevelopment is Busan's primary issue. The location is one block away from Jungang-ro and adjacent to the Busan Station's railroads on the east. It commands the view of North Port, so it is essential to make the most of the view in floor planning. On the other hand, 8M one-way roads pass both on the east and on the west, and the shape of the site is unfavorable in floor planning as the side facing North Port is narrow in width. The program is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seafares and shipping-related companies: the first floor is for a coffee shop and parking (tower parking), from the second to the fourth floors are planned for Korea Special Seafarers' Union, Korea Seafares' Welfare & Employment Center and Education Office, the rest floors are for the related offices. The small scale offices of 20 to 60 pyeong are in high demand.The floor planning focuses on the efficient small scale division, the view of North Port and the solution to the difference of area required between low and upper floors. Therefore, the first and second floors become one mass, and the upper floors are Ð-shaped with core and courtyard in the middle. It allows offices on the west side to be open to the east and North Port's view with good lightening and ventilation. The image of a sailing ship's slant lines is adopted to the outline of the upper part to give it a symbolic meaning as seafarers' center. The exterior of front and back is composed of aluminum vertical louver, and the sides consist of long and narrow vertical windows and basic panels to meet the needs for the construction cost, energy saving, pleasant working condition.

전경

우측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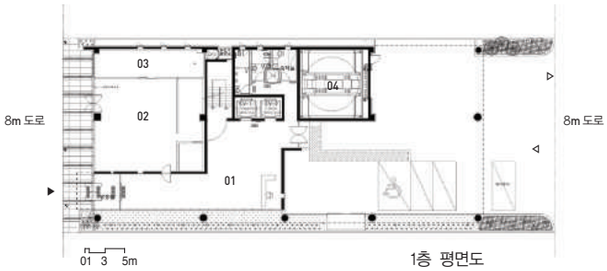
01_ 로비
02_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03_ 흡연실
04_ 주차타워
05_ 조합사무실
06_ 회의실
07_ 조합장실
08_ 노사협의회사무실
09_ 선원휴게실
10_ 임대사무실
11_ 이사장실
12_ 관리본부장실
13_ 중정
14_ 옥상조경
15_ 전산실
16_ 멀티미디어 교육센터

정면, 우측면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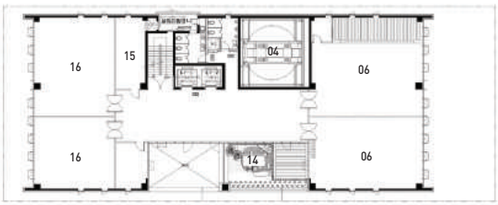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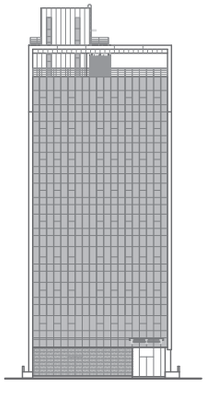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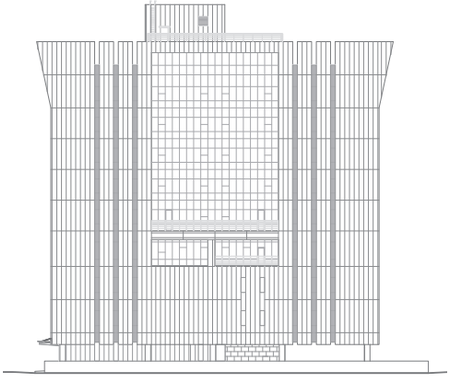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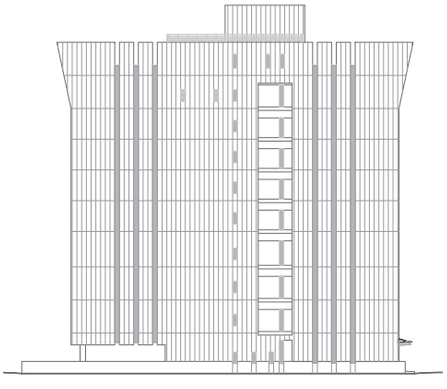
배면전경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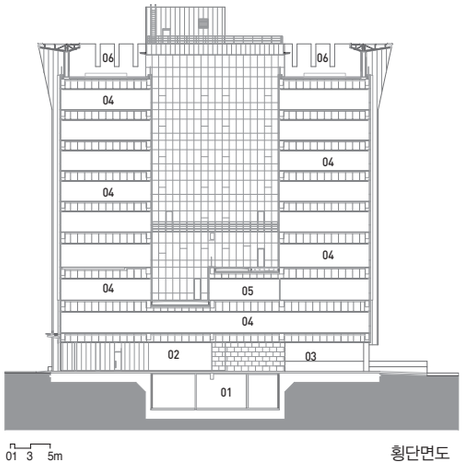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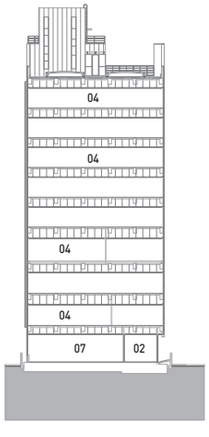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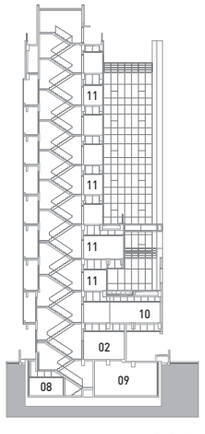
지상 3층 조경

01_ 전기실
02_ 로비
03_ 필로티주차장
04_ 업무시설(사무소)
05_ 휴게홀
06_ 옥상조경
07_ 카페테리아
08_ 감시제어반실
09_ 지하수조
10_ 조합사무실
11_ EV홀



횡단면도





종단면도

4, 5층 조경

4층 E. V홀 전경

WORKS

인덕대학교 콤플렉스 센터

INDUK UNIVERSITY COMPLEX CENTER

강삼래 – 정회원 | ㈜유창이엔씨 건축사사무소
+ **김태창** | ㈜디앤에이 건축사사무소
+ **유대근** – 정회원 | ㈜유용준 건축사사무소 + **정성훈** | 인덕대학 교수
Architects - Kang, Sam-rea · KIRA + Kim, Tea-chang +
You, Dea-keun · KIRA + Jung, Seong-hun

설계팀 | 이창훈, 이경노, 박승현, 송정현, 조규창, 최태희, 김성환
건축주 | 인덕학원
대지위치 | 서울 노원구 월계동 648번지 일원
대지면적(Site Area) | 76,485㎡
건축면적(Building Area) | 874㎡
연면적(Gross Floor Area) | 18,60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6.62%
용적률(Floor Area Ratio) | 74.04%
규모(Building Scope) | B2–1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설계 | ㈜ 지우구조기술사 사무소
설비설계 | ㈜ 라인 이앤씨
마감재 | T.20 화강석, T.24 로이복층유리

Project Team | Lee, Chang-hun / Lee, Kyeong-no / Park, Seung-hyeon / Cho, Gyu-chang / Choi, Tae-hui / Kim, Seong-hwan
Client | Induk University
Location | Seoul Nowongu Wolgyedong 648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Zywoo Structure
HVAC Engineer | Line e&c
Finishing Materials | t.zo stonetin, t.24 double, layered glass

배치도

최근 대학은 학령인구감소와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성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우월성을 홍보하며 신입생유치에 열을 올린다. 이러한 노력이 이제는 캠퍼스분위기에까지 미쳐 저마다의 특색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건물은 과거 양적팽창에만 치우쳤던 과거와 달리 개성과 창의성으로 가득한 수준높은 건물로 학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구상된 인덕대학교의 연지스퀘어는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장하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생각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인조잔디구장을 가져보자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이 더 확대되어 대학부지의 남측 도로면에 6~7층 규모의 콤플렉스를 신축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대학의 정면을 가로막는 긴 형태의 6~7층 규모의 건물은 개방감과 시야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었고 막대한 건축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채택한 안이 현재의 연지스퀘어이다.

설계초기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된 부분이 개방감 확보와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란 점이다. 대학의 캠퍼스는 대학생들의 젊음과 패기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지역 특성상 이웃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는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만 했다. 여기에 현실적 조건인 운동장 레벨과 주변도로와의 관계도 있었다.

전경

운동장은 평평한데 비해 운동장과 접하는 2면의 주변도로는 모두 경사도로 이기 때문에 정, 후문과 차량의 진출입 결정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레벨차이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운동장레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레벨차이는 후에 설계의 개념설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존레벨을 유지하며 인조잔디구장을 수평으로 조성할 경우 남측도로 측의 건물높이는 도로에서 2미터 정도 높게 된다. 이 정도 높이의 파사드(facade)에는 창문도 작을 뿐 아니라 대학의 상징성도 표현하기 어렵다. 다른 한 편으로는 '대학 캠퍼스에 운동장만 넓게 조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논바닥 한가운데 멀뚝이 건물 한 채 세워 개교하던 과거 신흥대학들의 개교시절의 모습과 유사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대학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상과 미래를 위해 머무는 곳이다. 캠퍼스 구석구석 그들에게 적합한 공간이 필요하며, 때문에 그들 나이에 따른 행태가 분석되어야 했다. 그들은 운동장에서 뛰며 운동도 하지만 때론 자연을 보며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산책도 하며 사색하는 반면 끊임없이 대화하고 큰소리로 웃고 떠들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들은 신축건물을 통한 캠퍼스 조성의 중요한 요소로 채택되었다. 운동장 주변은 교내행사에 적합하도록 스탠드로 구획되었고, 그 뒤로 경사면으로 조성되어 조경공간으로 채워졌다. 가운데를 낮추고 양쪽 날개를 들어 올림으로써 진취적이며 다이내믹한 매스감을 표현하였고 여기에서 그들은 산책하며 사색할 수 있으며, 다른 한쪽은 야생화 정원으로 가꾸어져 자연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사면을 반대 측인 도로면에서 보았을 때는 도전적이며 패기 넘치는 파사드(facade)의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었다. 건물의 서측에 위치한 학생처와 동아리실의 중앙은 잘 가꾸어진 중정(中庭)의 선큰 처리로 지하 2층까지 햇살이 비치도록 하여 굳이 운동장 레벨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벤취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지하 2층의 동아리실은 중정을 통한 자연채광과 함께 드라이 에리어를 통한 통풍기능까지 갖춰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게 된다.

지하 1층의 학생식당은 단순히 학생들의 식사해결장소에 그치지 않고 작은 무대를 두어 음악회나 세미나 등의 대학의 다양한 행사와 지역주민을 위한 예식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상되었고, 식당 중앙의 두 개의 원형 천창은 자연채광을 유도하며 인테리어의 핵심요소로 작용되었다. 지하 2층의 원형 휴게라운지는 학생들의 휴식공간인 동시에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며 에어로빅과 피트니스센터 등 인덕대학교의 연지스퀘어는 종합적인 학생복지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The construction of yeonji square at induk university started with the idea of making use of the underground below the athletic field simply as a parking lot and ultimately getting a sports field landscaped with artificial grass which was supported by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this idea eventually grew into a large plan to build a new 6 or 7-storied complex bordering the edge of the southern road on campus.

while an initial blueprint for the construction was being drawn up, worries arose over a long 6 or 7-storied building which blocks the front view of the university and diminishes openness around the campus; consequently, amid considerabl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coasts, a new blueprint was created for yeonji square, with all things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the core ideas put into the inchoate design were securing openness and turning the structure into a space for college students.

the philosophies of design for the campus should include a view that a university campus is supposed to be a space where college students can exert their youth and enthusiasm as freely as possible, and a notion that the campus needs to stay open to residents in the neigborhood, as a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community.

added to these thoughts were the practical reasons considered; the level of the athletic field and the roads nearby.

the athletic field was level while the two roads adjacent to it sloped, so it was not easy to determine the positions of the entrance and the exit, and both directions of traffic. in order to minimize this problem with the ground level, the university decided to maintain the level of the athletic field; therefore, the difference in level became an essential element in formulating a concept of the architectural design l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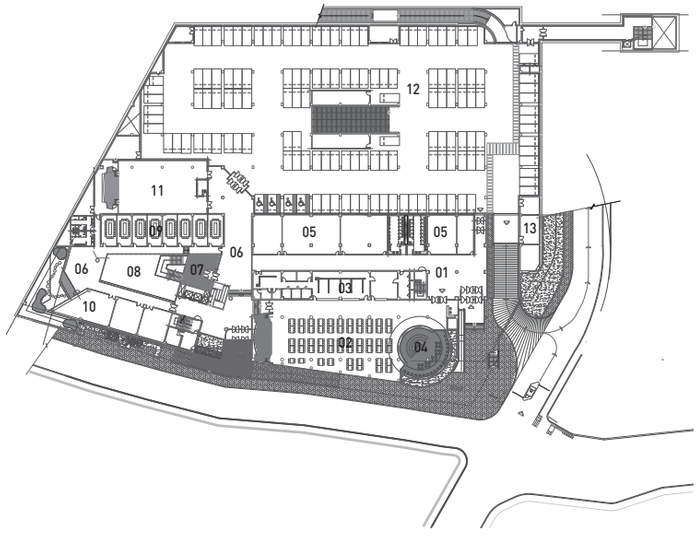
if the university installs artificial grass on a level athletic field with the previous ground level intact, the buildings bordering the southern road would be 2m or so higher than the road level. the area surrounding the athletic field was transformed into stands suitable for intramural occasions and behind the stands were formed a sloping piece of land that was reserved for landscaping. the middle of the slopping land was lowered, with both wings raised to express enterprising and dynamic feelings of mass;

hence, students can meditate and peregrinate in and through the space, and can smell and touch nature on the other side that was landscaped into a garden of wild flo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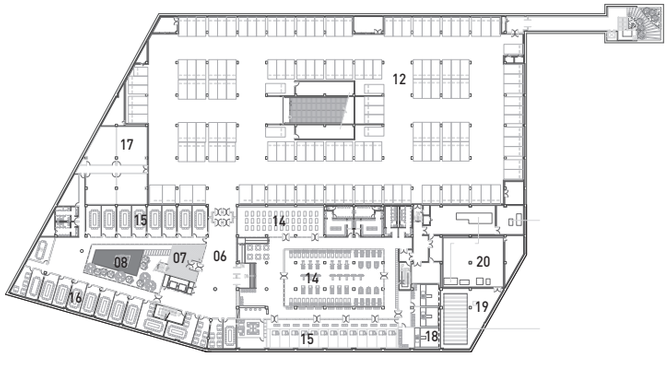
when this sloping piece of land is viewed from the opposite roads, it could form a significant element of a challenging and spirited facade.

aided by a well-decorated sunken atrium and lit by the sunlight flowing down to the second basement through it, the office of student affairs and the middle of fraternity rooms located in the east of the building can turn into a space where students can sit on the benches to take a break and have conversations, without any need to walk up to ground level. the rooms in the second basement reserved for student fraternities, equipped with a ventilation system through a dry area in addition to the natural sunlight coming down through the sunken atrium, can sustain a fresh atmosphere under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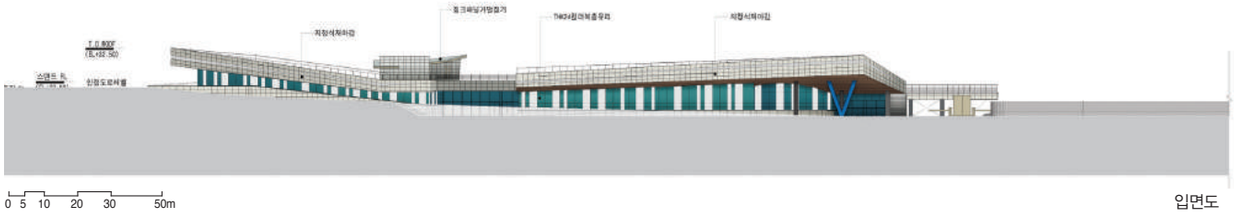
01_ 로비
02_ 학생식당
03_ 주방
04_ 커피숍
05_ 숍
06_ 홀
07_ 데크
08_ 선큰
09_ 총학생회
10_ 학생처
11_ 다목적홀
12_ 지하주차장
13_ 용역원실
14_ 학생편의시설
15_ 동아리방
16_ 디자인브랜드 사업팀
17_ 음악연습실
18_ 예비실
19_ 물탱크실
20_ 전기실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입면도

연지스퀘어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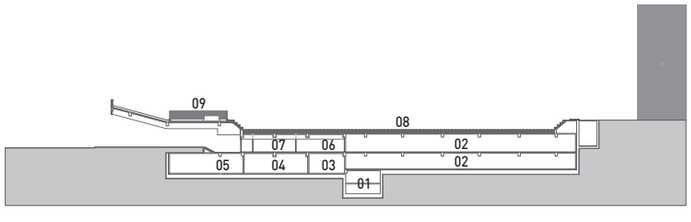
지하 1층 복도

지하 1층 학생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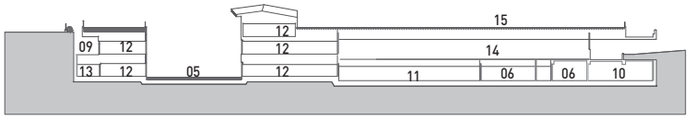
지하 2층 강당

지하 2층 쉼터

01_ 정화조
02_ 주차장
03_ 전기실
04_ 기계실
05_ 선큰
06_ 학생편의시설
07_ 로비
08_ 운동장
09_ 실외기설치공간
10_ 물탱크실
11_ 헬스장
12_ 홀
13_ 동아리방
14_ 학생식당
15_ 스탠드



종단면도



횡단면도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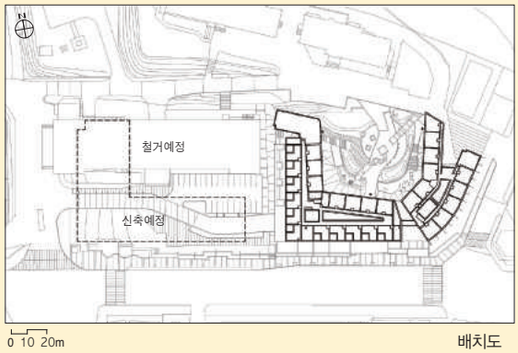
숭실대 레지던스홀

SOONGSIL RESIDENCE HALL

이성관 – 정회원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Architect - Lee, Sung-kwan· KIRA

설계팀 | 이재익, 김현조, 하평소, 홍효정
건축주 |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대지위치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511번지 외 6필지 숭실대학교 내
대지면적(Site Area) | 121,054.1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269.52㎡
연면적(Gross Floor Area) | 29,195.9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6.30%
용적률(Floor Area Ratio) | 121.01%
규모(Building Scope) | B2–12F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 (주)한국구조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 (주)성일이앤씨
전기설계 | (주)진전기엔지니어링
시공사 | (주)서희건설
마감재 | T30고흥석버너 및 물갈기

Project Team | Lee, Jae-ig / Kim, Hyun-jo / Hwa, Pyung-so / Hong, Hyo-jung
Client | Soongsil University
Location | Seoul Dongjak-Gu Sangdo-dong Soongsil University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HANKOOK Consulting Structural Engineers
HVAC Engineer | Sungil ENC
Electrical Engineer | JIN Electrical Engineer
General Contractor | SEOHEE CONSTRUCTION
Finishing Materials | Granite, Glass curtain wall



배치도

SITE 민간자본을 유치한 시설사업의 특성은 경제성을 우선으로 한 자칫 집단수용 개념의 중복도 위주 열악한 환경의 기숙사로 계획될 소지가 많다. 숭실대학 기숙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한 시설이나 기존 이용 학생의 불만을 해소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로 계획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존 기숙사와 연계된 위치에 건물을 철거하고 마련한 사업부지는 남측으로 25m사당로와 동측 12m서달로 교차로에 접하고 사당로 남측은 저층상가 밀집지역, 서측은 캠퍼스내 6층규모 전산관, 동북측은 서달산 끝자락과 연접하며 산너머 현충원이 위치한다.
서측 정문에서 500m 거리에 55m 표고를 극복하는 사당로 정점에 위치하여 도로소음에 노출되며 도로에 연접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숙사부지로는 부적합한 환경이었다.
따라서 여러 레벨을 이용한 필요기능과 접근을 고려하고 서달산의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유입과 주변 도시 맥락과 연계되게 계획하였다.

PROGRAM 지상 12층의 8,600평 규모이다. 총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20개 실로 구성되어 유닛은 2인실 위주로 구성되고, 게스트하우스, 1인

실, 4인실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사생실, 세미나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DESIGN ISSUE 두개의 자유로운 선형배치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사이공간을 만들어 낸다. 사이공간은 수평적으로 서달산, 진입광장, 선큰, 로비 실내정원, 로비옥외데크, 도로까지 유기적인 외부환경의 흐름을 유도한다. 수직적으로는 로비 실내정원의 수목을 모티브로 한 가벽과 연결된 다양한 형태의 공용커뮤니티공간은 매층 중복되게 배치된 2개 층 높이의 휴게실과 상호 관계를 맺는다.

서달산을 향해 열려 있는 두 켜는 수직적인 자연 빛의 유입과 수평적인 조망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자연환기가 가능한 저층부 주차장의 요소와 주변 캠퍼스와의 조화를 이룬 입면구성, 랜덤하게 배치된 휴게실(void space), 최상층 게스트하우스의 옥외데크(void space), 교차로 모서리 부분의 투명 브리지는 남녀 사생실의 기능적 분리와 매스감을 완화시킨다. 또한 외부에서 내부로의 조망을 가능하게 하고, 도로변 외관의 다양성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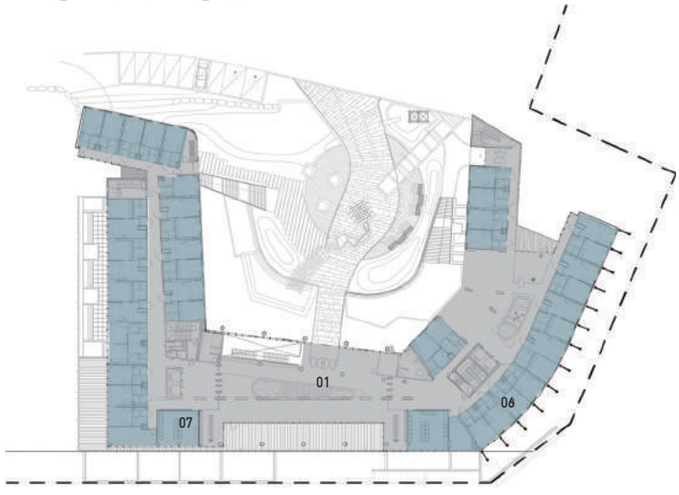
SITE It is possible that residence halls which are invested by private capital might be designed with a middle corridor to accommodate as many students as possible since they put a bigger emphasis on economic feasibility. Therefore, Soongsil residence hall applied concept of housing with various amenities in order to offer a good environment to students by handling students' complaints and problem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However, the building site was unsuitable for residence hall as the site was exposed to traffic noise since it was surrounded by roads and Computer Science Institute of Soongsil University. Therefore, Soongsil residence hall was planned with several levels to bring Mt. Seodal's natural environment into the site actively and connect surrounding city context with the residence hall properly.

PROGRAM Soongsil residence hall is 12 storeys high and has a 8600 pyeong of floor space with 720 rooms which is possible to accommodate a total of 1400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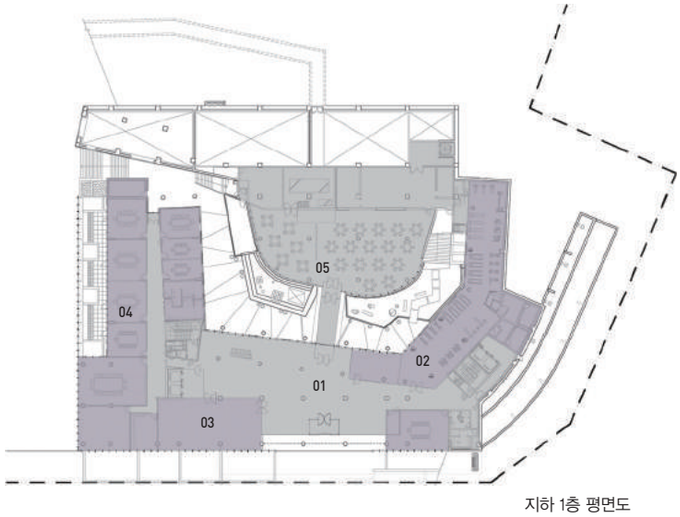
Units of the residence hall consist mainly of double-occupancy rooms with guest rooms, single rooms and four-occupancy rooms. Also, there are restaurants, a fitness center and seminar rooms for student's convenience.

DESIGN ISSUE Two linear building layers are placed freely to make various kinds of three-dimensional interspace. Those interspace tak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Mt. Seodal, the plaza, sunken spaces, indoor garden and outdoor deck of lobby and roads into the building organically. Also, public community spaces are connected with free-standing wall which is motivated by indoor garden of lobby and those spaces make interrelationship between 2-storey lounges. Two linear layers which are opened toward to Mt. Seodal offer lounge spaces which have plenty of natural lights and a horizontal view. Moreover, lots of transparent spaces and void spaces of all over the building separate the male dormitory and the female dormitory. Also, it is possible to look inside the building from the outside through those space which organize diverse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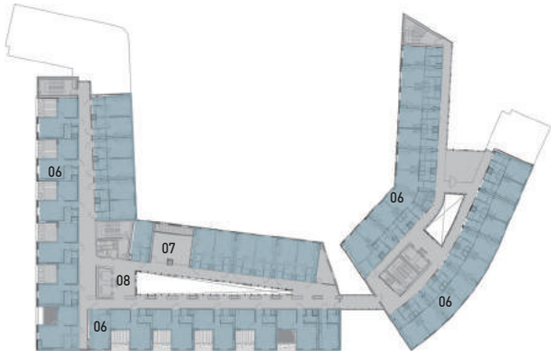
01_ 로비
02_ 체력단련실
03_ 다목적 편의시설
04_ 세미나실
05_ 식당
06_ 사생실
07_ 휴게실
08_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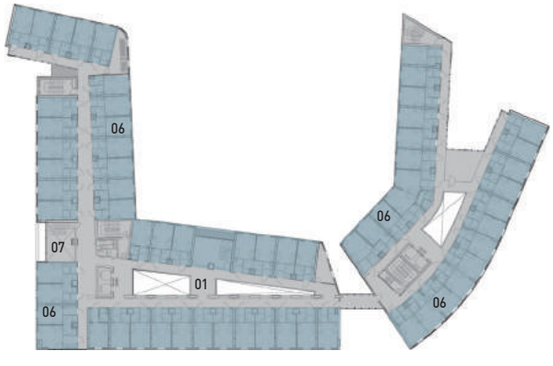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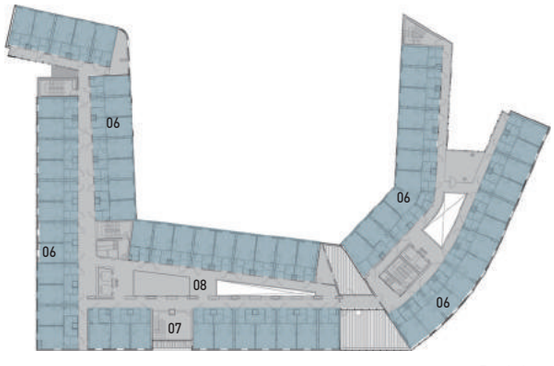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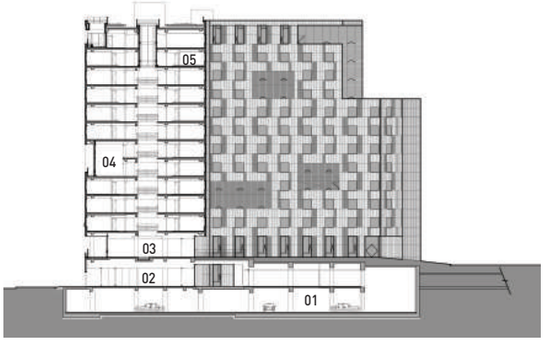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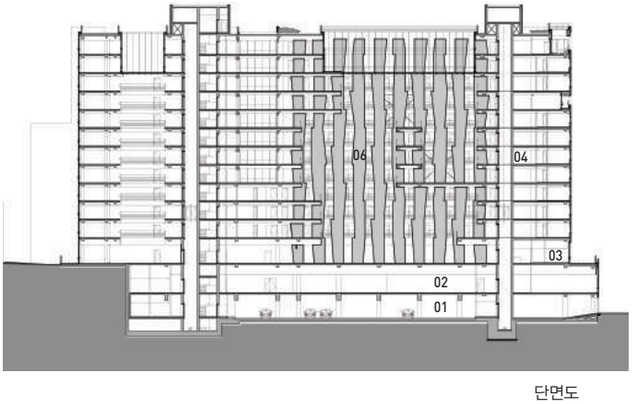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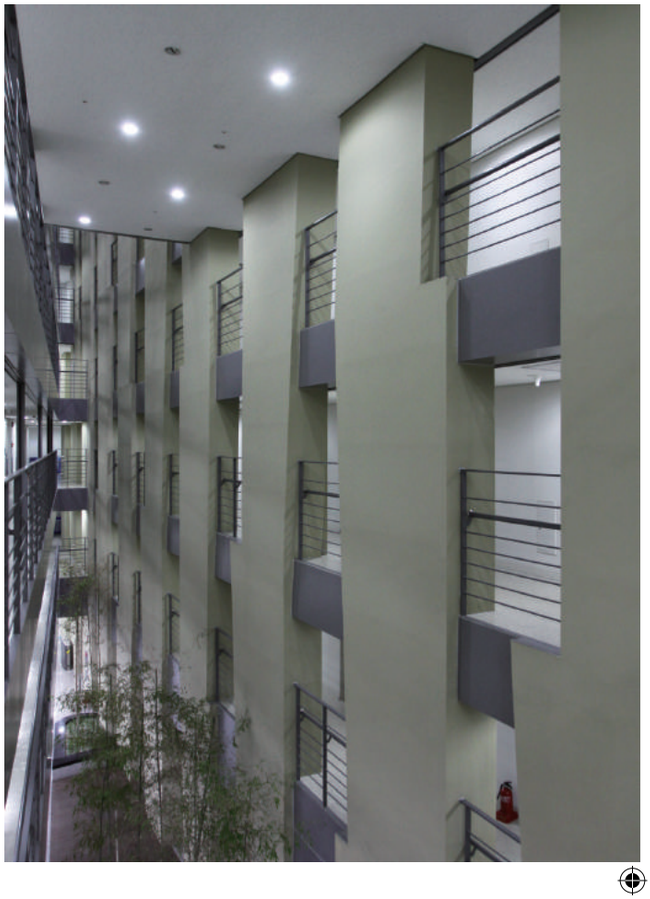
5층 평면도

01_ 주차장
02_ 공용홀
03_ 로비
04_ 휴게실
05_ 사생실
06_ 중정





단면도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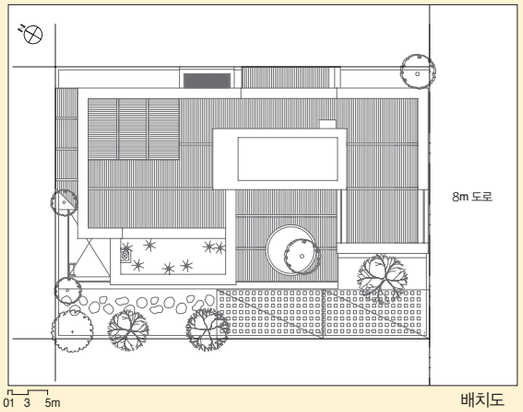
판교 525–8

PANGYO 525-8

우대성 – 정회원 • **조성기 • 김형종** | (주)건축사사무소 오퍼스
Architects - Woo, Dae-sung · KIRA / Cho,Seong-ki / Kim,Hyoung-jong

설계팀 | 김형곤, 양군수, 윤종원, 김종도, 김미혜, 이상대, 이수연
건축주 | 김경태, 민유란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525–8
대지면적(Site Area) | 224.8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2.04㎡
연면적(Gross Floor Area) | 295.7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84%
용적률(Floor Area Ratio) | 91.54%　　규모(Building Scope) | B1–2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설계 | 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 타임테크
전기설계 | 신한전설　　시공사 | 지유 디자인
마감재 | 치장벽돌, 징크
사진(Phorographs) | Park, Wan-sun

Project Team | Kim, Hyeong-gon / Yang, Gun-soo / Yoon, Jong-won / Kim, Jong-do / Kim, Mi-hye / Lee, Sang-dae / Lee, Soo-yeon
Client | Kim, Kyung-tae / Min, Yu-ran
Location | Gyeonggi-do Seongnan-si Bundang-gu Pangyo-dong 525-8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Moa Consulting Engineers, Ltd.
HVAC Engineer | Timetech HVAC Engineers
Electrical Engineer | Shinhan Electrical Engineers Inc.
General Contractor | JI.U DESIGN
Finishing Materials | Brick, Zinc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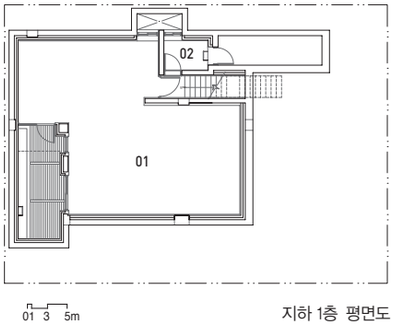
'참으로 황량한 벌판이구나' 부지를 처음 방문하고 든 생각이다.
1,300개가 넘는 판교단독주택 필지 매트릭스 중의 하나이다. 필지조성만 된 땅에서 대지의 존재를 인식하기란 어렵다. 경계 표시로 듬성듬성 박힌 말뚝이 대지경계의 전부다. 이 땅과 저 땅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러한 대지의 보편성은 판교주택 거주자의 보편성과 닮았다. 누가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집, 필지의 보편성과 거주자의 보편성, 이 두 가지 보편성이 판교주택의 중심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극히 개인적인 삶을 반영한 특수성을 지닌 공간이다. 집 주인의 생활패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년간의 주택작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판교의 여러 주택을 설계하면서는 이러한 특수성보다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주택설계의 중요 주제임을 강하게 느낀다. 설계과정에서 신뢰가 쌓여 감에 따라 집주인이 속마음까지 열게 되면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
'내 생활패턴에 맞춘 집이지만 몇 년 뒤 잘 팔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달라' 판교주택 단지에 집을 짓고자 하는 이의 공통된 필요다. 보편성을 철저하게 근저에 깔고 있다. 절반은 지금 짓는 이를 위한 집이고, 절반은 미래의 불특정한 거주자를 위한 집이 되는 셈이다. 단독주택의 일반성과는 반대되지만 이것이 현대 도심주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건축사로서도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어쩌면 단독주택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달라졌음을 뜻한다. 지속적인 정주공간이 아니라 한시적인 거주의 공간으로서, 거주 이외에 자산가치가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자산가치의 증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쉬이 팔수 있는 순환적 가치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설계하는 내내 보편성에 바탕을 두고 일부 특수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전개되었다. 공간구성에서나 삶의 패턴 반영이나 모두 동일하다. 이미 우리의 생활양상이 매우 보편화 되었다는 증거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이집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에 진행된 20여개의 다른 필지 건축주 설문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몇 년간의 주택작업을 돌아보면, 이러한 현상이 판교 단독주택단지에 국한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에 설계한 경기도 광주의 주택 – 집을 지은 건축주는 2년을 살고, 영화 속의 배경 주택이 되었다가 이후 다른 이가 산다. 2006년의 연희동 주택 – 부자(父子)가 함께 지었지만 완공과 동시에 외국인에게 임차되어 몇 번의 주인이 바뀌며 살고 있다. 구조가 바뀐 집은 없다. 이는 우리사무실이 접한 특수 상황이 아니라 한국 주거건축의 보편적인 양상으로 보인다.
얼마 전 인근 필지에 이 집과 같은 2호 주택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집을 보고 똑같이 지어 살겠다는 요청에서다. 판교 주택의 보편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During my first visit, the very first thought that popped upon my mind was "What a desolate open field it is!" It was just one out of more than 1300 single housing lots in Pankyo New Town. It is not easy to grasp the nature of the ground, just based upon the observation of bare land before construction. The posts that designate the borderline were the only markings in the huge open field.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 lots located inside and outside of the borderline. The universal nature of the site is analogous to the homogenous nature of its future life styles of residents. This is a core characteristic of the residential design in Pankyo New Town.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single houses should reflect the individual life styles of their owners. However, as I have learned from my experience with other housing projects in Pankyo, the need for the universality is greater than that for individuality. As the owner of the future houses has deeper relationship and he/she can honestly consult with architects, the universality becomes an even more important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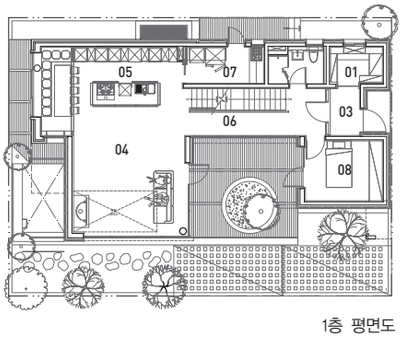
An underlying idea common among these clients is that they would like to have their new houses fitted not only for themselves, but with the needs of future buyers in mind. The goal in building new houses is mixed--partially for themselves and part for unknown future residents of their houses. While this purpose does not fit into the traditional expectation for single housing, it emerges a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for urban housing in our society. It is also crucial for an architect to predict the future direction of single housing as a substitute for large apartment complexes that have been the dominating residential structure in our society. Perhaps this phenomenon indicates that the basic concept for housing is changing. The residence no longer serves as a place for permanent living, but for other purposes such as a vehicle for improving personal assets. Even though it would not increase its real estate value, it would at least help its owners keep economic values of their assets. Therefore, throughout the designing process, how to put an individual touch on the basic universal trend of single housing has become an important concern. This has been applied to spatial arrangement as well as a reflection of the common life style. That proves how homogenous our lives become. This observation was also found from the result of questionnaires for 20 other housing owners. My observation for the general trend of residential housing shows that this phenomenon is not limited to the housing in Pankyo. The owner of a house, which appeared in a movie, built in Gwang Ju, Gyounggi, in 2003 moved to other house after two years of living. A house in Yeonhee Dong, Seoul, in 2006, built by a father and a son, was lent out to foreigners, right after its construction. Subsequent tenants have taken the house, yet throughout the change of tenants, there were no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its structure. This is very common for most houses. Recently, another house with the same design is being built upon another client's request. This shows how the universal trend dominates the housing plans of our society.

01_ 창고
02_ 보일러실
03_ 현관
04_ 거실
05_ 주방/식당
06_ 복도
07_ 다용도실
08_ 침실
09_ 드레스룸
10_ 세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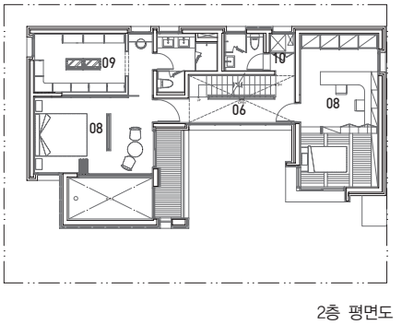


01 3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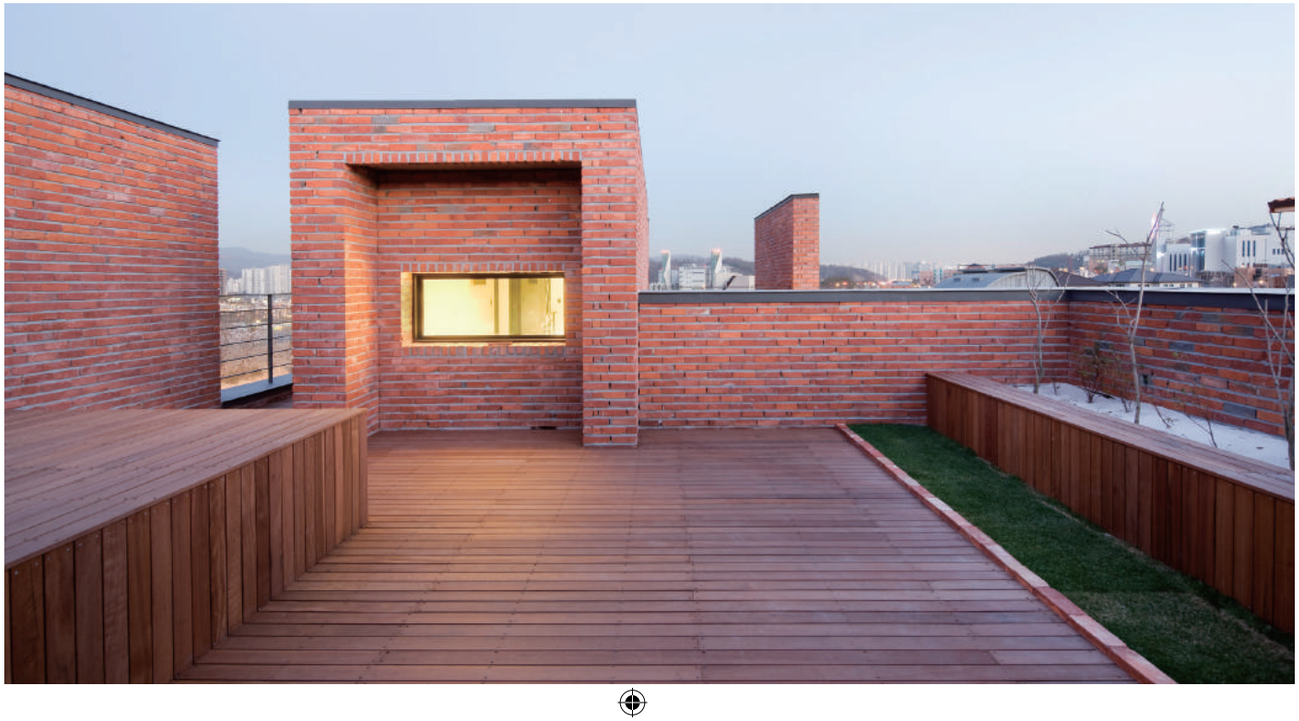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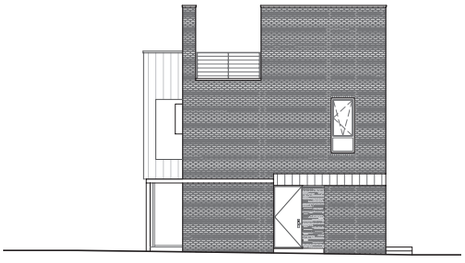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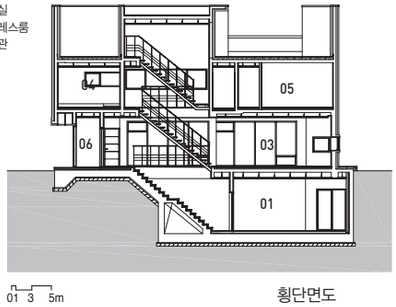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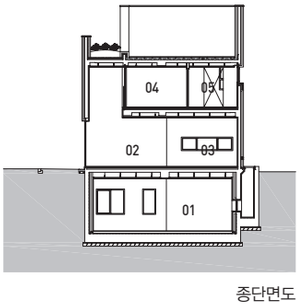
좌측면도

01_ 창고
02_ 거실
03_ 주방
04_ 침실
05_ 드레스룸
06_ 현관



01 3 5m

횡단면도



종단면도

LH본사 신사옥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HEAD OFFICE

당선작

안 길 원 정회원 · **최 창 섭** 정회원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최 기 철 정회원 · **이 수 열** 정회원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D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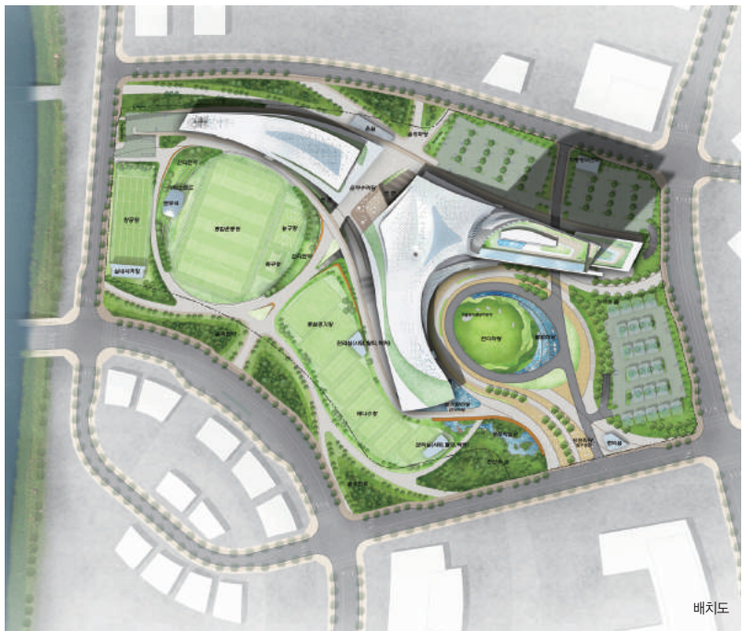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용지내 '이전9' 블록
지역/지구	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98,547㎡
건축면적	135,993.02㎡
연 면 적	132,724㎡
건 폐 율	17.02%
용 적 률	82.11%
규 모	지하 2층, 지상 20층
발 주 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계담당	**무영_** 박명협, 송도근, 이경환, 김광영, 서태식, 박현우, 서상기, 최신호, 이나리/ **토문_** 홍창성, 박 열, 고문영, 김재진, 송선영, 황정운, 이진이, 신진호/ **DRDS_** Paul Q · Davis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사옥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LH본사 신사옥은 '천년나무'라는 설계개념 아래 지속가능성, 개방성, 조형성, 실용성 등의 가치를 반영했으며 고품격, 장수명(長壽命),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국내외 최고의 명품건물 구현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형성에 중점을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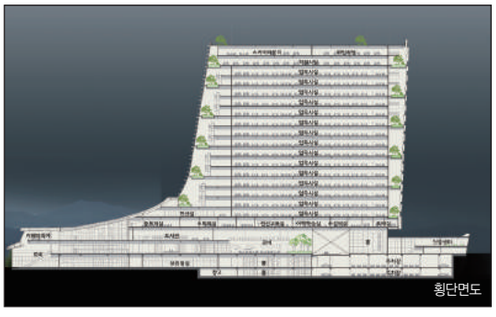
대지의 통경축을 중심으로 동측에는 업무시설과 문화전시시설을, 서측에는 보육시설 남측에 넓은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수변공원의 흐름을 연결하도록 배치하였다. 특히 스포츠파크, 자연학습장과 전시마당은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여 직원과 진주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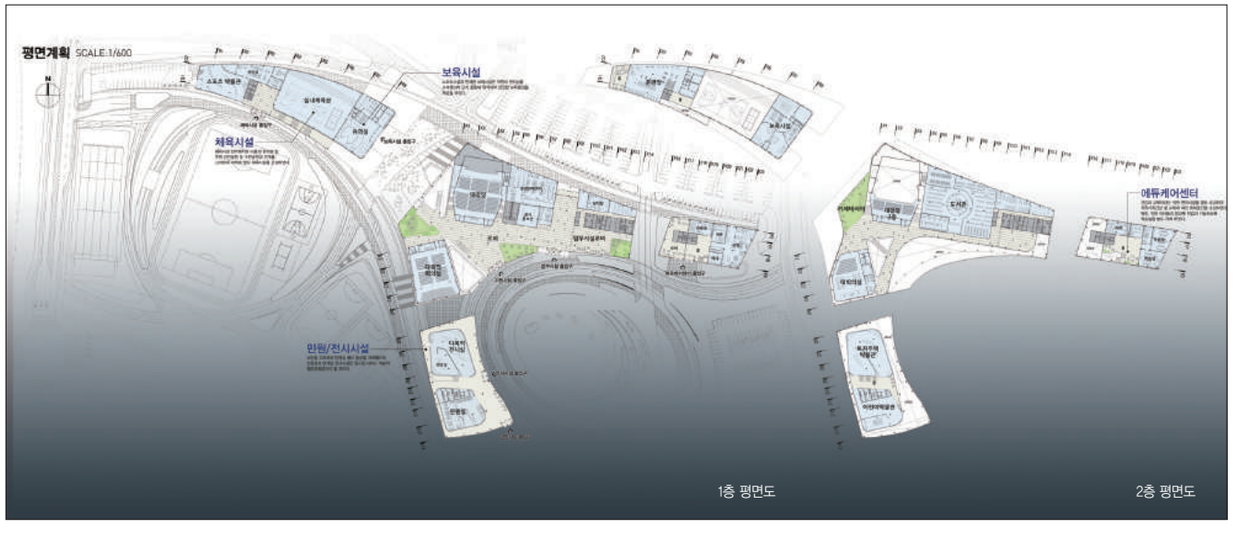
신사옥은 직원들의 설문내용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주혁신도시의 선도핵심기업의 상징성과 자연친화적이고 편리한 업무공간, 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계획하였다. 업무시설은 1개층에 1본부단의 배치를 원칙으로 전면 남향배치하여 균일한 업무환경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지원공간을 북측에 배치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였고, 업무공간 좌우에 계획된 아트리움은 휴게공간 및 맞통풍을 가능하게 하여 쾌적한 업무환경이 되도록 하였다.

공사 이전시 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의 교육과 가족 복지 문제를 적극 고려하여 방과 후 학습 및 강의가 가능한 에듀센터와 가족의 건강검진까지 가능한 진료센터를 계획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체육관과 대운동장에 연계 배치하여 수준 높은 유아스포츠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남측에 모듈화한 격자외피는 전통창호인 꽃살문을 형상화 한 것으로, 조형성 뿐만아니라 일사차단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외피시스템으로 전동차양이나 광(光)선반과는 달리 별도의 유지관리나 보수가 필요 없는 패시브디자인 기법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지중열미로 시스템, 저층부의 집수홀, 로비의 실내벽천 등 다양한 에너지절감 계획을 통해 명실상부한 친환경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배치도

입면도


횡단면도



LH본사 신사옥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HEAD OFFICE

우수작

김 현 호 정회원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 승 연 정회원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A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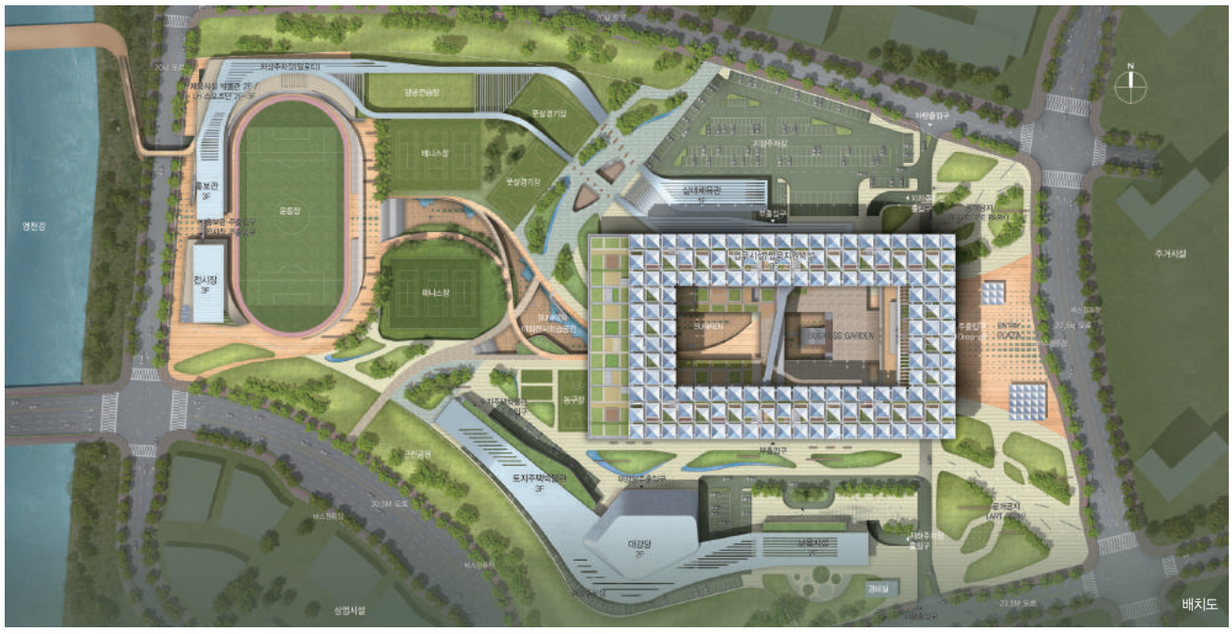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용지내 '이전9' 블록
지역/지구	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98,547㎡
건축면적	29,087.36㎡
연 면 적	134,036.30㎡
건 폐 율	29.52%
용 적 률	73.52%
규 모	지하 2층, 지상 8층
설계담당	**총괄_** 임동건, 이상혁 / **디에이그룹_** 김민중, 허성녕, 이강욱, 윤주미, 길혜연, 이성훈, 손성용, 한기성 / **원양건축_** 이영희, 김병진, 정승철, 함연식, 김부희, 김성산

계획안 'The Platinum'은 '토지'를 상징하는 Plate와 '천년'을 뜻하는 millenium의 합성어로써 '천년의 가치를 담은 미래'이며, LH공사 신사옥 건립 비전 '천년사옥'에 부합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상생', '화합', '미래'라는 세 가지의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Publicity', 'New Office', 'Green Tech'라는 세 가지의 설계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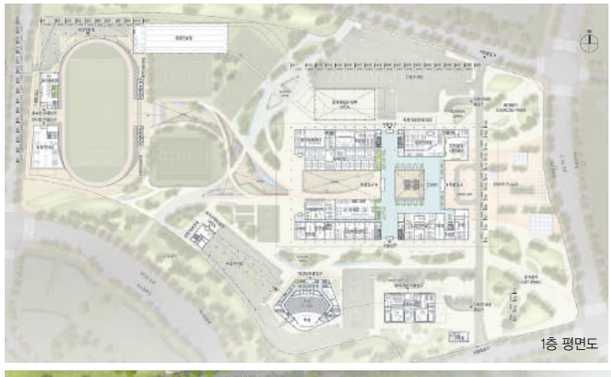
Publicity – 공공성을 배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부지 주변의 단절된 두 상업지역을 잇는 기능으로써 부지 동편 수변 쪽에 오픈스페이스 및 홍보관을 배치하여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강당과 전시시설 및 외부공간을 주변 맥락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문화와 여가를 즐기도록 하였다. 특히 동측 전면광장에서부터 서측 수변까지 하나의 보행 흐름으로 연결하여 공공적인 접근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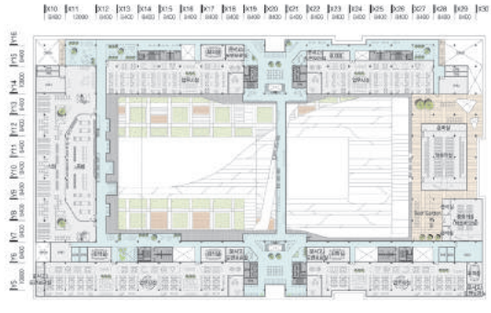
New Office –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신개념 평면계획 8층 규모로 그랜드 비즈니스 가든을 내포한 주 건물동에서 업무시설은 100% 남향으로 배치하고, 업무지원시설은 동 · 서측에 배치하여 동선을 단축하고 업무효율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LH의 업무 특성을 반영, '처'별 업무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처' 단위로 규모를 분석하고 단일 층에 다양한 규모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창조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개념 공용공간, 'Hub Space', 'Linkage Space', 'Identity Space'를 제안하였다.

Green Tech – 친환경 건축공학의 집합체 진주지역의 기후특성을 분석하여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건물형태와 전동루버로 일사차폐를 유도하고, 밤에는 써멀 라비린스와 쿨링튜브를 사용하여 건물을 자연냉각시켜 24시간 숨 쉬는 외피를 계획했으며, 물 · 바람 · 빛 · 태양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루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단면계획

파주 가람도서관

PAJU GARAM LIBRARY

당선작

윤 상 국 정회원
(주)관 건축사사무소
+박 종 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118번지 일원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도서관),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7,160.00㎡
건축면적	1,406.24㎡
연 면 적	3,843.05㎡
건 폐 율	19.68%
용 적 률	17.63%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 주 처	파주시청
설계담당	남정훈, 최진군, 김호영, 김효정, 박길선

장소성(genius loci)과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는 도시와 공원의 경계에 놓인 대지가 품고 있는 장소성의 고찰에서부터 그 개념이 시작되었으며 음악과 도서관의 조합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수성이 개념을 발전시키는 모멘텀이 되었다.

책이 있는 도심 속 음악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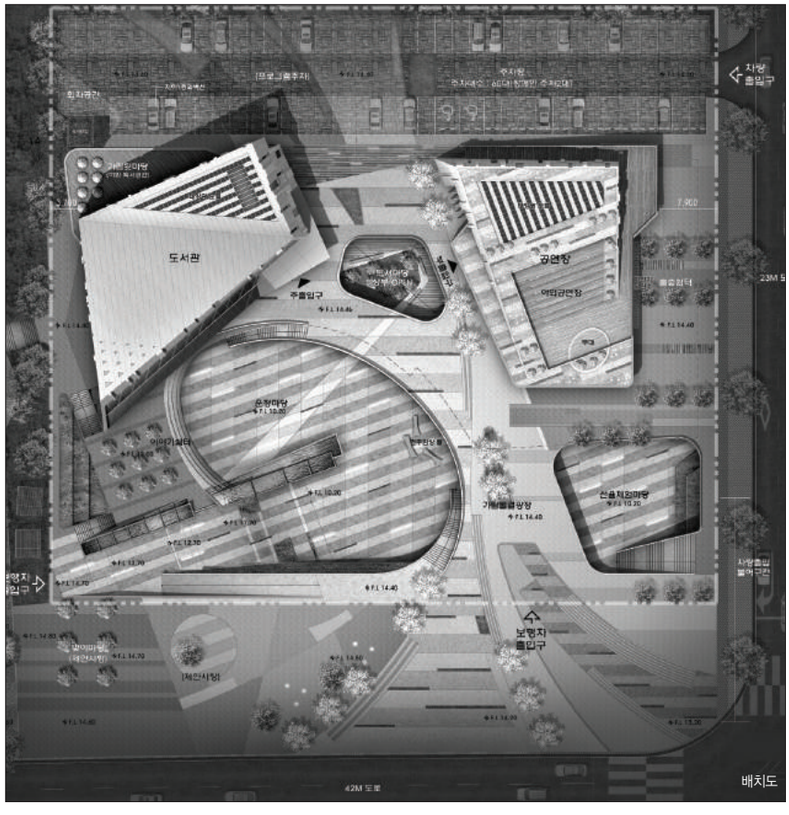
건축은 몸을 낮추고 선큰가든(sunken garden)은 연주장소가 되며 관객은 경사로에 앉거나 누워서 음악을 보고 듣는다. 이 장소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책이 있는 도심 속 음악 공원"이 된다.

경계흐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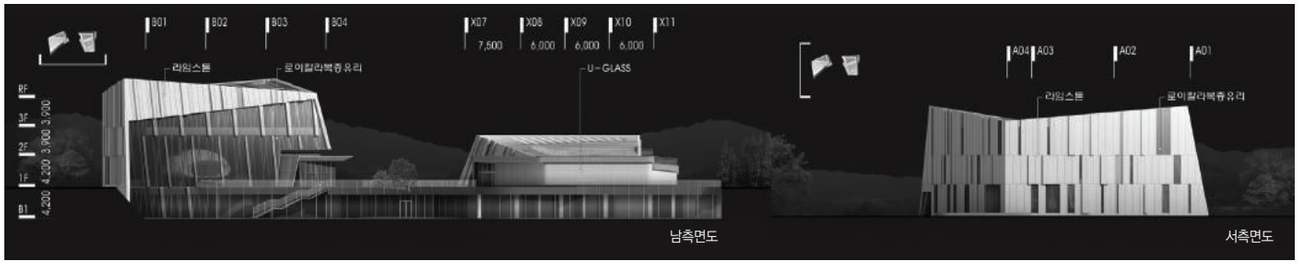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경계공간에 음악도서관을 계획하였다. 도서관과 음악 홀의 물리적 감성적 경계가 흐려지며 음악이 흐르고 책을 읽는 도심 속 공원을 제안한다.

다양성과 중의성을 통한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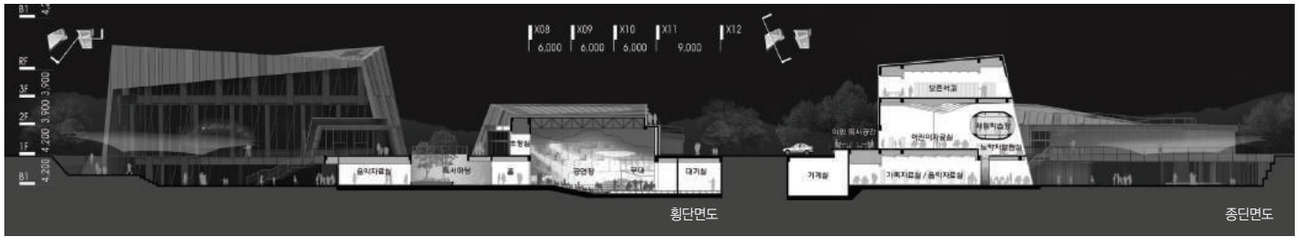
이곳을 찾는 사람은 즐거워야 한다. 음악을 들으며 좋은 책을 읽으며 음악연주자의 연습하는 모습도 감상하며 즐거워야 한다. 이곳을 떠날 때 사람들은 녹초가 되어야 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공간을 찾아 돌아다닌 후 녹초가 되어야 한다. 몸으로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즐겁고 풍성해서 녹초가 되어야 한다. 이 건축은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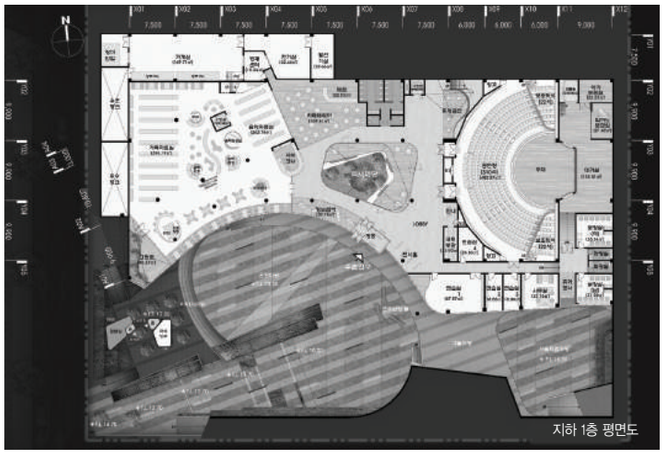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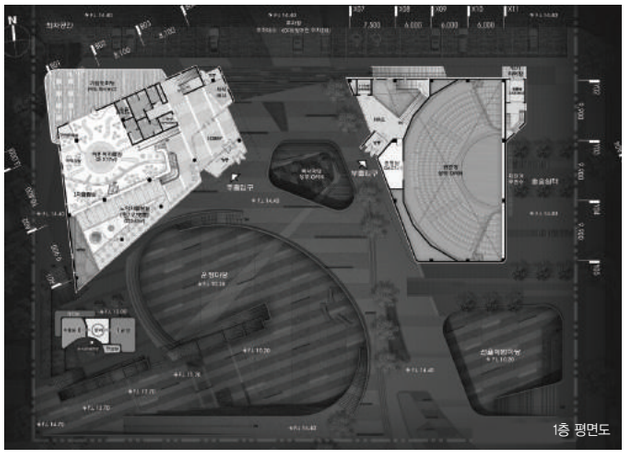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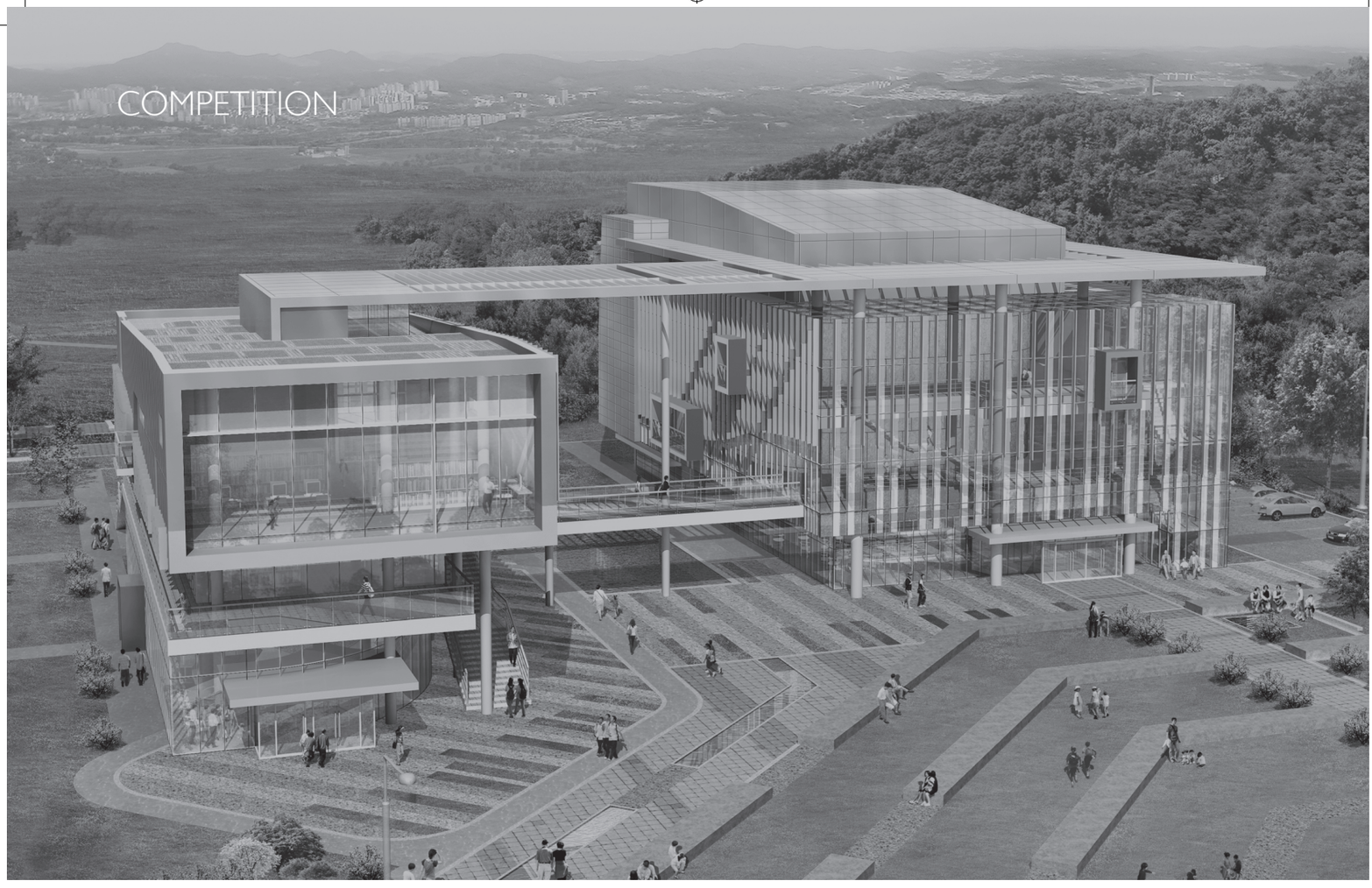
남측면도 서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파주 가람도서관

PAJU GARAM LIBRARY

가작

고 성 호 정회원
(주)엠에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118번지 일원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도서관),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7,160㎡
건축면적	1,427.01㎡
연 면 적	2,934.799㎡
건 폐 율	19.93%
용 적 률	40.98%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설계담당	김종남, 고성호, 이동룡, 이석기, 조현철, 배관유, 임은정, 강신국, 이도엽, 김재기, 김용우, 임은미

문화, 자연, 도시의 풍경을 담는 소통의 프로세니움(Proscenium)

Dream 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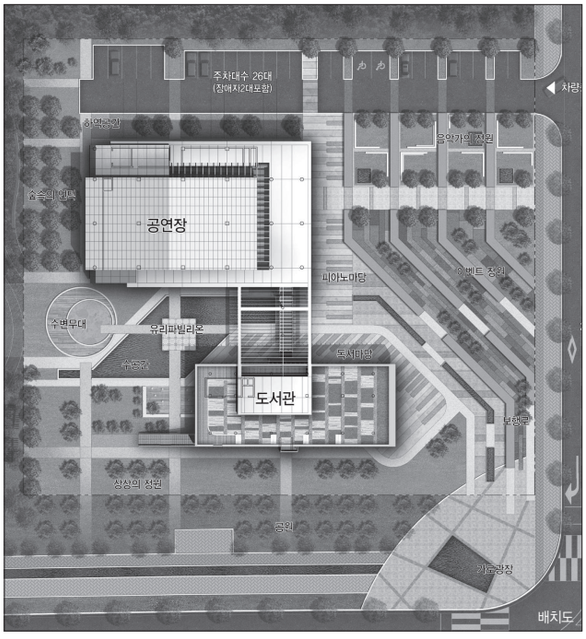
파주는 그 위치로 인해 '평화', '자유', '화합'과 같은 상징적 단어가 늘 함께 해왔던 곳이다. 운정 지역은 파주의 입구에 조성되는 새로운 신도시이며 여기에 '가람도서관'이 들어섬으로써 기존에 파주가 지녀왔던 상징적 요소에 '문화'라는 요소를 더하게 된다. 계획의 첫째 주안점은 '문화도시'의 입구로서 운정 지역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 조성에 있다.

Sound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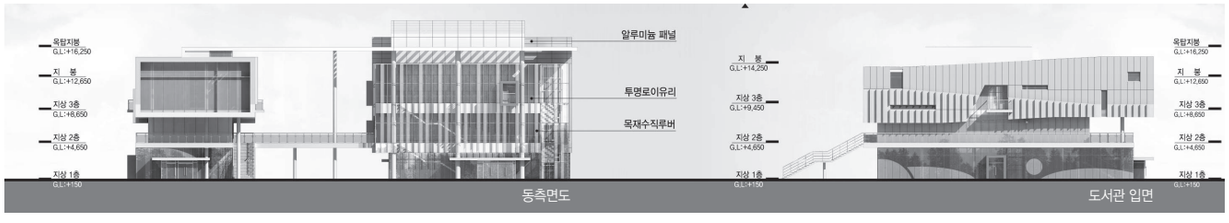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성격상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대지에 배치함에 있어 외부공간의 역할에 주목하여 도시와 자연을 향해 '열린 공간'과 영역별로 나뉘어져 기능화 된 '외부활동 공간'을 프로그램 사이에 계획하였고, 결과적으로 도시전체를 향한 공공성이 강조될 수 있게 하였다.

Harmony Space

도서관공간과 공연공간은 공간의 성격을 고려해 각각 분리하면서도 향과 조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동선에 의해 연결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형태에 의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설로 인지될 뿐만 아니라 공간의 배열과 동선의 엮임에 의해서도 두 프로그램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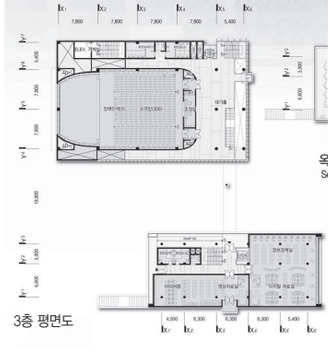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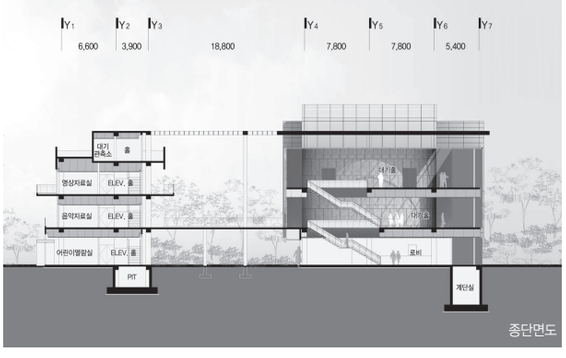


동측면도
도서관 입면

서측면도
음악당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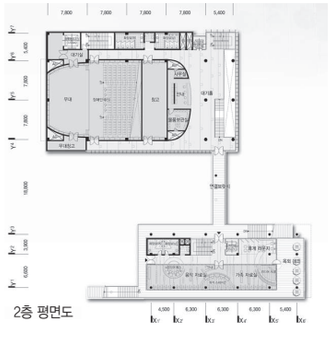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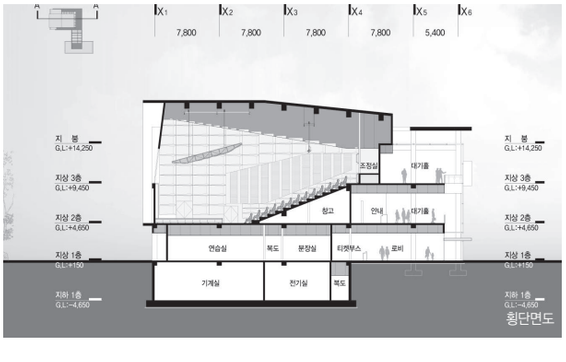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종단면도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횡단면도

이종갑

(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서울대 법대 법학과 졸/미 보스턴대 대학원 경제학 석, 박사/국무총리 행정조정실/경제기획원 투자심사국, 경제기획국/대통령 민정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과/경제기획원 예산관리과장/재정경제원 국민저축, 자금시장, 정책조정, 경협총괄과장/조달청 원자재수급계획관/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법무법인 태평양 수석전문위원/두산그룹 삼화왕관(주), (주)네오플럭스 대표이사/(현)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주)네오플럭스 부회장

건축의 사회적 공감을 위해

이젠 정치는 물론, 기업에 이르기까지 대중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들어섰다!
한 명의 천재도 중요하나, 다양한 시각이 모여야 올바른 과정을 찾아낼 가능성이 커진 그런 세상이다. 그것은 우리 내부 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지성의 활용이 중요한 것임을 일깨운다.
건축 또한 건축물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환경, 공공시설, 녹지, 경관, 지속가능성 등 생명활동의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전문적 영역에서 창의적인 틀로 개방되고, 각 지역민의 삶을 바탕으로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발맞추어 건축사들도 그 책임과 관리, 선도 할 역량 제고는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크고 넓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 및 건축사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우리의 업무 관련인,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며,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혀** 공론적 건축 담론의 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희망하고 꾸준히 가보자.

그 분의 사무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는 탓일까? 아니면 벤처 투자 전문인으로서 디자인산업이 기술개발 투자보다 그 부가가치가 훨씬 큼을 알았기 때문일까?
여느 때보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건축 얘기가 풍성해 졌다. 시간적 여유가 아쉬울 정도로.
더구나 기업, 벤처 투자, 컨설팅 전문 업체에 건축사 자격을 가진 인재가 함께 잘 일하고 있음을 듣고 반가움, 의외로움 등의 복잡한 느낌이 교차하였고 아직도 나의 시대 상황 적응이 미흡한 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 소통을 위한 조그만 경험과 상황을 동료 건축사들과 공유할 수 있음이 작은 성과(?)인 듯 하여 잠시나마 더한 분발심이 일어난다.
헤어질 때 그 분이 던진 평이한 질문 –이 건축물은 어떻게 보나? –에 짧은 시간으로 그저 일반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사전 나름의 분석과 학습의 노력이라도 있었으면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흥미로운 전개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지금까지 건축사 업무는 대체로 기획, 예산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설정된 후 그 후속 작업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세상의 변화는 이미 그 전통적 패턴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대응 역시 달라져야만 한다. 소위 위험성이 높은 투자 방식이라는 밴처캐피탈!
세상이나 산업적 트랜드를 연구, 그를 업계에 제시하고 인재 양성은 물론, 여러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 있는 협회/협회장을 찾아 건축과의 연계 고리를 찾아보려 하였다.
이제 국내 개발 기획을 넘어 아직은 시작 단계이나 세계적 산업시설, 도시계획, 인프라 시설까지 그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력을 키워가는 모습은 업역이나 진출 확대가 필요한 우리 건축사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 크지 싶었다.

박찬정 :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귀한 자리 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종갑 : 어서 오십시요.
이리 오셔서 의미 있는 얘기 나눌 수 있으니 저도 감사합니다.

박 : (주)네오플럭스 부회장 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직을 함께 수행하시는 걸 보면 업계에서의 신임과 능력이 검증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맡고 계신 조직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 신임과 능력이 뛰어나다기 보다는 저의 회사 네오플럭스(Neoplux)가 창업투자업무도 하고 있고, 그런대로 실력도 인정받고 있는데다가 제가 관료출신이다 보니 네트워크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무보수직입니다.

박 : 어느 조직이든 지금 세상에 아무나 추대하진 않겠죠! 당초 이런 초대의 자리에 건축설계분야와는 오히려 좀 무관(?)한 듯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소통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설계와 벤처도 유사하다고 봅니다만…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 그렇겠네요. 그런 공유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풀어 가기가 조금은 수월하겠지요. 그러나,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네요.(웃음)

박 : 귀 협회의 활동과 업무에 대한 것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는 여느 협회와 마찬가지로 회원사 상호간의 업무협조, 제도 개선, 국제간 교류,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한 사단법인체로서 1989년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102개회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하려는 분들한테 절차라든지 소요자금에 조달 방법도 알려주고 벤처캐피탈, 즉 창업투자회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하다보니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박 : 저희 건축, 도시 분야도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장차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은 물론, 양상도 복합,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제는 금융 및 첨단 기술 등과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복합적인 형태와 조직으로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혹시 건축분야와 관련된 사업이나 기획 등의 내용이 있으신지요?

이 : 건축도 전문 건축인들의 기술과 아이디어에 금융이 뒷받침되어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산물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로마시내에서 보는 건축물들도 그 당시의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기술과 자금 등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오늘날에는 금융 내지는 수익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겠지 마는요. 금융 뿐 만 아니라 최근의 건축, 도시 분야도 첨단 기술은 물론 타 전문분야와의 연계문제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들이 지능화,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인텔리젼트화라 해야 되나요? 스마트화라 해야 되나요? 건축에 필요한 장치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사들도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보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업투자사들은 주로 IT, LED등 전자전기 관련 부품 등 장치산업에 주로 투자하여왔지마는 소프트한 산업에의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전기 분야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게임, 영화 등으로 투자영역을 늘리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환경, 바이오,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건축물 첨단화에 필요한 재료, 소프트웨어도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박 : 아무래도 우선은 기술이나 장치 분야가 더 수월하리라 판단됩니다.
공직에 계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신 것이 큰 장점이 아닐까합니다만, 세계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저희 쪽 분야에도 관심을 주시고 장차 많은 제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일의 역점 사업이나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은?

이 : 최근 업계의 몇몇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벤처업계가 웬만한 나라들 보다 발전해 있어서 후발 개도국들에 진출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산업시설이나 도시계획, 인프라 시설계획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우리 벤처캐피탈업계를 포함한 금융업계 전체는 물론 건설관련 전문인력들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 진정으로 그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사업은 어떠신지?

이 : 일반적으로 사모펀드투자(PEF)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벤처투자도 사모펀드투자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해당 지역이나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성공할 수 있는 특성상 외국과의 교류가 그리 많은 편

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의 투자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몇몇 회사는 중국, 동남아 등에 지점이나 현지법인, 외국기관들과의 합작내지는 제휴형식으로 진출하고 있기는 합니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협회 차원에서도 외국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국-상하이, 미국-실리콘밸리- 등에서 설명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 : 그 동안 가장 보람 있으셨던 일이나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이 : 글쎄요. 어느 협회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벤처캐피탈업계로 연금, 기금과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점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와 막 창립한 회사들 간의 관심영역이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조정이 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박 : 어느 조직이나 내부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지요. 현대는 모든 게 정말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귀 협회의 비전이나 지향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 시대변화에 맞게 변신하는 것은 개개 회원사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여력이 있다면 협회차원에서 업종별로 산업의 트랜드를 연구해서 업계에 제시해주는 일을 해주고 싶습니다. 현재는 최근의 투자 성공사례 등을 예시하는데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요.

박 : 현 선진국에서는 자산가치가 주로 지식재산 같은 무형자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적 지원 자금 요청 시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는 예가 일반적인데, 귀 협회의 상황과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 벤처캐피탈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는 담보를 못 잡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아주 정밀하게 심사를 합니다. 투자하고 나서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멘토 기능도 합니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요구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나 대출을 해야지, 담보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전근대적인 금융방식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무형의 자산에 대한 심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힘을 합쳐 해보고 싶네요.
말씀도 잘 하시지만, 상대나 주변은 물론 분위기를 참 편하게 만드십니다. 비법이 있으시다면?

이 : 그렇게 보였다니 참 다행입니다. 비법이랄 게 있겠습니까마는 우선 그리하겠다는 마음 내는 게 우선일 것이고… 어떻든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겠죠.

송호섭 : 혹시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 업무에 대해선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이 : 솔직히 자세히 잘 모릅니다. 주로 설계도 작성과 그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모임체가 대한건축사협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 예전에는 저희 분야에선 자기 스스로 홍보를 하거나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정서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젠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적극적인 사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오늘의 이런 자리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고요. 오늘 이후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가나 사회는 곧 외형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주로 지원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이젠 소위 소프트웨어나 무형자산의 생산이나 혹은 first mover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는 때인 만큼 귀 협회와의 접점은 없을까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 점점 가시적인 것 보다는 무형의 자산이 더 중요한 사회로 이행되고 있으며, 건축 부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설계나 엔지니어링 등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회사라면 벤처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투, 융자부문의 컨설팅을 하고 계신 건축사도 이미 있는 만큼 고유 업종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지요. 저희 회사 내에서도 잘 하고 있어요.

박 : 아, 그렇습니까! 국가도 이젠 건축의 산업적, 환경적 생산효과를 보아 법령 제정 등 그를 진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민간 차원의 보다 자유롭고 새로운 제안이 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 동안 살아오신 과정과 함께 건축 관련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시면?

이 : 30년 전 미국 보스톤에 유학하고 있던 시절 300년이 넘은 건물들과 최첨단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는 모습, 찰스강변이나 파리 세느강변과 어울리는 주변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건축업계는 무얼 했나 하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한강공원을 산보하면서 아름다운 한강의 주변을 보다 계획성 있게 추진했더라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박 : 저희들 입장에선 더 하죠. 그러나 단순히 외형적 판단보다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아야겠죠. 그러나 사회적인 것은 물론, 우리 내부적 여건의 미성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젠 지난 시절 보단 미래를 위한 진정한 논의가 되었으면 하지요.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이렇게 다방면의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건축 관련으로써 문제이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 되셨던 것이 있으시면?

이 : 이제는 많이 나아졌으리라 보지만, 불신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까지도 공무원 중 청렴도나 부정부패 부분에서 건축 분야가 높고, 상당 부분 건축 과정이나 준공 후 소송 사례가 빈번하고, 견적 금액의 거의 반값 정도에 낙찰 받고, 설계도서나 시공이 부실하고… 사정이야 나름대로 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불신의 독이 다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 눈에도 그렇게 중요한 건축물을 짓는데 요행만을 바라기도 어렵고 우선 싸게 해준다면 솔깃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기술이나 노력을 들여 줄까 하는 게 사실 걱정이죠.

송 : 건축 관련 전시회나 문화행사, 혹은 건축물에 대한 책자 등을 보신 경험은?

이 : 가끔 잡지에서 소개되는 건축상 받은 멋있는 건물 등은 눈여겨 봤습니다. 기차여행이나 비행기 여행 시 앞에 꽂혀있는 책자를 통해 건축물들을 보기도 하구요. 여성잡지에 많이 소개되더군요. 제 눈이기는 합니다만, 600년 도읍치고 크게 감동적인 건축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박 : 아직 우리 모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전문적 책자나 자료 등 건축의 본질적 가치를 알기 쉽게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방면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건축,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것을 평가하신다면?

이 : 외국의 도시는 디자인 면에서 잘 된 곳이 많더군요. 특히 캘리포니아의 카멜시티는 부럽습디다. 도시전체가 하나의 건축물 같아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당에서는 건축가의 열정이 느껴지더군요.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이런 분야에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송 : 취미, 혹은 문화 활동을 하시는 게 있으시면?

이 : 역사책 보는 것과 역사의 현장을 보는 것, 그리고 낚시입니다.

송 : 동적인 면과 정적인 것을 적절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 업 이외에 더 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이 : …노후를 위해 자그마한 기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것…모든 월급장이들의 꿈이겠지요?

박 : 충분히 그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노후를 위한 주거 형태를 선택하신다면?

이 : 넓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곳…전원주택이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살린 집이면 합니다.

박 : 어떤 유형을 정하시기 전에 꼭 부인과 더불어 생활 설계를 충분히 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자(?)로써 좋은 환경, 건축/도시를 위해 관계자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 : 사무실 규모가 크던 작던, 설계나 기술 실력이 높던 낮던 지간에 '공익'을 제 1의 기준으로 하겠다는 의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에 따라 부정과 부패가 문제 됩니다만, 가끔씩 건축 전문인들이 사법 처리가 되거나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일반 언론에까지 오르내리는 걸 보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축이나 환경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들이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소위 '문화적 자부심'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하고 바라지요.

박 :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의 꿈, 경제 관료, 경영인으로서의 직업적 보람 등 스스로를 평가 하신다면?

이 : 그런대로 원하던 직장과 원하던 일을 해본 것 같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과도한 대접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 간단한 언급이시나 행복한 삶의 여정이라 할 만하네요.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체제가 현재 제일의 이념과 기준이 되어 버렸지요. 그러나 그 그림자 또한 만만치 않은데, 저희 건축설계 시장에서도 강자의 수탈(?)체계나 소위 블랙컨슈머-무리한 요구, 대가 없는 업무 강요, 온갖 술수로 애먹이는 의뢰처 등-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벤처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고 계시니 그런 어려움에 대처 할 참고나 자문이 있을 듯 합니다만…

이 : 좋은 사람이나 의뢰처에 대해서는 누구나 좋아하고 일하기 수월하겠지요. 그런 대상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이가 진짜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성과나 성장 위주의 구조에서 상생이니 동반 성장이니 하는 보다 도덕적이고 함께 살아가려는 의식으로의 변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쟁할 것은 하고, 또 버틸 것은 버티는 사례도 있어야겠죠. 세상이 다양한 만큼 그 해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 : 그렇겠지요. 교육기업인 베넷세 홀딩스 회장인 후쿠다케 소이치로 같은 분은 '경제는 문화의 종'이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건축계의 솔직한 느낌은 '문화(건축)는 경제의 종'이 아닌가 할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이 : 문화의 가치를 강조하신 거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여깁니다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포괄적으로 '문화'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어떤 경우나 주종의 관계 보다 저는 어떻게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젠 경제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날 때 주로 어디 소속인지, 지위가 무엇인지 등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그가 무엇을 하고, 혹은 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이 더 근본적이 것이 아닌가 해요. 선입견 같은 것도 덜 할 것이고요.

박 : 동감입니다.
요즘 다른 분야도 어려운 데가 많으나, 건축사 업역 부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으로 나름의 위로나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 제가 업계 속사정을 잘 모르면서 위로의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마는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 가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치인 것 같아 한 말씀만 덧붙여 보면,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도 결국 자기 욕구

를 절제치 못하거나, 서로 이해 못하고, 소통치 못해서 생겨났다고 하지요. 위안이 소통에서 온다면 건축의 진정한 가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젠 SNS가 활발하고, 국내뿐 만 아니라 세계에까지 연결이 가능한 시대이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꾸준히 알리고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적 보호세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박, 송 : 감사합니다.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 송호섭

개념의 건축화된 4카테고리 스케치
(우주 · 내용과 형식 · 미메시스 · 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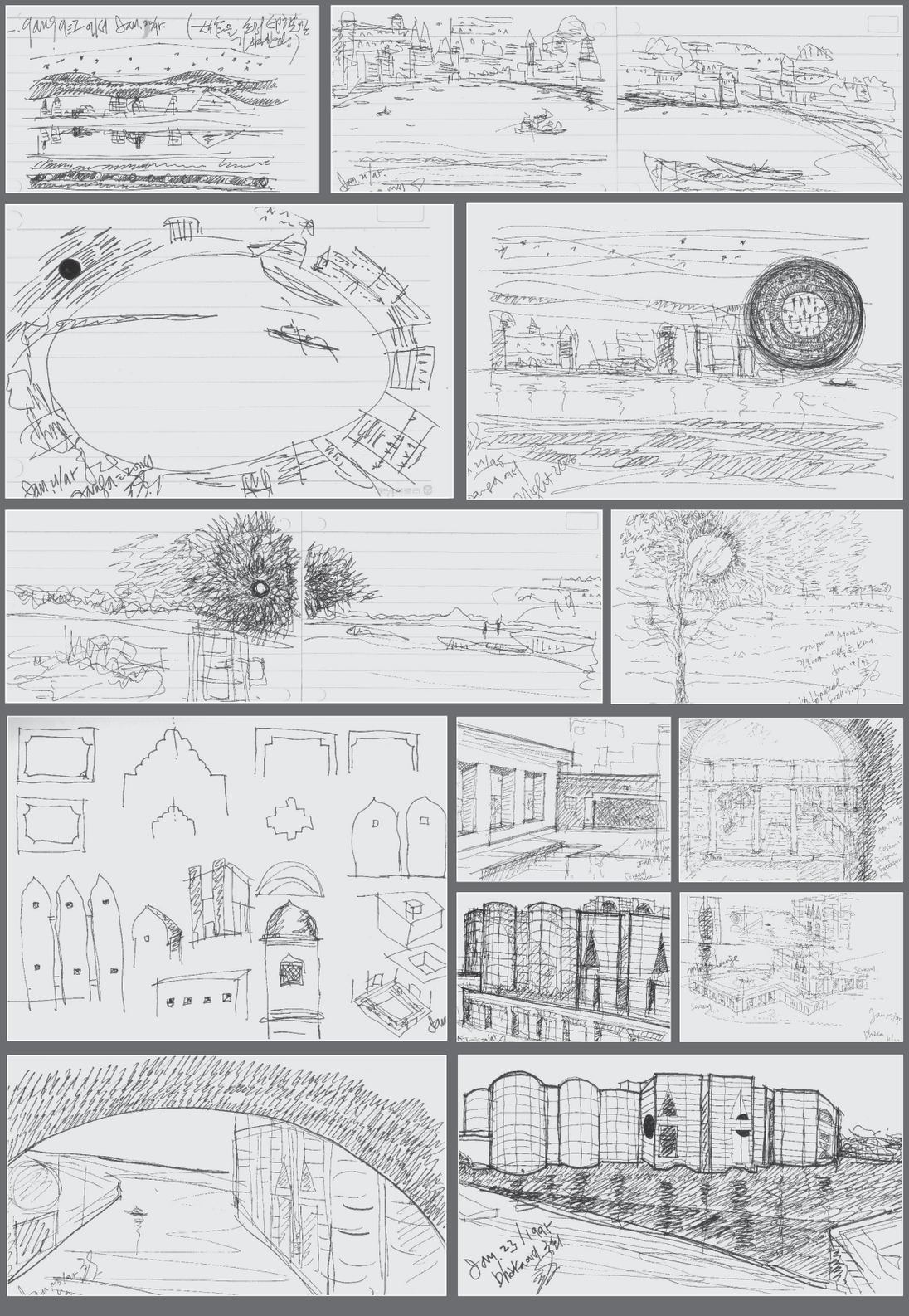
Sketch on the four categories for the Architecturalization of conception
(cosmos/ content vs. form/ mimesis/ constellation)

최동호†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마당소리
Architect – **Choi, Dong-ho, KIRA**

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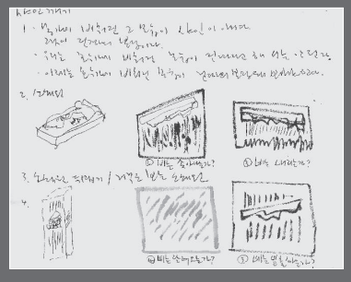
1. 태양의 얼굴
2. 공간을 품은 공간
3. 루이스칸의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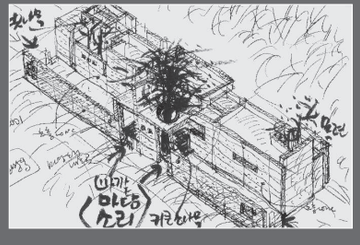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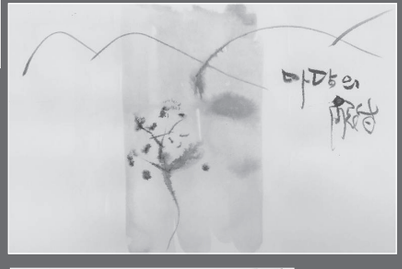
[인도–GANGA강 / 다카–방글라데쉬 국회의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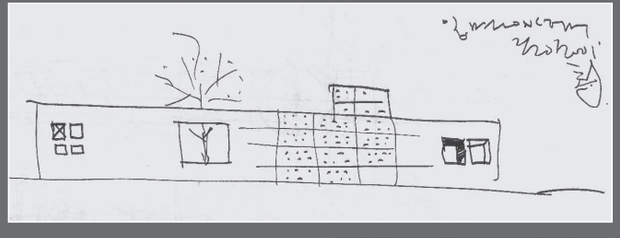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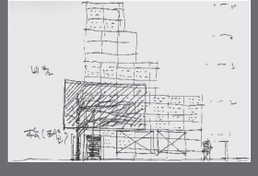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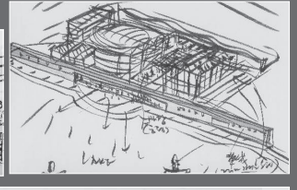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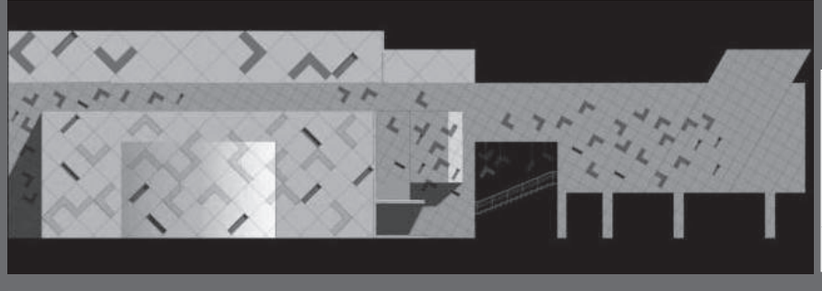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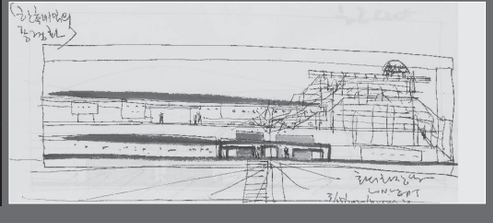
1. 칸트의 감성과 오성
2. 건축은 감성의 피안을 향하여
[함양주택(마당의 본질), H어린이도서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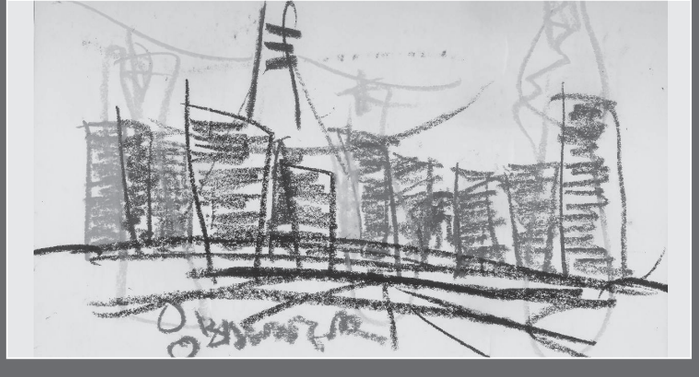
내용과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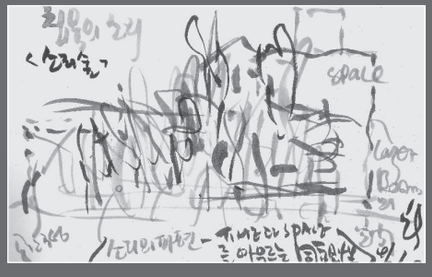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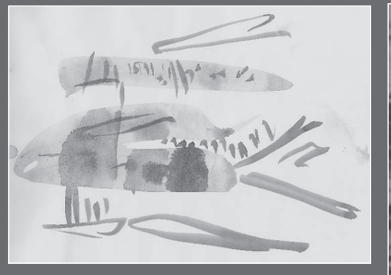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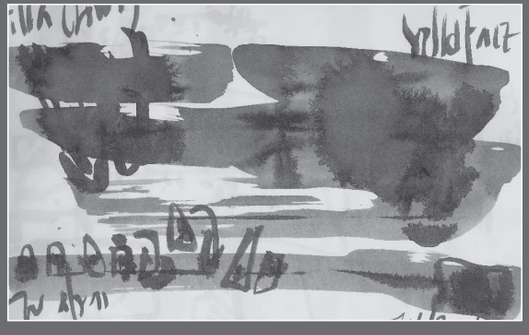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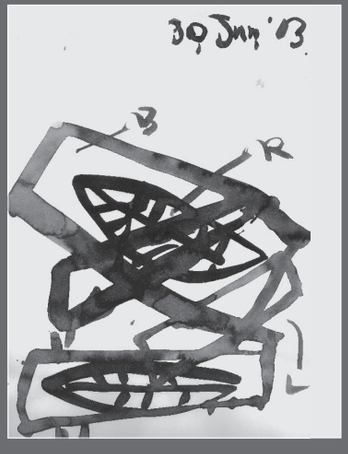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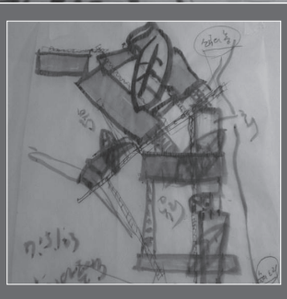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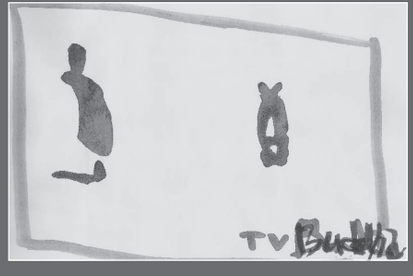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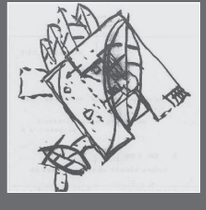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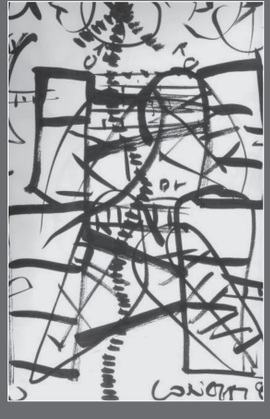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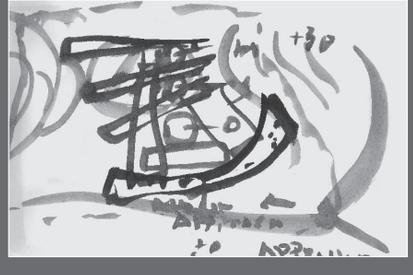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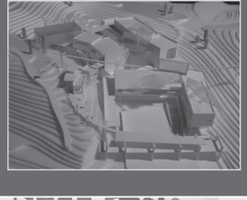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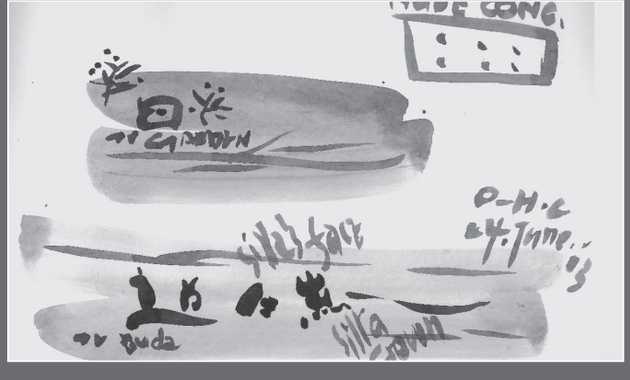
미메시스

1. 예술과 건축의 미메시스
2. 건축의 에토스(ethos)
[P미술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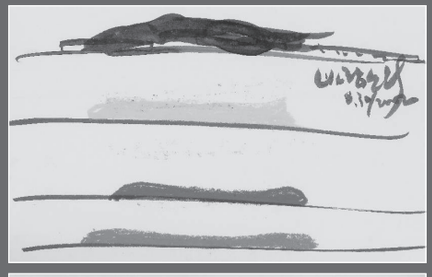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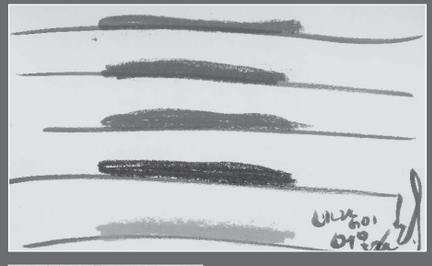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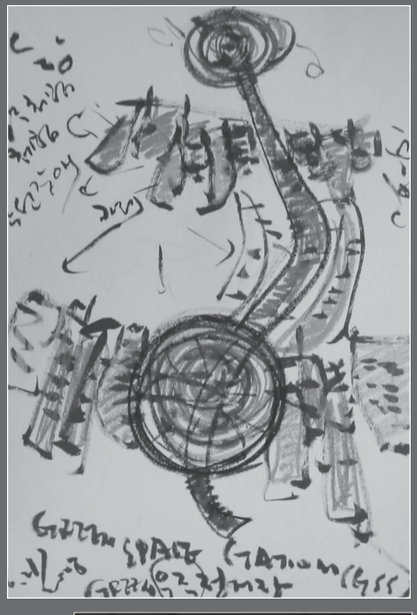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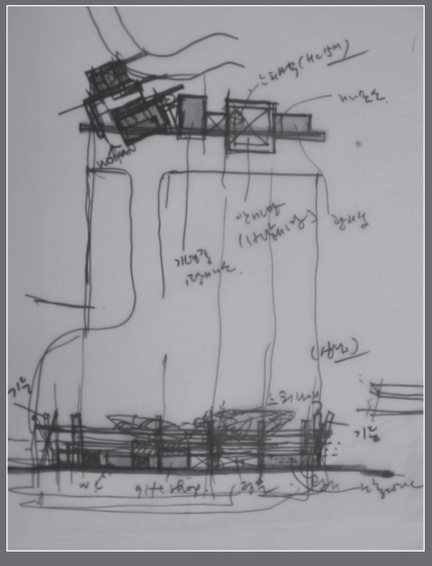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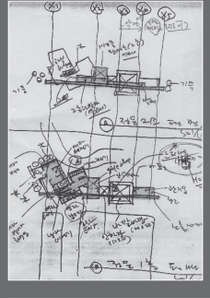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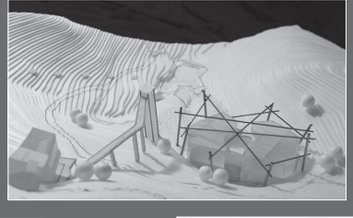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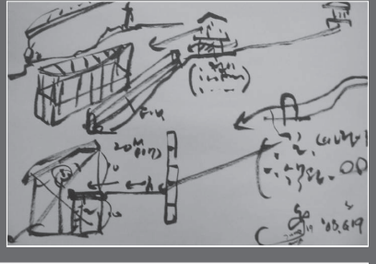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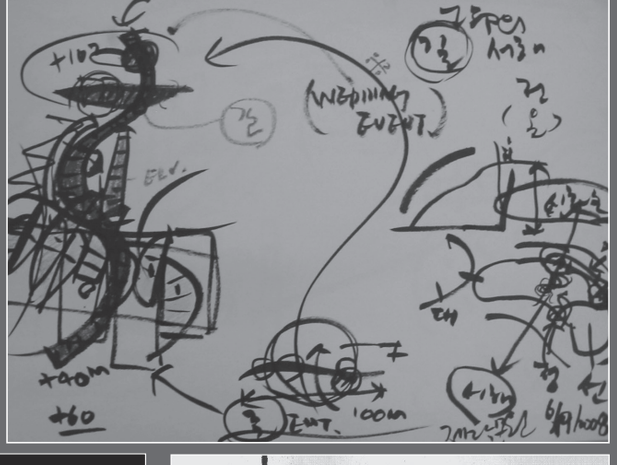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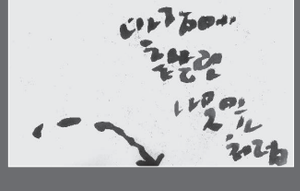
1. 우주정거장
2. 바람소리
[바다향기 수목원 온실 외 / 물향기 전시관]

별자리





法돌이

Beopdoli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필자 –
이동우
(주)태하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by Lee, Dong-woo, KIRA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공공환경디자인학을 전공하였으며, 승효상건축연구소와 정림건축, 새건축사협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공공환경디자인 전문 업체인 태하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있다.
현재 서울시 중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그리고 광교신도시 CBD특화설계 총괄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 차

1. 건축사의 성명표시권과 저작권 등록

2. '호동거실(衚衕居室)' 뉴타운 · 재건축 · 재개발의 소고(小考)

3. 건축설계분야 PQ제도 개선

4.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원고1

5.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원고2

2. '호동거실[1](衚衕居室)' 뉴타운 · 재건축 · 재개발의 소고(小考)

2. 'Small House in an Alley'
Exploratory Study of New Town,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of City

75 : 25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네 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탄 채 육지에서 1,600킬로미터 떨어진 남대서양을 표류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미뇨네트 호는 폭풍에 떠내려갔고, 구명보트에는 달랑 순무 통조림 캔 두 개뿐, 마실 물도 없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인 공리주의의 논쟁을 위와 같이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이익이라고 하는 저울로 측정한다고 보고 있다. 다수인 75%의 동의(묵시적 동의 포함)하에 소수인 25%의 식인(食人) 희생으로 생존하게 된 선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해안을 주며, 소수집단의 배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대목이다.

뉴타운 · 재개발 · 재건축과 진화하는 75%의 비율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뉴타운 · 재개발 · 재건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타운과 재개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였는데, 투기자와 개발자의 이익만 채우고, 사회적 약자인 영세 가옥주 · 상인 · 세입자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자기학습으로 알게 되면서, 상당수 지정지역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며, 주민 75%의 동의 또는 토지소유자의 50%의 동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2010.04.15 개정)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가장 큰 논점은 25%의 권리와 배려는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며, 법적인 내용이 전근대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특정집단과 연결되어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로 인가
80%
⇩
•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로 개정
75%
⇩
• 2011년 건설주택포럼 세미나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요건을 3분의 2이상으로 완화 주장
66.66%

이에 대해 어느 유명일간지 칼럼의 논객은 한국 정부에는 세 종류의 마피아가 있다고 하면서 그중 특정학회와 결탁된 토건족이 25%의 희생을 담보로 뱃속을 채우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들은 개정 1년 밖에 안 되는 사업기준을 더 완화하고자 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75년 前 조선시가지계획령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소수 · 약자에 대한 폭력성 뿐만 아니라 태생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라 가면 일제시대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연결되고,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사회전체의 파시즘화와 맞물려 군사적,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법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식민지 조선의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 하였으며, 해방이후인 1962년까지도 '조선시가지계획령'이라는 법명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마침내 1961년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 이후 장면정부가 마련한 제1차 경제개발계획 실행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으로

1)호동거실 (衚衕居室) : '호동'은 골목길을, '거실'은 사는 집을 뜻한다. 우리말로 옮기면 '골목길 안 작은 집'이 된다. 조선 후기 영조시대의 역관 출신이며, 천재 문인이었던 이언진(1740~1766)의 시집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급조되고, 법제정 당시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며 개정되었다. 일제 당시 법 제정에 앞장선 도쿄제국대학 공대교수 쵸고에이지(長鄕衛二. 식민지 조선에서 시가지계획령 마련에 많은 활동을 하였음)는 당시 법률제정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37년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령'
⇩
1962년 '조선시가지계획령' 해방이후에도 같은 명칭으로 존속
⇩
1961년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 후
제1차 경제개발계획 실현을 위하여
1962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기반으로 '도시계획법' 마련
⇩
1976년 도시계획법에서 분리 '도시재개발법' 이 됨
⇩
2002년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됨

"중세도시는 왕후귀족의 도시였다. 19세기 도시는 중산계급의 도시로서 도시계획은 중산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현대도시는 민중의 도시로서 19세기 도시계획에 시민 전체의 편익 증진, 공익의 추구라는 목적이 가미되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 될 수밖에 없다.**"
(長鄕衛二 1937)

이 법이 제국주의 사관과 파시즘화된 군사적, 국가적 사고를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며,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75년이 흐른 지금도 75%의 이익을 위하여 25%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은 많은 사회적 무리가 따르고, 뉴타운 · 재개발 · 재건축에서 늘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 사회적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개발, 결국 사회관계자본의 붕괴와 공간문화 자원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6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압축하고 있는 곳이
서울의 '호동거실'이며,
도시의 공간 문화 자원으로
서울에 분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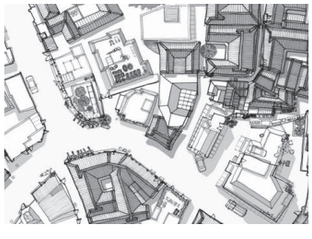
600년 도시의 공간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호동거실'(골목길 안 작은 집)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몇 년 사이 종로 1가 일원의 피막골은 재개발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75년 '호동거실'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법의 모순과 맹점을 이용한 기만이 존재한다. 건축법상 4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1975년 까지만 하여도 골목길 주택의 건축행위가 가능하였다. 기 조성된 도시의 구조를 인정하는 도시정책이었으나, 75년 갑자기 건축법상의 도로규정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기존 도시에 기준을 소급 적용하였다. 졸지에 구도심의 '호동거실'은 맹지로 되어 버리고,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낙후화를 초래하게 되고, 재개발 · 재건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기 조성된 도시에까지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은 것인가도 문제지만, 잠재적 공간 문화 자원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유럽의 주요 도시의 공간 문화 자원은 주민 삶이 묻어나는 '호동거실'이며, 이것은 도시의 문화유산이고 브랜드 가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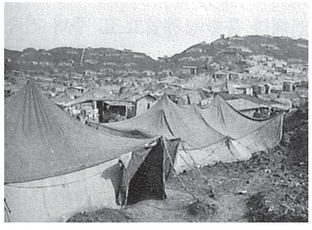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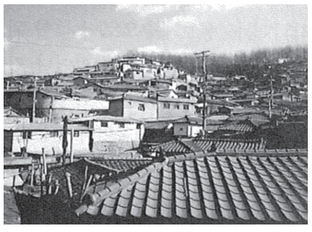
• 1962년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 1975년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한국에서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인사동길, 감고당길, 삼청동길로 이어지는 '호동거실' 즉 골목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호동거실'은 도시공간, 문화, 관광 자원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75 + 25 = 함께 공생하는 도시재생

이러한 유럽 주요 도시의 공간 문화 자원은 시간에 의한 질적 변화를 도모하면서 잘 보존하고 가꾸어 온 결과이다. 서울의 '호동거실'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을 보면 질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변화는 70년 중반을 기점으로 많은 지역이 멈추게 된다.

건축법에서의 새로운 도로 규정을 기 조성된 도시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잘못 한 것이며, 도시의 자생적 성장과 자발적 주거환경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는 도시주거의 낙후화를 진행시키며, 이를 이용한 뉴타운과 재개발을 지속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라도 기 조성되어진 역사 도시의 '호동거실'에는 현재 도로의 폭을 인정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자발적인 질적 성장을 유도하며, 도시의 소중한 공간 문화 자원인 '호동거실'과 '사회관계자본'을 보존하고 함께 공생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김수근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를 지향하며
(미국의 녹색도시와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Toward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Focused on the Green City and Sustainable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친환경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두번째 사례로 Parkmerced Vision Plan 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필자 –
정재희
현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
by Chung, Jae-hee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후 건원국제건축과 해안종합건축에서 5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M.ARCH를 마친 후 SOM을 비롯한 굴지의 건축사사무소들에서 4년 넘게 일을 하였다. Foshan Donghuali Master Plan, Treasure Island Master Plan 등의 projects로 2009 AIA Honor Award, 2009, 2009 AIA California Council Merit Award, 2009 MIPIM Future Project Award: Regeneration and Master Planning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건축사, LEED AP(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ccredited Professional)를 소지하고 있다.

목 차

1. 서론 : 친환경건축을 위한 통합설계
Introduction: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2. 사례연구
case studies
1) Treasure Island Master Plan
2) Parkmerced Vision Plan
3) Transbay Terminal Master Plan
4) Encinal Terminal Master Plan & Other cases

3. 종합
Conclusion

2. 사례연구 : Parkmerced Vision Plan

2. case studies : Parkmerced Vision Plan

인간, 소통, 그리고 지속가능성…

Parkmerced Vision Plan은 1940년대 지어진 대규모 노후 주거단지를 Pedestrian-oriented, Eco-Neighborhood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로이다. 이 주거단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대규모의 민간주거단지로서, 30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생에 대해 항상 논의의 초점이 되어왔던 프로젝트이다.

Parkmerced의 오너는 2005년 이 단지를 구입한 후 미국 최초의 탄소제로단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SOM San Francisco 오피스를 찾았다. 오너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기존 거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것이 rent control(임대가격상승제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rent control을 받아온 주민들은 rent control이 똑같이 적용되는 새로운 유닛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물론 여러가지 반발과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프로젝트 시작단계부터 공청회를 100번 이상 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교통체계 개선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근린상가, 공원 등의 오픈스페이스 등으로 나타났다. 오너는 이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개설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디자인팀에 대한 소개와 프로젝트 일정과 프리젠테이션, 회의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거쳐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재생 개념으로 삼은 것이 sustainable densification과 traffic improvement이다. Parkmerced는 1940년대 지어져 20세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노후주거단지로서 원래 차량위주로 설계되어 불필요하게 넓은 도로가 많고 단지 전체가 suburban style의 저밀도로 주민들이 걷거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3,221세대에서 8,900세대로 residential density(주거밀도)를 대폭 증가시키고 주거타입을 저층 가든아파트와 중층 타워형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그리고 보행거리 내에 새로운 social core를 조성하여 거주자들이 걸어서 근린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게 고려하였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전철노선을 단지 내 social core를 통과하도록 제안하여 new public transit facilities를 제공한 것이 이 단지의 활성화 및 원활한 대중교통 접근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탄소저감의 방법으로, wind turbine이나 photovoltaic cell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install하는 등의 infrastructure를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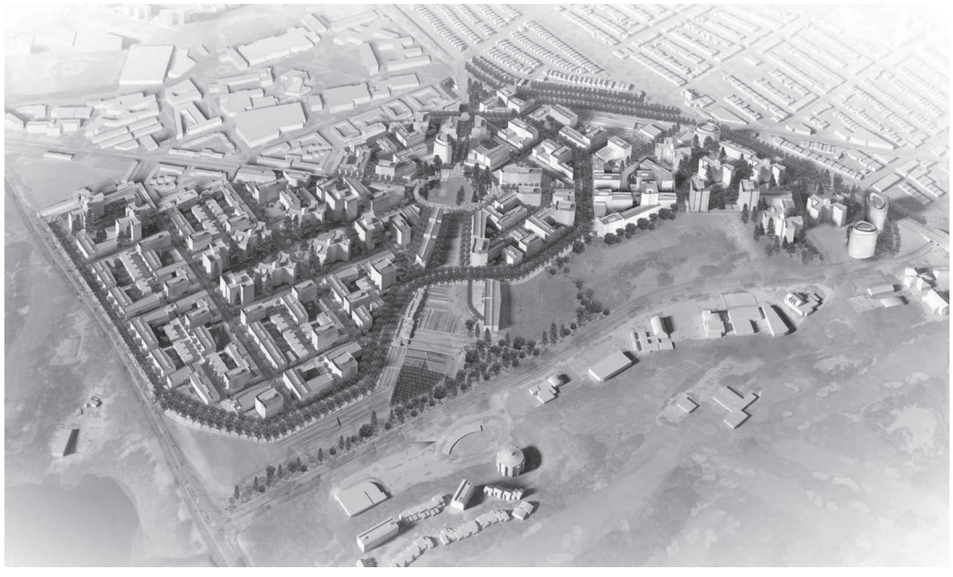
Parkmerced의 위치 및 현재 모습

Parkmerced into Future

Goals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주거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과 다양하면서도 활력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운 전략(Strategies)과 디자인 원칙(Design Principles)은 다음과 같다.



Strategies

● bio-corridor + neighborhood access

대지를 관통하는 Gonzalez Drive를 boulevard로 변형하여 주변커뮤니티와 연계시키는 spine으로 조성한다

● hedgerows + primary link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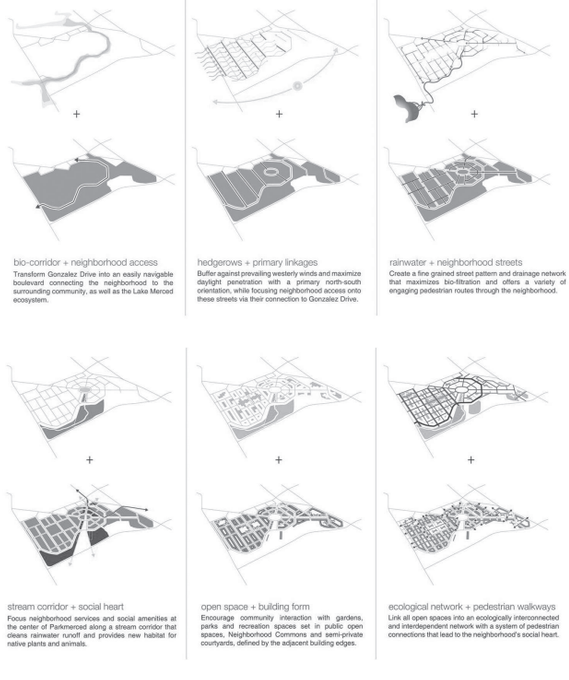
지배적인 서풍을 차단하고 태양광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남북방향의 그리드를 계획하고 Gonzalez Drive와 연결한다.

● rainwater + neighborhood streets

다양한 보행루트를 제공하는 fine-grained street pattern과 Bio-filtration을 최대화하는 배수시스템을 형성한다.

● stream corridor + social heart

우수처리와 자연 동식물을 위한 새로운 서시지를 제공하는 stream corridor를 따라 근린상가와 주민이용시설을 집중시킨다.



● open space + building form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정원, 공원,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거주자들의 상호작용을 장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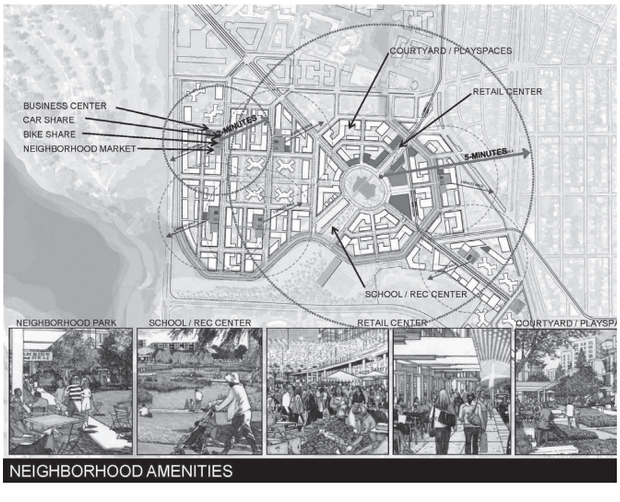
● ecological network +pedestrian walkways

모든 오픈스페이스를 보행로와 연결하여 생태적인 네트워크와 보행네트워크의 상호결합을 꾀한다.

Princi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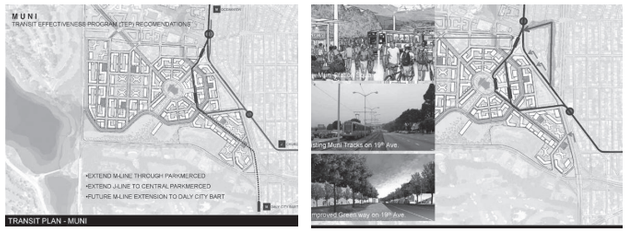
● socially vibrant neighborhood through sustainable dens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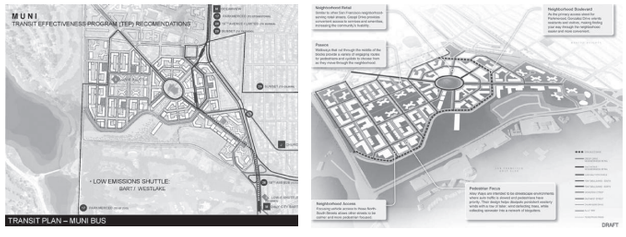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현재 3,221세대에서 8,900세대로 density를 3배 이상 대폭 높히고 주거타입을 townhomes, walk-ups, mid-rise, 그리고 taller buildings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social core를 조성하여 보행중심의 단지 계획을 하였다. 편리한 근린어메니티시설, 다영한 주거유형, 활발한 외부 엑티비티 등은 socially vibrant neighborhood를 조성할 것이다.



● green mo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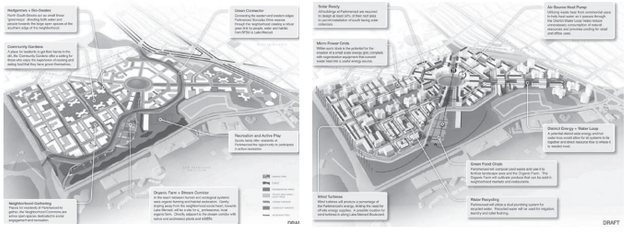
Light rail, bus, shuttle 등 다양한 대중교통 옵션들에 대한 편리한 접근과 결합된 집중된 성장은 보행, 자전거, 그리고 light rail 등의 green mobility를 장려할 것이다.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상전철인 MUNI선을 단지내로 연장시켜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19번가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새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다. 이것이 이 단지의 활성화 및 원활한 대중교통 접근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 interconnected urban and natural systems

도시와 자연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생네트워크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neighborhood를 형성할 것이다.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된 오픈스페이스, 가로, 빌딩 등은 안락하고 심미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green infrastructure 계획을 통해 에너지 소비 62% 감소, 물 소비 42% 감소, 오수 43%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Integrated and interactive design process

Parkmerced Vision Plan은 2006년 후반부터 건축주, 도시설계전문가, 건축사, 각종 컨설턴트들이 거주자, 이웃, 그리고 그밖의 결정권자들과 100회 이상의 회의를 가지고 user survey도 실시하였다. 이렇게 재생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모든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Parkmerced의 바람직한 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설계과정을 통해 가치있는 input과 feedback을 얻게 되고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설계를 지향하였다. SOM이 전체 마스터플랜이나 건축설계를 이끌어가지만 다른 회사들도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SOM 디자인 파트너인 Hartman은 "다수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이다. 우리는 neighborhood에게 수준높은 authenticity를 제공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SOM은 교통,수자원, 환경, 조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전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AECOM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통엔지니어링회사로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 SOM : urban design & architectural design
- Adavant Consulting : Transportation Planning and Engineering
- Steer Davies Gleave, International Transport Planning and Consulting BCV : residential design
- Tom Leader Studio, Landscape Design
- Hydroconsult Engineers, Inc., Water Resource and Water Quality Engineering
- Carollo Engineers, I ntegrated Water Resources Group
- Habitat Potential, Consulting Ecology and Habitat Stewardship

Conclusion

지금까지 Parkmerced Vision Plan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설계 사례를 살펴보았다. Parkmerced Vision Plan은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대규모인 car-oriented community를 재생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모델로 제안함으로써 2011 Chicago Athenaeum Green Good Design Award, 2010 AIA California Council Merit Award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arkmerced Vision Plan은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의 community outreach를 통해 전문가와 거주자들 간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가장 큰 이슈인 rent control 관련 기존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조경, 교통계획전문가, 수자원관련 엔지니어링 및 기타 영역의 전문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 이용자 즉,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소통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나 기타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때 이러한 통합적이고 상호교류적인 설계프로세스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 최적설계

Sustainable Optimum Design by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Efficiency

우리가 과거 인식해온 지구 온난화는 단순한 자연의 섭리와 우발적 기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등한시 해 왔으나, 오늘날의 온난화는 계속되는 과학자들과 학자들에 의한 기상과 기후변화의 지속적 연구 결과와 더욱 표면화 되며 심각해지고 있는 자연 현상 등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재산은 물론이요 생명의 위협을 넘어 하나뿐인 지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구 위험을 알리는 경종은 대단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우리에 의한 일련의 건축행위가 미래에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들게 한다.
이와 같은 지구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의 해결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에 공동주택의 전생 애 주기에 관한 환경부하의 저감과 이를 위해 수반되는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최적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필자 –
우지환
(주)엑스퍼트벤쳐 건축사사무소
by Woo, Jee-hwan, KIRA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1992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법인 설립 이후 건축사로서 현재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주)엑스퍼트벤쳐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같은 대학원에서 건축환경공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정부지정 법원감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초고층복합화사업 심의위원, 대한민국법원행정처 법원전문심리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저작권T/F 위원, 서울시 성동구청 도시분쟁조정위원, 부천시청 외부전문가 감사위원,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겸임 연구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목 차

1. 전과정 평가와 최적설계 시스템
Life Cycle Assesment & Optimum Design System

2. 공동주택 전생애 환경부하 평가 시스템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System of Apartment House Life Cycle

3. 친환경 건축물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the Program for Sustainable Building Optimum Design

4. 환경부하 및 경제성의 친환경 최적설계
Sustainable Optimum Design of Environmental & Economical Efficient

4. 환경부하 및 경제성의 친환경 최적설계

4. Sustainable Optimum Design of Environmental & Economical Efficient

서론

본 연재를 통하여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설계에 관한 주요 내용은 첫째, 전과정 평가와 최적설계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전과정 평가의 배경 및 전망 그리고 최적설계 시스템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둘째, 공동주택 전생애 환경부하 평가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국제적인 동향과 각 건설 단계별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셋째, 친환경 건축물 최적설계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최적설계 시스템에 대한 기능의 이해와 최적화 알고리즘, 친환경건축 요소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연재의 마지막으로 환경부하 및 경제성의 친환경 최적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부하에 따른 필수적 사항인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의 활용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초기 투자비율을 고려한 비용편익

경제성 평가는 친환경 건축요소 기술의 적용으로 초기 투자비율 증감률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초기 투자에 대한 목표대비 증가 또는 감소 비율은 프로그램에 의한 친환경 건축요소 기술의 선별 적용을 통해 결정된다. 경제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내부의 주요 항목은 건축물의 수명 연한과 친환경 건축요소 기술이다. 건축개요의 입력 시 기본적인 가정 내용인 건축물의 수명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는 내구연한을 6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기준내용 연수를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건축물의 수명은 10년에서 100년까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적 수명 연한은 물론 향후 장수명 기술을 통한 건축물의 수명 연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친환경 건축요소 기술 항목은 설정된 목표의 최적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결정되며, 이때 결정된 요소기술의 항목별 물량 절감량에 따른 재료비의 감소와 요소기술의 항목별 초기 투자비율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가 진행되며 이때 초기 투자비율을 통한 투자비용의 경우 건축물의 준공 이후 경과 연수 대비 비용편익 시점의 확인이 가능하다.

친환경건축 요소기술의 연구 개발

친환경건축 요소기술은 건설과 관련한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어 건설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방안, 폐기물 저감을 위한 건축 PC 공법 등 폐기물에 대한 기술과 건축물의 대형화 초고층화로 인한 현장 해체공법의 개선방안, 골재 부족으로 인한 순환골재의 이용,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유지관리를 통한 장수명 기술 등 각종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 주요 도시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설이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기술을 통해 건립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초고층 관련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국내 초고층 사업의 수행을 통해 축적된 초고층 건축의 요소기술에 대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에 적용된 요소기술에 이어 향후 적용될 요소기술들은 일반건축물은 물론 초고층건축물에 해당하는 요소기술을 포함하고 단지 학술적 차원의 연구로서 그 생명력을 다하는 기술을 배제하고, 보다 진보적이며 공사 현장의 현실적 접목을 통해 실무 차원의 현장 반영이 가능한 기술들로 구성하여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설계 평가 시 기초적인 기술로서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요소 기술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의 활용

평가 대상 및 목표 설정

개발된 친환경 건축물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의 활용은 최적설계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인 일반공동주택 또는 초고층공동주택을 선정하고 평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의 설계목표를 부여한다. 각각의 설계목표는 표준공동주택 대비 이산화탄소 절감률(%)과 표준공동주택 대비 초기투자 증감률(%) 2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프로그램 내부에서 설정된 목표인 이산화탄소 감소율을 확정하고 초기투자 증감률의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와 초기투자 증감률을 확정하고 이산화탄소 절감률의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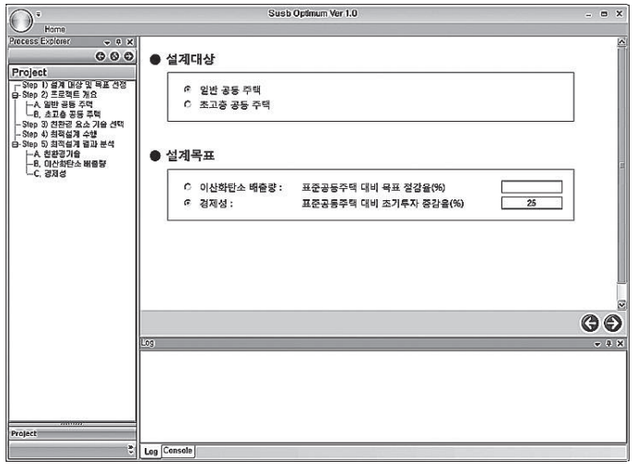


그림 1. 설계대상 및 목표설정

조건설정 방법

공동주택의 최적설계 평가를 위하여 조건 설정을 위한 Project 개요의 입력내용은 건축개요의 경우 사업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용도, 동별 구분, 건축물의 구조, 지상층수, 공동주택의 주호조합 형태, 단위세대 면적 등이 있다. 면적개요의 경우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을 입력하면 지상 연면적과 건폐율, 용적률, 총 연면적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평가개요의 입력은 평가일시, 평가자, 평가단계, 건축물의 수명 등의 입력과 기타 에너지원별 단가와 자재의 운송거리, 폐기물처리의 거리 및 재활용율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내용을 공사의 조건 및 현장에 적합하도록 입력할 수 있다.

그림 2. Project 개요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의 실행

최적설계 평가는 대상 공동주택의 선정과 각각의 설계목표의 부여와 함께 Project 개요가 입력되면 최적해 도출을 위한 최적설계가 진행된다. 이때 최적해 도출변수로 친환경건축 요소기술의 선별 적용과 함께 프로그램에 탑재된 최적해 알고리즘인 EA(Evolutionary Algorithm)에 의해 최적설계가 진행되어 전 생애 주기 동안의 환경부하 및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때 프로그램의 실행은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각 단계별 제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CAE Tool에 탑재하고 PIDO 툴에 의한 Design Tool인 PIAnO의 적용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Susb Optimum ver. 1.0)과 상호 연동형식으로 실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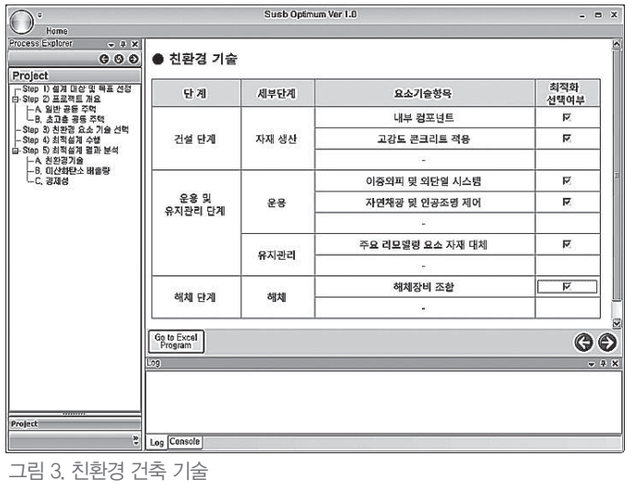


그림 3. 친환경 건축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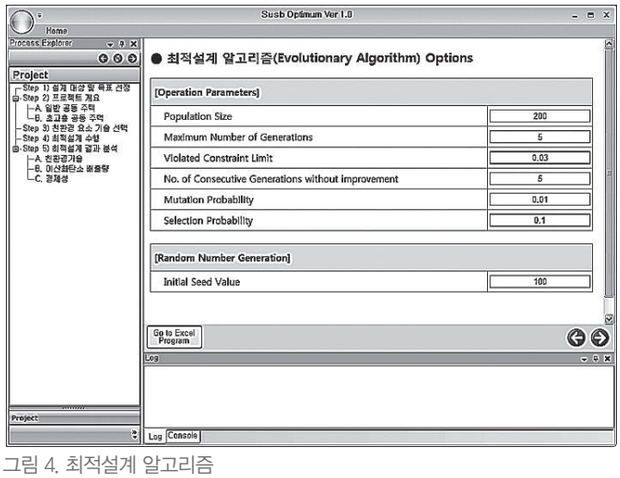


그림 4. 최적설계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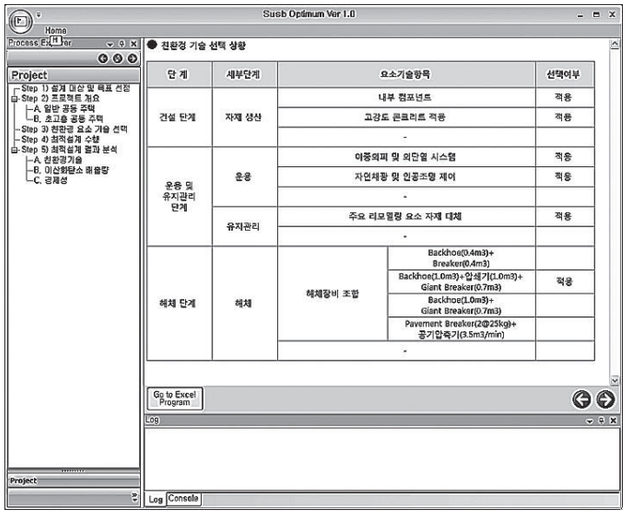


그림 5. 친환경건축 기술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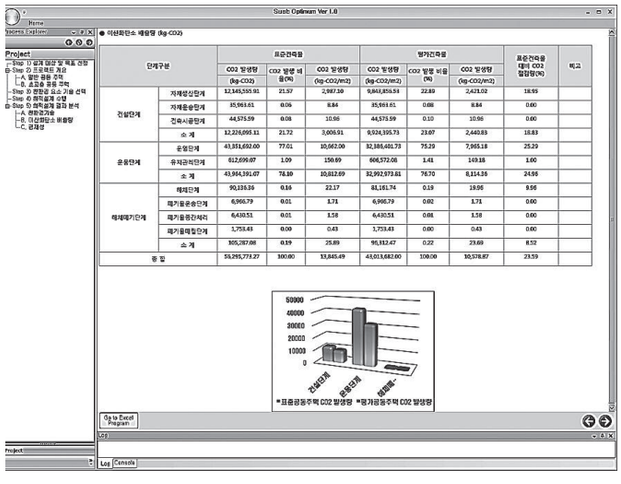


그림 6. 이산화탄소 발생량

아울러 최적설계 분석결과, 초기에 부여된 설계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대상 및 목표 설정 시로 돌아가 설계목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에서 최적해 도출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 요소기술의 선별 적용을 통해 설계목표의 수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가단계와 관계없이 목표 설정이 자유로워 프로그램의 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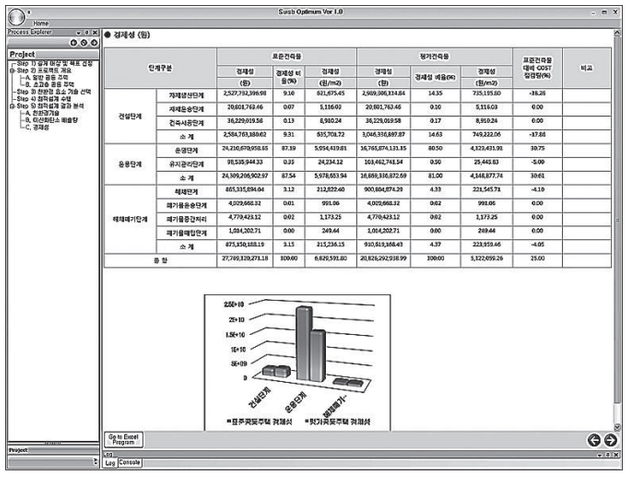


그림 7. 초기투자 증감률

최적설계 결과 분석

전생애 주기 동안인 건설단계, 운용단계, 해체 및 폐기단계에 대하여 평가된 결과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경우 각 단계별로 표준공동주택 및 평가공동주택에 대한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목표 대비 절감량으로 나타나며, 초기투자 증감율의 경우 각 단계별로 표준공동주택 및 평가공동주택에 대한 초기투자 비용과 목표 대비 증감률로 나타난다.

환경부하 및 경제성의 친환경 최적설계

환경부하를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내 대부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정량적 평가가 용이한 운용단계의 에너지소비량만을 위주로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방법과는 달리 건축물의 전생애 주기인 설계단계, 건설단계, 운용 및 유지관리단계, 해체 및 폐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 최적설계 평가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하 평가 대상

설계단계에서 환경부하의 평가를 위한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 국가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그린홈(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평가기준주택을 일반공동주택의 모델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국가 기준(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에 의한 초고층 건축물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초고층공동주택의 모델로 선정하였다.

단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계화

건축물의 전생애 주기에 대한 환경부하의 경우 건설단계의 주요 환경부하 인자의 분석을 통해 주요 건설자재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대표자재 171가지(부속자재 포함)를 선정하고 평가를 위해 일반공동주택 및 초고층공동주택의 건축개요에 따른 최적해 도출변수 134개(일반공동주택 90개, 초고층공동주택 44개)를 고려한 대표자재 물량 총합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 물량산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자재생산 단계의 경우 자동 물량산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산출된 대표자재 물량에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적용하고 운송단계의 경우 물량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적용하며, 현장 시공단계의 경우 각 지구별 예산내역서 및 일위대가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산출할 수 있다. 이때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종 운송장비 등의 자료와 혼합분석 방식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또한 운용 및 유지관리 단계의 경우 과거 연간 에너지소비량만을 위주로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지표(EPI) 점수와 건축물의 수명 연한을 고려한 건물의 에너지 저감량과 방출저감에 대한 상관관계의 분석결과와 건축물의 장기수선 계획 및 수선율을 고려한 분석 자료를 적용하고, 해체 및 폐기단계의 경우 해체장비 조합 방식에 의한 장비 선정을 통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산출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최적해 도출을 위한 친환경건축 요소기술

각 단계별 환경부하의 평가를 통해 기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산출 이후 표준주택 대비 환경부하 저감 및 초기투자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 초기에 설정된 최적설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해를 평가 프로그램에 의해 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적해 도출을 위한 기술적 내용이 친환경건축 요소기술이며 친환경건축 요소기술은 전생애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항목 및 주요 자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이로써 전생애 주기의 각 단계별 최적설계를 위한 최적해의 도출을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기준한 총 도출변수는 모두 365개이며 이를 토대로 최적설계 평가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최적설계 평가프로그램 개발

최적설계 평가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공동주택 모델의 선정과 주요 환경부하 인자의 분석을 통한 대표자재 자동 물량산출 시스템, 각 단계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산출하기 위한 제반 기술적인 사항이 반영된 분석자료, 표준주택 대비 환경부하 저감 및 초기투자 증감율의 최적해 평가를 위한 친환경 건축요소 기술 등 전생애 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차원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목표 대비 환경부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은 분산환경(Distributed Environment)에서 다분야간 해석의 연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설계 방법론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Process Integration and Design Optimization : PIDO)인 PIAnO(Process Integration, Automation and Optimization)를 최적설계를 위한 도구로 적용하여 자연의 유전적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적자생존원리의 이용과 염색체의 진화과정을 모방한 방법의 진화 알고리즘(Evolutionary Algorithm)에 기반한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Susb Optimum ver. 1.0)을 개발하였다.

친환경 최적설계의 효과

개발된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Susb Optimum ver. 1.0)을 이용하여 전생애 주기에 대한 표준공동주택에 대비 평가공동주택의 사례 평가 결과 이산화탄소는 목표 대비 설정한 이산화탄소 감소량에 매우 근접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초기투자 비율에 대한 결과도 투자비율의 감소가 가능한 효과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과 같은 제안을 통해 개발된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전생애 친환경 최적설계 평가 시스템은 국내에서 준공된 모든 공동주택에서 이미 발생된 전체 환경부하량의 확인이 가능하며, 향후 건립될 공동주택의 환경부하량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초기 단계인 설계단계(건설기획 및 기본설계단계)는 물론 사업 시행단계 중 어떠한 단계에서도 평가가 가능하며, 작게는 개별 동 단위 평가에서 크게는 단지 단위에 이르는 평가 또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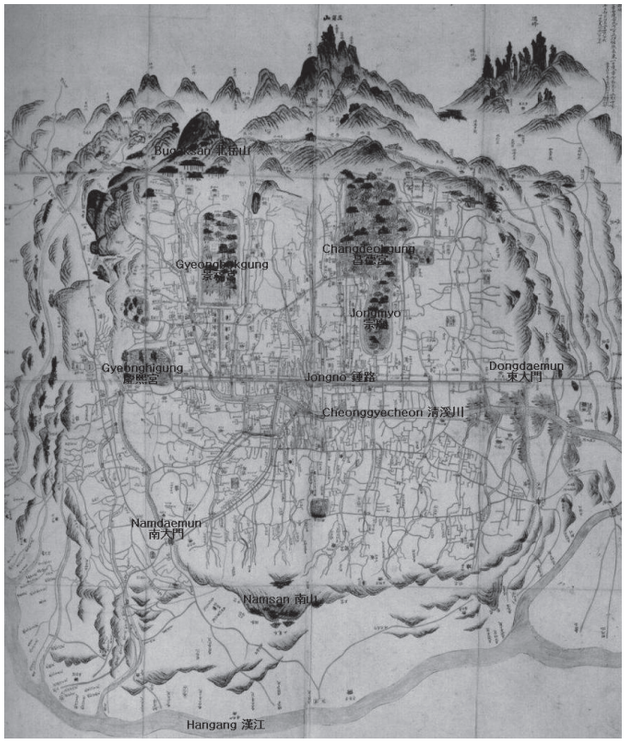
아울러 정량적인 환경부하량 및 초기투자 비율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사전 확인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내 공동주택의 건립 시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국내 건설산업 중 공동주택의 건립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감안 할 때 건축업계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감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대명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함께 후세를 위한 지속 가능함에 좀 더 신중한 자세와 태도가 절실한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당당한 서울의 성문

Magnificent Gates of Seoul

현대적이고 활기찬 한국의 수도 서울은 내사산과 외사산 등 8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한강이 그 중간을 가로 질러 흐르고 있다. 서울의 역사는 기원전 18세기 한반도 삼국의 하나인 백제의 건국과 함께 시작되었다. 1392년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서울을 새 왕조의 도읍으로 정한 이후 대한민국의 수도로 계속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10대 금융도시의 하나이자 상업의 중심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로 발전하였다.



서울의성벽과 8개의 성문(사진: KTO, NY제공)

태조 이성계가 서울을 수도로 결정한 이후 첫 번째 우선순위는 새로운 나라의 수도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위하는 보안문제였다. 태조는 그 해결책으로 서울을 둘러싸는 성벽을 쌓았으며 성벽에는 동서남북 각 방위에 따라 4개의 큰 성문을 만들었으며 다시 그 사이 사이에 4개의 작은 성문을 두어 모두 여덟 개의 성문을 건립하였다. 네 개의 큰 성문은 주로 교역에 사용되었고 4개의 작은 성문은 일반인, 상인, 군인, 방문자의 출입과 작은 물건 등의 왕래에 사용되었다. 8개의 성문은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도 신라 시대로부터 시작된 지정학적 믿음인 풍수지리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문은 정치적으로나 실용적인 면에서 글자 그대로 도시의 생명줄이었으며, 수도의 방어뿐 아니라 교육과 활기찬 교역의 중심지인 수도로서의 위상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대도시 서울은 구도심을 둘러쌓았던 연장 약 18.5km의 성벽을 벗어나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였다. 오늘날 성벽은 그 존재가

필자 : 짐 앳킨스
by, James B. Atkins(FAIA, FKIA)

짐 앳킨스 씨는 달라스 거주 건축사이며 건축에 관한 글을 쓴다. 달라스에 본부를 둔 세계적 설계회사 HKS의 부사장이었으며 현재는 독립하여 Atkins Consulting Solution이라는 컨설팅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미국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의 펠로우이며, 앳킨스 씨의 부인 김숙경 박사는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사람'이다.

번역 : 조성중 / (주)아이피 건축사사무소
by, Chough, Seong-jung

약력
- UIA이사 (2002–2008)
- UIA 건축교육 위원장 (2008–2011)
- 현 한국건축교육인증원 이사

희미하고 다만 남대문과 동대문만이 관광책자에 올라 있을 뿐이며 나머지 6개 성문 중 4개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지만 동대문과 남대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자칭 서울의 최고 관광 안내인이라는 택시 운전사조차도 이 성문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지도 모를 뿐 아니라 그 위치에 대하여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는 지금부터 이 당당한 서울의 성문들이 얼마나 실질적이며 매우 흥미로운 건축인가, 이 성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성문을 건립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성문을 어떻게 사용 하였는가 등에 대하여 기술하려 한다. 아직까지 현존하는 성문들을 차례로 찾아보고 건축적인 면과 아울러 이 성문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려 한다. 일부 성문은 그 위치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 들을 찾아가기 위하여서는 약간의 연구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였다.

서울의 성벽

기록에 보면 태조 이성계는 서울을 수도로 정하기 이전에 이미 이곳에 성을 쌓을 계획을 세웠다. 태조는 천도하기 전인 1394년 2월 29일 이미 "성벽은 포악한 적으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나라의 울타리이다. 그러므로 서울 성벽을 반드시 축조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성벽을 계획하는데 내사산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풍수지리는 빠질 수 없었다. 성벽은 자연의 지형을 따라 서북쪽의 인왕산, 북쪽의 북악산, 동북쪽의 낙산, 그리고 남쪽의 남산 등 내사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다. 성벽의 총 연장은 18.5km를 조금 넘을 뿐이며 오늘날 엄청나게 팽창한 서울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아주 짧은 길이다. 성벽의 두께는 기저 부분이 약 6미터 정도이고 높이는 3 내지 7미터이다. 성벽은 98개 구역으로 나뉘어 건조되었으며 1개 구역은 약 600보 정도의 거리이다. 각 구역에는 천자문을 따라 번호를 붙여 놓았다.

북대문 동쪽의 성벽 (사진: 저자)

성곽은 1398년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1422년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갔으며 1899년 서울의 근대화와 함께 전차 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성곽의 일부분이 헐렸다. 당시 서울을 방문하는 중요인사들은 보통 남대문을 통과하였지만 1907년 일본의 조선반도의 식민지화를 위한 강제 합병 직전 서울을 방문한 일본의 요시히로 황태자는 남대문 밑을 지나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은 성문 양쪽의 성벽을 헐어내고 입성하였다.

1975년에는 창의문과 숙정문 사이의 삼청부분 성곽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시작되었다. 복원작업은 준공 예정인 2014년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성곽의 총 연장 약 18.5km 중 13.4km 는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고 나머지 5.1km는 구름다리로 혹은 지표면에 표시를 함으로서 모두 연결될 것이다.

1883~1884년에 걸쳐 한국을 여행한 퍼시발 로웰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1886년에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서울성벽을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묘사하였다.

서울의 성곽은 그 자체가 매우 인상적이지만 성벽이 놓인 위치와 지형을 고려하면 세상에 그 짝을 찾기가 어렵다. 험난한 지형에 성벽을 축조함에 있어 그 어려움은 무시되었고 높이는 안중에도 없었다.

성의 안 밖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바라보면 이 성곽은 가장 놀랄 만큼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는 가장 놀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다. 남대문에서 시작한 성곽은 서서히 산 꼭대기를 향하여 기어 올라가는가 하면 불규칙한 산 정상의 지형을 따라 살짝 가라앉다가 다시 솟아오른다.

어떤 순간에는 가까이 있는 산자락에 가려 성곽이 사라지는가 하면 어는 순간엔가 다시 더 높은 산 능선을 따라 눈앞에 나타난다. 성곽은 정점에서 더 올라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정상의 협곡을 향하여 내려 와서 동북쪽 성문과 이어지는가 하면 닭벼슬 모양의 정점을 향하여 다시 숨 가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성벽은 여기서 다시 산의 안 밖으로 구비 구비 돌아가며 산과 성벽이 하나로 될 때까지 숨었는가 하면 또 다시 나타나곤 한다.

화재로 소실되기 전 남대문 모습 (사진: KTO, NY 제공)

성곽은 마치 거대한 똬리를 틀고 나른하게 졸고 있는 거대한 구렁이 같이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정상으로 치솟아 올라가는가 하면 더 올라 갈 수 없는 계곡에서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내려온다.

오늘날, 서울은 끝없이 퍼져나가 옛성곽을 자취도 남기지 않고 집어 삼킨 것 같이 보이지만 구도심의 흔적을 따라 조심스럽게 관찰하면 이곳저곳에 성곽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소실되었던 성곽의 일부분이 최근에 복원되고 수리되면서 요사이는 더 많은 성곽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몇 개의 성문은 아직도 성벽에 연결되어 있어 그 본래의 기능을 알아 볼 수 있다.

경이적인 토목기술과 98일 동안의 축조공사

태조가 조선의 안녕과 방위를 위하여 도성 주위에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나서, 측량을 하고, 계획을 하며, 이어서 축성공사를 하는 과정은 참으로 볼 만 하였을 것이다. 연인원 200,000명의 일꾼을 동원하고 이 인부들이 채석 하고, 운반하고, 그 긴 성을 쌓도록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며 오늘날에는 흉내도 내지 못할 일이다.

8개의 성문의 설계와 공사는 축성과 동시에 병행되었다. 일부 성문이 매우 장식적이고 정교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사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당초 아주 짧은 기간에 공사하였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부 성문은 얼마 되지 않아 재축되었다. 그러나 남대문은 지난 2008년 방화로 전소될 때까지 600년 동안 계속 그 원형을 보존하여 왔으며 북서쪽의 북소문, 혹은 창의문은 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 왔다. 300년이라는 세월은 미국의 독립선언 보다 35년이 더 긴 세월이다.

서울 성벽은 성벽 자체도 매우 인상적이지만 우리를 더욱 흥분하게 하는 것은 성문이다: 처음에는 그 장려한 건축 때문에 놀라게 되고 그리고는 그 기원과 역사에 다시 놀라게 된다. 이 성문들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발자취이며 옛 서울의 영구군사시설의 형태와 기능이 잘 조화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 성문들은 긍지에 가득 찬 통치자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구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그 기능과 용도는 매우 능률적이었고 또 효과적이었다.

서울의 성문

서울의 성문들은 각각 2개씩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문의 크기와 위치를 나타내는 설명적인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성문의 유교적인 가치관과 품격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설명적인 이름을 앞에 적고 가치관에 따른 이름을 뒤에 적기로 한다.

남대문(南大門) 혹은 예를 숭상한다는 뜻의 숭례문(崇禮門)

남대문 공사는 1365년에 시작되어 1398년에 준공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외국의 방문자는 누구나 이 문을 통과 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남대문 근처에 있는 남대문 시장은 1400년대에 처음 열렸으며 6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도 성시를 이루고 있다. 일반 상점들은 낮 시간에만 문을 열지만 밤에는 노점상들이 가게를 열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장사를 한다.

이 성문은 1497년에 대 수선을 하였고 1961년에서 1963년까지 완전 해체보수를 하였다. 이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을 준 건축가 조성중은 대학생 때 남대문 보수공사에 제도사로 참여하였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복원공사는 상부구조는 물론 하부 석축 구조물과 기초까지 전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복원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내가 맡았던 일은 성문의 기단을 이루고 있는 돌 하나하나의 모양과 위치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해체 공사 중에 남대문이 1497년에 대대적으로 수리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어 모두가 흥분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남대문은 6세기에 걸친 오랜 세월을 견디는 동안 수많은 전란을 겪었다. 성문에 연결된 성벽은 1910년 일제 때 강제로 집행된 도시기본시설 확충 계획의 일환인 도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헐려 나갔다. 일본인들은 그 성문의 밑을 통과함으로써 성문이나 조선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남대문과 연결되는 성벽은 헐려 나간 채 성문만 외따로 큰길의 한 복판에 서 있다.

남대문 복원공사 현장 (사진: 저자)

남대문은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로 대한민국 국보 제 1호로 지정되었으며 다포식으로 지어진 성문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주심포식은 기둥이 있는 곳에만 지붕을 지탱하는 공포가 있는 데 비하여 다포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공포가 여러 개 있는 형식이다.

남대문은 한국의 상징으로 성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2008년 방화에 의하여 전소되었다. 현재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준공예정이다.

동대문(東大門)

동대문의 다른 이름은 인(仁, 자비심)이 흥하는 문이라는 뜻의 흥인지문(興仁之門)이다. 이 성문은 1396년 보강되었고 1453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되었으며 1869년에는 원래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재축되었다. 다른 성문과는 달리 동대문 주위에는 반원형의 방어벽 있다. 동대문은 그 주위의 시장 때문에 항상 분주하였으며 동대문 시장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가장 큰 성문인 남대문과 동대문에 두 개의 커다란 시장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내어다 본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장사를 위한 물품은 모두 성 밖에서 반입되었으므로 성문의 바로 안쪽에 시장을 배치하여 도시 내부의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대문 전경 (사진: 저자)

화강석으로 된 기단의 가운데에는 아치, 혹은 홍예문 형태로 된 개구부가 있다. 기단의 상부에는 넓이 5칸, 깊이 2칸 규모의 2층 목구조가 올라 앉아 있다. 지붕은 우진각 (모듬지붕) 형식이다. 장식은 매우 세밀하고 기둥 위의 혀 모양의 장식물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형태다. 주위의 벽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헐렸으나, 길 건너 북쪽의 성벽은 아직도 볼 수 있다.

서대문(西大門), 혹은 동의문(敦義門, 의를 두텁게 하는 문)

서대문은 1396년에 건축되었고 1711년에 재축되었다. 중국의 사신이나 평양 혹은 의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 하게 된다. 1895년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명성왕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이 통과한 성문도 이 성문이었다. 일본인들은 1915년 이문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 성문의 지붕에서 나온 목재와 기와를 일반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서대문의 옛 모습 (1903년) (사진: KTO NY제공)

서대문은 석조 축대 한가운데에 무지개문을 큼지막하게 내고 축대 위에는 단층집의 초루(哨樓)를 세우고 둘레에 낮은 담을 설치하였다. 서대문은 옛 위치인 경향신문사 앞에 표석만 남아있고 성문은 흔적도 없으나 다시 옛 터에 원래의 모양대로 복원될 예정이고 2013년경 완성될 예정이다.

서대문의 복원으로 한양(서울의 옛 이름)의 기본적인 틀이 완전히 복원된다. 복원공사는 UNESCO 유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ESCO 유산 지정은 1972년에 시작되었으며 145개국 900여건이 지정되었다. UNESCO 유산 지정의 목표는 " 가장 귀중한 자연, 예술, 역사, 인간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익하게 이용하며, 이를 원형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조선시대 성벽과 성문들이 모두 복원되면 서울의 성벽과 성문은 아부심멜 신전, 필래(고대 이집트 신전이 있었던 나일강 복판의 조그마한 섬으로 아스완 댐 건설로 수몰되었다), 중국의 만리장성 등과 어깨를 맞 댈 것이다.

북대문(北大門, 北門), 엄격하게 바로잡는다는 뜻의 숙정문(肅靖門)

숙정문은 풍수지리상 방위를 맞추기 위하여 1396년에 건립되었으나 실제로 성문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건립 후 18년이 지난 1413년, 성문을 열어 놓으면 나쁜 기(氣)가 쉽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또 왕가의 무덤이 있는 산에 가까이 있어

북대문 전경 (사진: 저자)

북문을 통하여 상민들이 드나드는 것은 왕조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영구히 폐쇄되었다.

숙정문은 그 후 다시 개방되었으나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북한 공비 사건 이후 다시 폐쇄되었다. 당시 한국군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 31명의 공비가 이 숙정문을 통과하여 청와대에서 800미터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였으며 이를 발견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간첩들은 흩어져 잠복하였으나 며칠 동안의 수색 끝에 2명을 제외한 전원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이 수색작전 중 68명의 한국군과 3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동시에 북한공비 침투 이틀 후 북한은 미국 연구함 푸에블로호를 강제로 나포하였다. 그 와중에 선원 한 명이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선원들은 거의 1년 동안 볼모로 잡혀 고문을 당했다. 불행하게도 북한의 이런 행태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숙정문은 원래 문루가 없었으나 1976년에 문루를 신축하였으며 2006년에 일반에 다시 개방되었다. 그러나 방문객은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인 경우 여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안 문제는 1968년의 침입 때부터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으며 성문 근처에는 늘 몇 명의 군인이 있다.

이 성문에서 북쪽을 향한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것은 전자 보안시설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조치였다.

숙정문으로 가는 길은 산 북쪽 옆으로 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꽤 힘이 든다. 하지만 올라가는 길은 매우 아름답고 북악산 정상에서의 경관은 장관이다. 성문 양쪽의 성벽은 상당한 길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동쪽으로 보면 성벽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산을 올라가는 것이 퍼시발 로웰의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묘사를 생각나게 한다.

사소문(四小門)

북동쪽에 있는 동소문(東小門), 혹은 지혜를 널리 편다는 뜻의 혜화문(惠化門)은 1397년에 건립되었다. 원래의 이름은 홍화문(弘化門) 이었으나 곁에 있는 왕궁의 대문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1511년 그 이름을 바꿨다. 북문인 숙정문이 항상 폐쇄되어 있었으므로 동소문이 북문 대신으로 사용되었다.

동소문은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대문이었으나 그 지위를 서대문에 빼앗기고 결국은 황폐하게 되었다. 1744년 영조대왕은 영락한 문루를 복원하고 당시 유명한 명필가였던 조강이의 휘호로 새로운 현판을 세웠다. 성문의 천정에는 원래 행운을 가지고 온다고 알려진 봉황이 그려져 있었다.

동소문 전경 (사진: 저자)

동소문은 1928년 전차 길을 만들기 위하여 성벽과 함께 강제로 철거되었다. (우리 장모님은 어렸을 때 이 전차를 타고 학교에 가던 재미있는 추억을 가지고 있다.) 동소문은 원래의 자리에서 약간 북쪽으로 자리를 옮겨 재건되었고 1998년 준공하였다. 이 문은 현재 보안 철책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일반 사람은 북쪽으로 출입한다. 동소문의 동쪽, 길이 있는 곳의 성벽은 철거되었으나 서쪽의 벽은 아직도 남아 있다. 높고 매우 인상적인 이 성벽은 옛 서울을 침략하려는 적들에게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음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남소문(南小門), 빛과 번영의 문 광회문(光熙門)

남소문은1396년에 건설되었고 1422년에 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희문은 보통 사람의 통행용으로도 사용되었지만 시신을 성밖에 매장하기 위한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문이었다. 이 성문은 1711년에 재축되었으나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원형은 바닥을 포장한 돌 뿐이다. 현존하는 부분은 1975년 성곽 재건축계획의 일부로 재건된 것이다.

남동쪽에 있는 남소문은 거리의 한 쪽 구석에 있으며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위에는 주택가와 상점들이 인접하여 있고 철책 속에는 장난감들이 널려 있어 마치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하는 듯 하다. 이 성문이 어린 서울 시민인 인근 주민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오늘까지도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셈이며 참으로 당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문의 북쪽 성벽은 큰길을 내기 위하여 철거하였지만 비교적 최근에 보수된 것으로 보이는 남쪽 벽은 그대로 남아있다.

남서쪽의 서소문(西小門) 혹은 분명한 정의라는 뜻의 소의문(昭義門)은 1396년에 건설되었다. 이 성문 역시 일반인의 통행 이외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내 보내는 문으로도 사용되었다. 부근의 서소문 공원은 공개적으로 사형수의 목을 자르던 장소였고 그 목은 성문에 전시되었다.

1700년 대에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때 처음에는 기존의 종교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당했다. 많은 기독교도들이 서소문 공원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곳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서소문은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정책에 따라 1914년 철거되었다. 현재 서소문은 흔적도 없지만 최근에 서소문 공원에는 14,000개의 나무를 새로 심었고 10,000평이 넘는 넓은 열린 잔디밭을 조성하는 등 상당히 대규모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남소문 전경 (사진: 저자)

창의문(彰義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북서쪽의 북소문(北小門)은 1396년에 세워졌다. 이 문은 북한산과 양주 쪽으로 연결된다. 북소문은 왕에게 위험을 초래할 지 모른다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1416년에 폐쇄되었다가 1506년에 다시 열렸으며 이 해에 왕조를 전복하려는 반란군이 이 성문을 통하여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다. 임진년 일본의 침략 (임진왜란) 때 불에 탔으나 1740년에 재건되었고 그 위에 목조구조가 더해졌다. 그 후 1958년에 복구공사가 다시 진행되었다. 남대문이 화재로 소실된 후 이 성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이 되었다.

창의문의 남서쪽과 북동쪽의 성벽은 각각 주택가와 도로 건설을 위하여 철거되었다. 우리는 처음 이 성문도 북대문과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 장모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택시운전사는 성문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까지 우리 일행을 데려다 주어서 약간 놀랐다.

북소문 (사진: 저자)

1886년 발간된 퍼시발 로웰의 책「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멋있는 묘사가 있다.

8개의 성문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놓여있다. 이론적으로는 이 성문들은 가장 중요한 방위와 그 사이 사이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문들은 세울 수 있는 곳에 세워져 있다.

이 성문들은 매우 웅장하면서도 또 매우 중요한 건물이다. 이 성문들이 도시의 외곽에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비록 성벽에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성안에 있는 다른 어떤 멋있는 건물과도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건물이다.

성문은 마치 커다란 구멍이 뚫린 기초 위에 서 있는 주택과 같다. 너무나 집과 같아 보이기 때문에 성벽 위에서 이 성문에 가까이 갈 때면 마치 땅 위에 서있는 커다란 양반 집에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발아래 내려다보이는 성벽이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삼키고 반대쪽으로는 계속 토해내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발밑에 돌로 만든 커다란 아치가 있다는 것을 거의 잊게 된다.

위에서 보면 깊은 아치는 굴과 같고 이 아치에는 꼭 들어맞는 목제 성문이 있다. 성문의 두께는 10센티미터나 되고 그 위에는

철갑을 입힌 북대문의 성문 (사진: 저자)

철판을 뒤집어 씌웠다.

청계천 수문(淸溪川 水門)

일단의 학자들은 서울에 제9의 성문이 있다는 것을 추론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 새로운 동대문 디자인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고 굴토 작업을 하던 중 서울의 옛 성벽의 일부인 수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성문이 실존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2008년, 정원문화재연구원은 남산에서 청계천으로 흘러 드는 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문인 이간수문(二間水門)을 발견하였다.

보고서는 이간수문은 "4층 건물 만큼 높고 2개의 버스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넓다"고 적었다. 이 수문의 발견은 14세기 후기 서울의 성벽과 성문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복잡/정교하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발견으로 인하여 동대문디자인공원(DDP)의 준공은 2013년으로 미루어 졌다.

성문 건축(城門 建築)

성문들의 최초 건립이나 그 후 계속된 재축과 복원을 통하여 성문건축의 발전 과정을 살피면, 처음에는 간단한 디자인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실성, 절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조선조 초기의 신유교사상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16세기 중엽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869년에 재건축된 동대문에는 장식적인 요소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단순한 초기의 북문과 대조적이다.

성문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장식적인 기와다. 지붕의 형태는 중국 건축 지붕의 변형으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지붕이 붉은색인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논흙에서 나온 흙으로 기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지붕은 대부분 진회색이다. 한국기와는 그 자체가 매우 장식적인데 이는 기와에 귀면이나 다른 문양을 넣은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국지붕의 또 다른 특색은 용마루에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듯한 지붕의 곡선이다. 이에 비하여 중국 지붕의 곡선은 용마루에서 박공 지붕처럼 거의 직선의 내려 오다가 맨 아래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곡선과 함께, 정밀한 문양으로 장식한 처마 때문에 한국지붕은 훨씬 더 극적이다. 한국 지붕의 곡선에 대한 유래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자연에 조화되는 자연의 이치를 따른 다는 철학적인 이유가 있는가 하면 보다 더 실직적인 이유로는 겨울철의 적설이나 단열효과를 고려하여 지지부재에 미리 장력을 가하였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다.

아마도 한국건축의 지붕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특징은 기와의 '잡상'일 것이다. 잡상은 합각지붕의 처마 쪽으로 내려오는 마루의 끝 부분에 일렬로 서 있는 작은 동물 형상으로 '기(氣)'를 상징한다. 이 형상들은 나쁜 기와 귀신을 막아 주기 위한 것으로 현존하는 모든 성문에서 볼 수 있다. 잡상은 중국초기의 건축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한국의 잡상은 훨씬 더 장식적이다.

성문의 탐구 –연구조사와 탐사일정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옛 서울에 대하여 알게 되고 실제로 남대문을 가 본 이후 나는 서울성문에 대하여 매료 되었다. 내가 나머지 성문들을 모두 보았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사위는 백년손" 이라는 한국 속담처럼 나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장인 장모님과 우리 집사람은 이를 흔쾌하게 받아 드렸다.

어떤 성문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웠다. 택시운전사 조차 그 위치는 물론 그 존재 여부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이 성문들을 찾는다는 것은 나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 장모님이 문화관광부에 전화를 걸었으나 "성문에

청계천 이간수문 (사진: KTO, NY)

남소문 지붕의 잡상 (사진: 저자)

대하여 잘 아는 직원이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대답만 들었다. 장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큰 성과가 있었다. 보다 더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책가게에 들려 자세한 서울 지도를 샀고 우리 집사람, 장인, 장모님은 지도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가는 길을 연구하여 지도에 표시하였다.

우리는 자세한 지도로 무장하고 서울의 택시 운전사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여 줄 각오를 하고 성문들을 찾아다닐 준비를 마쳤다. 장모님은 방향을 바꾸어야 할 교차로를 만날 때마다 택시 운전사에게 알려주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쉴 사이 없이 운전사에게 방향을 지시하였다. 어떤 때는 우리가 모퉁이를 돌아 서자 마자 웅장한 성문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서 있곤 하였다.

성문들이 조금 더 유명해질 때까지 당분간은 이 성문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것처럼 철저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성문들도 5대궁에 못지않은 관광대상이 될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성문의 장래
– 과연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날 것인가?

2008년에 일어난 방화로 남대문이 소실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정부에게 이 보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는 기회가 되었다. 방화사건 이후, 우리가 성문들을 찾아 갔을 때 금연 표지와 함께 최근에 새로 준비한 것 같은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서대문 복원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고 현존하는 다른 성문과 성벽의 수리나 복원도 이미 진행 중이지만, 남대문 소실 이후 오래된 유물들을 보호하고 복원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이 점차로 커지는 것 같다. 이러한 사명감이 없었더라면 최근 발견된 동대문 운동장의 수문이 이처럼 큰 관심을 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이러닉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보 제1호 남대문의 방화범이 커다란 선물을 준 셈이다.

지난 세기 초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선조들의 문화를 파괴하고 많은 한국 유산이 유실되었다. 또 한국인 스스로가 발전과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문화재를 등한시하여 왔다. 성문들을 복원하거나 재건하는 일은 대중에게 더 관심을 끄는 개발 사업 계획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마도 남대문의 잿더미에서 피닉스(불사조)가 일어나서 서울의 성문들이 영광스러운 옛날의 자리를 되찾게 할지도 모르겠다.

이간수문을 포함한 동대문 디자인 공원(DDP) 준공이 2013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남대문의 복원은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서대문도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복원 공사는 지난 세기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당한 서울의 성문들을 서울의 5대궁이나 다른 유명한 관광자원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과연 옛날처럼 이 성문들을 통하여 교역이나 상업에 이루어지고, 이 성문들이 조선시대에 차지하였던 그 위세나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당장 모든 성문을 관광지로 크게 홍보하고 찾아가기 쉽도록 안내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곧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이를 당장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국의 옛말에 "수박 겉핥기" 라는 말이 있지만 "수박 겉핥기"를 끝내고 이 성문들이 누려야 할 응분의 관심을 보여야 한다.

또 한 편,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탐구할 수 있는 성문이 6개나 있다. 여러분도 내가 겪은 것만큼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성문들은 현존하며, 또 충분히 찾아 갈 수 있는 곳에 있다. 약간의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가파른 길을 헉헉 거리며 올라가야 하는 심한 운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멋있는 건축물, 어쩌면 조선왕조의 가장 위대한 유산일 수도 있는 성문이 참을성 있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행운을 빈다.

협회소식

제1회 이사회

2012년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정관개정 추진의 건,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규정 개정의 건, (가칭) 건축사교육원 설립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가칭)출판사업국 특별회계 편성 운영의 건, 2012년도 실천계획(안)의 건,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법인협의회 운영방안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건축사등록원특별회계 1, 2월 임시예산의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경기도건축사회 구회관 매각처분 승인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 추진의 건

–정관개정(안)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회원자격부분

• 정관개정(안)대로 '건축사 자격등록한 건축사'로 결정

▷ 회장 직선제 선출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며, 회장선출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결과 정관개정(안)대로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기로 함.

▷임원임기는 현행대로 2년

– 대의원 의견수렴 여부와 정관개정(안)중 위원회의 역할정립 등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행정위원회에서 검토 ·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위원들이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가칭)건축사교육원 설립의 건

– 교육원 설립운영에 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사항 제6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교육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대한건축사협회 (가칭)출판사업국 특별회계 편성 운영의 건

– '건축문화신문'과 '건축사'지 등의 예산은 종전대로 일반회계로 편성 · 운영하기로 함.

• 제5호 : 2012년도 실천계획(안)의 건

– 실천계획(안)의 내용을 검토 · 보완한 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6호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사 3인(김항년, 정익현, 조충기), 감사1인(이영호)이 협의 검토 후 예산결산소위원회(재경위원회)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7호 : 법인협의회 운영방안의 건

– 법인협의회 운영규정중 일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법인협의회에 권고하는 조건으로 운영방안에 동의함.

▷운영규정중 수정 · 보완할 내용은 조충기 이사가 작성 제출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등록원특별회계 1, 2월 임시예산의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예산과목 : 건축사등록원특별회계 '예비비' → '조사연구비' 목

▷ 사용목적 : 건축사 등록업무에 대한 홍보동영상 및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기획조사연구비

▷사용승인 요청액 : 5,000,000원

• 제2호의안 : 경기도건축사회 구회관 매각처분 승인의 건

– 제46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기타사항

• 한옥설계 전문가 교육이수자를 중심으로 (가칭)한옥건축가협회 설립과 함께 한옥설계건축사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협회에서 대처하기로 함.

• '12.3월부터 두 번째 수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국내건축사 경쟁력 강화 TF

제1회 국내건축사 경쟁력 강화 TF회의가 지난 1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국내건축사 경쟁력강화 및 우수건축사 육성방안 단위과제에 대한 검토

–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국내건축사 경쟁력강화 및 우수건축사 육성방안」의 단위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찾아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 및 검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회에서 각 단위과제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국토부와 협의키로 함.

■ 제11회 행정위원회

제11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안) 마련의 건

– 정관개정(안) 마련에 대해서는 회원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개최 결과를 반영 · 정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협의함.

▲기타사항

▷이사회 협의결과에 따라 2월 이사회 이전 정관개정(안)을 최종 검토키로 협의함.

■ 제1회 건축사법 TF

제1회 건축사법 TF 회의가 지난 1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검토에 관한 건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함.

▷ 건축사법 시행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조문 검토 및 협회안 작성

■ 제2회 건축사법 TF

제2회 건축사법 TF 회의가 지난 1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검토에 관한 건

– 건축사법 시행령 조문 세부검토 및 협회안 작성

■ 제3회 건축사법 TF

제3회 건축사법 TF 회의가 지난 1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검토에 관한 건

– 건축사법 시행령 협회안 작성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조문 및 서식을 검토

■ 제4회 건축사법 TF

제4회 건축사법 TF 회의가 지난 1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검토에 관한 건

–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조문검토 완료,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정리함.

■ 제1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제1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운영방안의 건

– APEC 등록건축사 자격활용 방안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을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함.

• 제2호 : 2012년도 APEC 등록건축사 제도운영 세입예산 조달 방안에 관한 건

–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키로 협의함.

• 제3호 : 제4차 APEC 등록건축사 신규 심사등록에 관한 건

– 접수서류의 수량에 따라 심사위원 수를 정한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키로 협의(심사예정일 : '12.3.20(화) 11시 정례회의 후 점심시간 활용하여 심사예정).

• 제4호 : 전산시스템 개발에 관한 건

– 현재 가용 예산 내에서 전산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키로 협의 함. 차후 예산 확보 후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을 개발토록 함.

• 제5호 : 제3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제2기 위원회 임기가 금년 5월까지이므로, 차기 회의(3월) 전까지 각 단체에서 후보위원을 추천받기로 함.

▲기타사항

• 제1회 APEC 등록건축사 등록증 및 ID 카드 발급 및 미입금자에 관해서는 갱신비 입금자 중 미수령자에게는 수령을 독려하고, 갱신비 미입금자에게는 입금을 독려한 후 '12.1.31(화)까지 미입금시 등록갱신을 취소키로 함.

■ 제1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1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건

– 소규모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분리에 대한 당위성, 문제점 및 사례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였으며,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현황 및 사례 등을 사무국에서 조사한 후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 및 세부적인 일정에 관해 논의하기로 함

■ 제2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2회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건

– 설계와 감리를 분리할 경우 문제되는 사례와 당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반대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장 · 단점에 대해 다음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2회 법제위원회

제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관련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건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6일(월)부터 국토부의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과제를 축조심의 후 협회안을 마련하기로 하며, 인원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2호 :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 제출과제 선정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장 검토를 통해 법제위원회 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① 건축설계도서 정비 및 신고내용 정리 : 도서의 미비로 시공자가 공사비를 증액하는 문제 개선

② 소규모감리 제도의 개선

③ 건축심의제도 개선

④ 전기설비 분리발주에 따른 기회균등 상실

• 제3호 : 구조기술사회 입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대처에 관한 건

– 동 사안은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며 법률적 검토함이 아닌 우리협회 차원의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정책위원회로 이관하여 전략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4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개선에 관한 건

– 국토부의 감리업무수행실적 평가항목 개정내용(수주실적→수행실적)은 감리협회 그들만의 업역으로 하고자 함이고, 신용평가제도 도입도 신규 및 중소규모의 건축사사무소는 제외하고자 함이 목적이니만큼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로 정리하여 국토부의 차기회의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로 정리함

■ 법제소위원회(유지관리제도 개선)

법제소위원회(유지관리제도 개선) 회의가 지난 1월 26, 27, 30, 31일, 2월 1,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유지관리점검 관련 건축법령 개정(안) 검토에 관한 건

– 국토해양부의 유지관리 관련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협회 개정(안) 마련

■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장학사업 결정의 건

–2012년도 장학사업을 결정함.

• 제2호 : 장학사업 활성화 방안의 건

–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진양성과 건축계 진흥을 목표로 장학기금 확충, 대상학교 폭 확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제2회 장학회운영위원회

제2회 장학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장학생 심의 · 결정의 건

–각 학교로부터 추천된 학생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결정함.

▲기타사항

• 우수한 인재의 협회 장학생 선정을 위해 장학위원회의 조기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에는 11월경부터 회의를 개최키로 함.

• 장학기금 출연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총회 이후 회의를 개최키로 함.

– 회장 선거기탁금의 잔여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협회 수익사업 이익금에서 출연하는 방안 등

• 협회 사회공헌활동의 대외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시도건축사회 마다 시행하고 있는 장학 사업을 일괄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 각 시도건축사회의 장학사업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함.

■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추진에 관한 사항

– 2012년 감사선거의 선거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 결정함.

▷ 후보자 피선거권 자격심사

⇒ 해당 시도건축사회(부산,경남)에서 제출된 문서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에 이상없음을 확인함.

▷ 후보자 등록서류 검수

⇒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다만, 선거공보인쇄물 중 아래사항 수정토록 하고 일부 감사의 직무를 표현한 문구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키로 함.

▷ 후보자 기호추첨

⇒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으로 제비뽑기하여 순번을 정하고, 그 순번으로 기호추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합의에 의해 추첨키로 함.

▷ 투표용지 제작

⇒ 원안과 같이 제작하기로 함.

▷ 후보자 공고

⇒ 원안과 같이 2012. 2. 3 공고하기로 함.

⇒ 후보자 소견서는 관례에 따라 선거인에게 발송하거나 공고하지 않기로 함.

▷ 후보자 서약서 제출

⇒ 공명선거를 위해 정관 및 제규정 등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기로 함.

■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선거사무 추진의 건

–2012년 감사선거의 선거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의 결정함.

▷ 후보자별 선거공보물 확인

⇒ 후보등록시 제출한 원고와 수정사항을 반영한 선거공보물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함.

▷ 선거인명부 확인

⇒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제출된 대의원명단에 따라 선거인은 444명으로 하며, 최종 선거인명부는 차기회의('12. 2.21)에서 확정키로 함.

▷ 후보자 연설시간

⇒ 감사후보자 연설시간은 관례에 따라 5분이내로 함.

■ 제7회 재경위원회

제7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수지결산안에 관한 건

– 2011년도 각 회계별 수지결산서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제2호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건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추가 검토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 · 조정하고, 재경위원회안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토록 함

• 제3호 : (가칭)건축교육원회계 예산안 심의

– (가칭)건축사교육원회계 예산안은 사업준비를 위한 차입금 상환계획 및 상환조건, 예산안 세부 산출근거 등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실적관리팀장에게 요청하고, 재경위원회 위원중 3인(김의중, 박일경, 홍사원)에게 이를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위임함

■ 교육원예산안 심의 소위원회 [(가칭)건축사교육원회계 예산안 심의]

교육원예산안 심의 소위원회 [(가칭)건축사교육원회계 예산안 심의] 회의가 지난 2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가칭)건축사교육원회계 예산안 심의

– 2012년도 '(가칭)건축사교육원'회계 예산안은 현재 교육과목 및 방법, 일정계획 등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국토해양부와 협의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이사회에 제출하되, 집행 조건을 다음과 같이 예산서에 명시하기로 함

▷ 2012 건축사교육원회계 예산안 집행 조건

– 2012 건축사교육원회계 예산안은 (가칭)건축사교육원 설립계획안 총회승인 및 국토해양부와 실무교육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 된 후, 실행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조건. 단, 국토해양부 등과의 사전 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이사회 협의를 거쳐 우선 집행

■ 제1회 인사위원회

제1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기총회 표창대상자 협의의 건
– 제46회 정기총회('12. 2.28)시 표창할 공로회원 및 모범직원 상의 대상자를 협의하고 회장이 이사회에서 심의토록 함.

• 제2호 :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심의의 건
– 협회 계약직 직원인 친환경건축연구원의 연구원 3인과 친환경교육팀 직원 1인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심의함.

▲기타사항

• 2012년도 직원의 연봉책정은 상박하후 원칙으로 책정토록 하고, 신입직원의 초임연봉을 상향 조정토록 회장께 건의함.

■ 제1회 국제위원회

제1회 국제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국제사업계획
– 원 안대로 추진하되, 일본건축가협회 정례교류는 올해 방문만 추진하고 향후 정례교류 추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10년도 MOU 실행 계획이 만료된 몽골건축사협회와 2010년도에 협정을 체결한 멕시코건축사 협회는 향후 교류 추진 방안을 협의한 후 추진 논의

• 제2호 : 2012년도 국제위원회 업무분장 및 활동계획
– 2012년도 국제위원회 업무분장과 활동계획에 관한 의견을 이메일로 교환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인도네시아 UNPAR 건축대학 방문
– 강연회 개최일정은 원 안대로 추진하고, 연사는 추가 추천자가 없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다음과 같이 확정함.

〈강연회 개최 일정 및 연사〉

시간	내용	연사
13:50~14:00	본 협회 소개 동영상 상영	
14:00~14:05	환영사 UNPAR 건축대학 인사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학부장
14:05~14:15	본 협회 소개	김성민 국제위원장
14:15~14:45	서울의 현대건축	하태석 국제위원
14:45~15:15	서울의 전통건축	조인숙 국제위원

• 제4호 : ARCASIA 위원회 업무분장 및 사회책임위원회 검토의견
– ARCASIA 위원회 활동을 위한 업무분장과 사회책임위원회 본 협회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기로 함.

〈ARCASIA 위원회 업무분장〉

위 원 회	담당위원(KIRA)
교육위원회	정) 조인숙, 부) 김은미, 이윤석
친환경위원회	정) 이근창, 부) 민규암, 전성호, 하태석
건축실무위원회	정) 신춘규, 부) 심형섭, 이승석
Fellowship 위원회	김지덕 자문위원
UIA 제4지역 협의회	김성민 UIA 대리이사 외
사회책임위원회	정) 김성민, 부) 이성란, 임희선
내부협의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사회책임위원회 검토의견〉

가. 대한민국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이슈
–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제도
– 건축물 유지관리법 입법화
– 지역 간 균형개발
– 어린이 노약자, 여성 및 다문화 복지

나. 활동 위원 추천
정) 김성민 국제위원장, 부) 이성란, 임희선 국제위원

• 제5호 :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ALACE) 컨벤션 참가
– 원 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6호 : 중국건축학회(ASC)와의 MOU 체결 방문 계획
– 중국건축학회 신임임원 선출에 따라 MOU 체결일정 재협의하기로 하였으며, MOU 문구는 국문, 중문, 영어로 차기 회의에서 검토함.
('12. 2. 3 제2회 국제위원회 회의 시 수정)

• 제7호 : 2012년도 국제교류 추진 참관단 모집 계획
– 라오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몽골의 참관단 모집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라오스의 경우 이번 방문 시

('12.2.22~2.26) 사전 조사를 통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사우디의 경우 사우디건축사협회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된 후 추진하고, 몽골은 몽골건축사협회 정기 총회 및 컨벤션 개최 시 참관단 모집을 추진하기로 함.

■ 제2회 국제위원회

제2회 국제위원회가 지난 2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국제위원회 업무분장 및 활동계획
 – 원 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단, 2. 교류협정서 관리 및 표준화 → 교류협정서 관리 (수정)
 5. 해외자료/인맥의 국내 활용 → 해외자료 / 인맥의 활용 (수정)

〈아 래〉

구 분	일반위원	자문위원 등
1.교류 국가의 우선순위 및 장기 전략	김은미, 하태석	이근창
2.교류협정서(MOU) 관리	민규암, 이윤석	심재호
3.교류국가의 건축실무 자료 수집/분석(계약서, 설계비 산정, 법규체계 등)	임희선, 심형섭	김성민
4.교류국가의 건축사단체 자료수집/분석 (조직, 규모, 행사 등)	이성란, 이승석	신춘규
5.해외 자료/인맥의 활용 (세미나 개최, 자료 공유 등)	조인숙, 전성호	김지덕

• 제2호 : ARCASIA 홈페이지 관리 방안
 – '12. 2. 1(수),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되는 ARCASIA 임원회의(이근창 자문위원 참가) 논의결과에 따라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중국건축학회(ASC) MOU 체결 방문 계획
 – 제15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일본 요코하마) 참석 시 Zhou Chang 전 UIA 이사와 협의한 4월 중국 방문 계획을 Zhang Beiping에게 다시 건의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신춘규 이사), 향후 중국건축학회 MOU 체결 방문계획은 심재호 자문위원이 담당하여 추진하기로 함.
• 제4호 : 2012년도 UIA 건축실무위원회(PPC) 회의 참가
 – 한국건축단체연합 회원단체 중 본 협회가 매년 참석하고 있는 UIA 건축 실무위원회(PPC) 회의는 지난 회의내용의 연속성과 UIA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담당 이사와 국제위원장이 참가하는 방안으로 건의
• 제5호 : 몽골건축사협회(UMA) 교류 추진 방안
 – '95년부터 오랜 기간 교류를 해 온 몽골건축사협회와의 MOU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십여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판단하며 MOU 실행계획 갱신을 위해 몽골 측과 협의하기로 하고 김은미, 임희선 국제위원이 담당하기로 함.

▲기타사항

•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학생잼버리 참가 방안
 ▷ 학생대표는 학생잼버리가 있는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시에만 파견하기로 하고, 학생잼버리 주제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정 방안을 국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별도 추진하기로 함.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수상자 중에서 선정하는 방안은 해외건축물탐방 부상이 중복되므로 연계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함)
 ▷ 학생잼버리 참가기간과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국제사업비에 반영하여 추진

'건축사 자격증' 수여식 개최

우리협회는 2011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사 자격증 수여식 및 소양교육'을 개최했다.

이번에 건축사 자격증을 받은 합격자는 총 370명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국내 건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건축사시험은 총 3,882명이 응시, 9.5%의 합격률로 지난해 합격률 9.1%보다 약간 높아졌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무료급식 봉사 펼쳐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택붕) 봉사단(단장 김은선)은 지난 1월 26일 달성공원 토요나눔마당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화자 대구시의회 의장, 정명섭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윤용섭 대구시 건축주택과장과 대구시 회원 및 봉사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지역건축사회, 익산문화재단에 500만원 기탁

전북건축사회 익산지역건축사회(회장 현주억)는 지난 1월 10일 익산문화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익산문화재단에 문화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장실에서는 이한수 시장을 비롯한 현주억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이 열렸다. 현 회장은 "익산 건축사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문화예술사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익산문화재단에 문화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건축계소식

'김화자 건축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당선

김화자 건축사(세명 건축)가 여성건축사 최초로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됐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택붕) 소속 김화자 건축사는 1971년부터 대구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했으며, 지난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회 의원(중구)으로 당선됐다.

서울시건축사회, 글로벌최고위 과정 제10기 교육생 모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글로벌최고위과정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건축사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CEO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이며, 교육인원은 50명이다. 교육기간을 3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매주 목/1일 3시간), 교육비는 100만원(건축사 정회원 9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www.sira.or.kr)에서 교육신청을 하거나 수강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서울시건축사회 기획사업팀, 02-587-7061/7063

2012 VELUX Award 개최

VELUX그룹에서 전세계 건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2 VELUX Award' 국제공모전을 개최한다.

'VELUX Award'는 건축학과의 학생들에게 '태양광(daylight)'이라는 주제에 관한 탐구를 독려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이번 2012년 국제공모전 주제는 『내일의 빛(Light of Tomorrow)』으로 'VELUX Award'의 전체 테마이기도 하다.

한편 '2010 VELUX Award'에서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 참가대상 : 건축학과에 등록되어 있는 전 세계의 학생(개인 또는 팀)이면 가능

• 개최일정

-'12. 3. 1 : 등록 마감

-'12. 4. 2 : 질의접수 마감

-'12. 5. 7 : 제출마감 (프로젝트 업로드)

-'12. 6월 : 심사위원 회의 (모든 제출 작품 평가)

-'12. 10월 :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 (모든 제출 작품 웹전시회 및 연감 발간)

• 문의 : http://iva.velux.com

한국건축가협회, 목동 예술인센터로 이전

(사)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1월 13일 동숭동 예총회관에서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으로 이전했다.

이전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6번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이다.

제4회 심원건축학술상 수상작 발표

심원문화사업회는 제4회 심원건축학술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수상작은 이강민 씨의 '도리구조와 서까래구조-동아시아 문명과 목조건축의 구조원리'와 차지언 씨의 '이상 소설의 인문지리학적 연구-장소(Topos)를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심원건축학술상은 건축 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신진학자 및 예비 저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수상작은 격월간 '와이드AR' 5-6월호를 통해 발표한다.

• 문의 : 심원문화사업회, 02-2235-1960.

제1회 한옥사진공모전

국토해양부와 한옥문화원은 '제1회 한옥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살고 싶은 집, 한옥'으로 참가등록은 오는 4월 6일까지이며, 작품접수는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다.

한옥과 사진에 관심 있는 자는 응모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 문의 : www.hanok-photocompe.or.kr

(사)한국공간구조학회 'IASS-APCS 2012' 개최

(사)한국공간구조학회는 오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국제 심포지엄 'IASS-APCS 2012'을 개최한다.

IASS-APCS 2012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공간구조물 설계, 해석, 시공기술 관련 국제 심포지엄으로 전 세계 50여 개

국에서 4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국제행사이다.

• 문의 : 한국공간구조학회, 02-2057-8878, www.kasss.or.kr

제21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T. S. Kim Architectural Fellowship Foundation)는 재미 건축사 김태수 씨에 의하여 1991년에 설립되어 한국의 젊은 건축사에게 교육적인 세계 건축여행을 함으로써 보다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행경비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를 지원한다.

Fellowship을 받은 사람의 수는 상임이사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현재까지 세계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1년에 1명으로 1992년에 첫 Fellowship을 수여 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수상자에게 미화 $8,000을 수여하였고, 1998년부터는 미화 $10,000을 수여하고 있다.

• 자격요건 : 만35세 미만의 한국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

• 선정방법 및 제출자료

-제출된 포트폴리오 심사 후 예선 통과자 선정

-예선 당선자는 여행 목적 및 계획을 재단에 제출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수상자 1명을 선발

• 접수마감 : 2012년 4월 30일까지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6-5 로프트빌딩 3층 1호 ㈜맥스트랫 內 '김태수해외 건축여행 장학제' 담당자 앞

• 문의 : www.tskaf.org

2012 경향하우징페어 개최

'2012 경향하우징페어'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다.

특히 '호텔 · 리조트&레스토랑 산업전'과 그린포럼 2012(www.greenforum.co.kr)이 동시 개최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경향하우징페어는 건축공구, 구조재, 지붕재, 석재, 바닥재, 외벽재, 냉난방기기 · 시스템, 창호, 도장재, 방수재, 단열재, 조경, 공공시설물, 조명 및 전기설비, 소방 · 방재, 보안 등 총 33개 부문에 걸쳐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청사 녹색화 특별전시관'을 운영한다. 특별전시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청사 신축대상 120개 기관의 에너지절약형 녹색 청사 대국민 홍보와 녹색 건축 자재의 개발 · 보급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업체들을 위해 'KH 신제품 런칭 쇼', 'KH 스퀘어', 'KH 디자인특별관'을 비롯해 다양한 세미나도 개최된다.

• 문의 : 경향하우징페어, 1577-6695, www.khfair.com

KCC, 건축용 도료 신제품 '삼총사' 출시

KCC가 건축용 도료 신제품 '삼총사'를 출시해 튀는 도료 캔 디자인으로 소비자 눈길 잡을 전망이다.

KCC는 산업 전반에 걸친 소비자 중심주의(Consumerism) 트렌드에 맞춰 제품의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있고, 디자인을 차별화하기 위해 '숲으로 멀티멜', '숲으로 광택수성', '센스멜 DIY'. 세 신규 제품에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 기업 및 제품 이미지를 제고했다. 눈에 띄고, 보다 친근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신규 도료 캔 디자인에는 친근한 이미지를 콘셉트로 하여 밝고 화사한 패턴을 사용한 산뜻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KCC의 페인트 브랜드에 대한 친근감을 강조했다.

먼저 친환경 다용도 인테리어용 수용성 에나멜, '숲으로 멀티멜'은 다양한 소지 및 각종 구도막에 적용 가능한 인테리어 / DIY용 도료로서, 콘크리트, 목재, 철재, 석고보드 및 수성, 에나멜, 락카, 방청하도 등의 구도막에도 부착력이 우수한 고기능성 친환경 인테리어 / DIY용 도료이다. 다양한 소지 및 구도막에도 부착력이 우수하여 간편한 인테리어 및 DIY 도장이 가능하며, 유해물질 및 유해 중금속 등의 함유와 방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도료이다.

그리고 친환경 광택 마감도료, '숲으로 광택 수성'은, 광택을 요하는 면에 적용 가능한 수성도료로서, 시공후 은은한 광택으로 세련된 외관 구현이 가능한 친환경 도료이다. 일반 수성도료 및 무늬코트와 함께 적용시 개성있는 마감면의 연출이 가능하며 은은한 광택으로 미려한 외관 연출 및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도막을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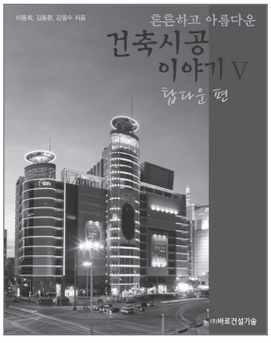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희석이 필요없는 유성 에나멜, '센스멜 DIY'는 내후성이 우수한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자연건조형 도료로서, 건조가 빠르고 은폐력과 작업성이 우수하다. 내광성, 내구성, 내수성, 내염수성, 색상보유력 및 광물유, 석유, 그리이스 등에 대한 견딤성이 우수하여 실내 및 실외 장식용 마감 도료로 설계된 최고급 에나멜 도료이다. 희석이 필요 없는 유성 에나멜 도료로써, 각종 철재 및 목재, 창틀 및 방문용 인테리어 도료로 적합하고, 작업성이 좋아 누구나 쉽게 도장이 가능해 주로 건축물, 가구 등의 철재 및 목재의 마감용으로 적용이 용이하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www.kccworld.co.kr

신간안내

튼튼하고 아름다운_건축시공이야기 5

이동희, 김동환, 강필수 저 | 342쪽 | 바로건설, 도서출판 발언



신간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시공이야기」 5권의 주제는 탑 다운이다.

요즘 좀 더 깊고 넓은 지하공간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요구와 민원과 안전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경제적 요구로 탑다운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은 편이이어서 건설기술자들에게 탑다운이 낯설지 않겠지만 정보의 핵심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직접 시공이 진행되면서 느낀 점 및 구석구석의 중요한 의문점 등이 모두 다뤄졌다.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쉽게 서술되고 구성됐다.

• 문의 : 도서출판 발언, 02-929-3546

놀이시설 안전관리 이론과 실무

송창영,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저 | 446쪽 | 기문당

신간 「놀이시설 안전관리 이론과 실무」는 어린이 놀이에 대한 개념과 그 가치를 정립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적 논의들을 다루기 위해 기획됐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 관련 정책을 세우거나 집행할 전문가, 놀이시설 관리자, 더 나아가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문의 : 기문당 02-2295-6171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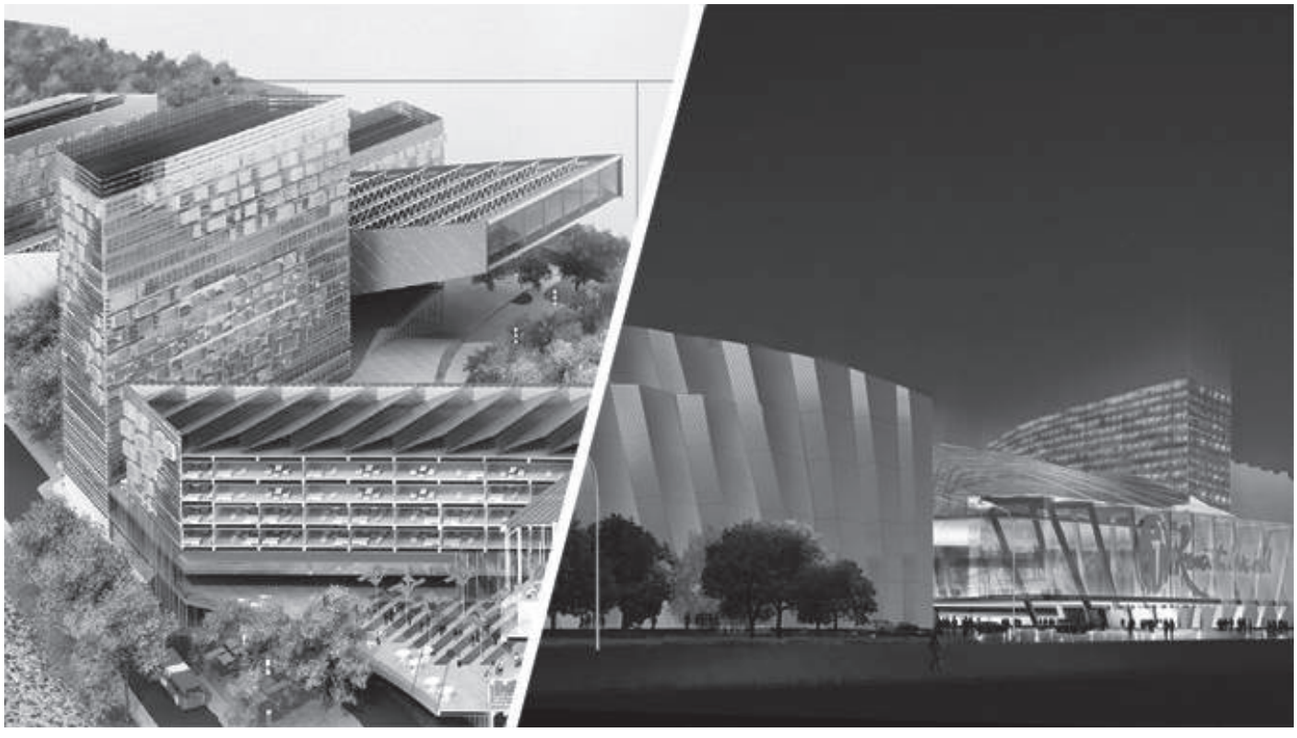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 Kim, Eunmee |

정치 공약으로서의 건축
– 그것들의 운명은…

지금 발표 되는 메가 프로젝트들이,
그것이 실현 될 만큼의 매력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을까?



코넬 대학의 루즈벨트 아일랜드 테크 캠퍼스 계획 (좌), 퀸즈 켄벤션센터 계획안 (우)
Courtesy SOM &Genting

새해 들어 엎어진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니지만, 지금 소개하는 두 개의 대담한 계획은 뉴욕시가 아직 크게 생각하는 배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루즈벨트 아일랜드의 중산층 지역을 20억 달러가 투자 되는 실리콘 밸리와 비견 될 패기 넘치는 테크놀로지 캠퍼스로 바꾸는 계획이며, 그리고 바로 뒤따라 2주 후에는 앞서 발표한 계획만큼이나 흥분되는 40억 달러가 투자되는 민간개발 프로젝트 –세계에서 가장 크고 새로운 퀸즈 컨벤션센터– 를 주 당국에서 지원 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언론들은 그 계획들의 장점들을 엄청나게 보도했다 : 새 컨벤션센터는 3,100,000평방피트인 시카고의 맥코믹 플레이스 보다 20%나 더 크며, 도박장이 포함된 3,000개 객실 규모의 호텔,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인 수십억 달러 가치의 지불이 끝난 현재의 맨해튼에 위치한 컨벤션센터인 재비츠센터 부지의 개발 기회, 그리고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지어질 약 2,000명의 학생을 위한 주거시설; 20,000 개의 건설 고용유발; 도시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개발 프로젝트 중의 부분으로 지어질 2,000,000 평방피트가 넘는 지속가능한 건축물.

루즈벨트 아일랜드 테크 캠퍼스 계획은 뉴욕 시장이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며; 퀸즈 컨벤션센터 계획은 뉴욕주 주지사의 주안점일 것이다. 이것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혁신적인 도시 재창출 아이디어이다. 하지만, 이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그것들이 댄스증후군에 빠진 장소에 나타난 새로운 예쁜 아가씨의 출현인가? 라며 비꼬기도 한다.

사실 이 도시는 최근 이전 댄스 파트너들로 바글거리게 되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허드슨 야드; 거버너스 섬과 모이니핸 스테이션 계획은 모두 어느 정도는 한때, 시장과 주지사들이 아끼던 공공-개인 벤처 사업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각각 아주 더디게 움직이는 중이거나, 사실 진행된다고 하더라고 어떤 정치 세력도 손잡고 춤추고 싶지 않아서 볼썽사납게 부분적이나 유치해진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상황이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는 기반시설 비용을 놓고 항만 관리 위원회와 911 메모리얼&박물관 사이를 마비시키는 의견차이가 있으며; 허드슨 야드는 부유작용으로 조금씩 이동 중이기 때문에 개발자들로 하여금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하지만 코치는 임대하고 있다. 그것은 오레곤, 포틀랜드 전역에 있는 것보다 20년 안에 더 많은 오피스 공간을 제공받을 26에이커의 부지 내의 콤플렉스 내부의 2백만 평방피트의 타워 중 60만 평방피트이다.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다.); 모이니핸 역 계획은 담당 개발자들이 훌륭한 낡은 공간의 수익성을 밝혀낼 열쇠로서 비현실적인 위고 카브레 식의 아우라를 얻어왔으며, 초기 단계에 300,000,000달러를 투자하는 거버너스 섬 계획은 거의 예외적 이지만, 2010년부터 섬의 통제를 놓고 브룸버그 뉴욕시장과 페터슨 뉴욕 주지사 사이에서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저들 중 어떤 프로젝트도 제대로 수행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완공 과정으로 가고 있는지 별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다. 이미 너무나 많은 갈등과 정치 공작들(지독한 현실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이 원대하게 담대한 새로운 뉴욕의 새벽을 열어줄 프로젝트라 발표된 신화 같은 유려한 이미지를 많이 손상 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지 매우 멋져 보이는 계획들만 계속 진행 하게 할 것이다. 항상 그렇듯, 무언가 정확하지 하지 않은 상태의 새것은 아주 좋아 보인다. 이 하나로 다 만회 할 수 있어 보이거나, 또는 주지사들이 늘 주장하는, "이것은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며, 직장, 직장, 수 만개의 직장이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단 이것들이 시작만 하면 결국은 비용, 비용, 또 비용으로 전락 한다.(지난 4명의 주지사들은 모히니안 역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다.)

록펠러 센터, 뉴욕이 가장 사랑하는 메가 프로젝트이라 할 수 있는 이 건물의 첫 번째 세트는 완공까지 정말 순식간인 10년 만에 이루어 졌고, 다른 부분들은 아주 천천히 또 다른 35년에 걸쳐 완성 되었다. 배터리 파크 시티는 1968년 이래로 작업해왔으며, 17에이커 규모의 유엔이 아마도 가장 빨랐을 것이다 – 이것은 록펠러 가족으로부터 땅을 기부 받아 1950년에 유엔 사무국이 완성 되는 과정이 단지 4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뉴욕 행정 밖의 일이었다.

정치인들은 거대하고 투기적인 프로젝트들을 좋아한다. 그것들은 리더십 안에서 시민의 야망과 경쟁적인 욕구, 좋은 품질의 반향을 일으킨다.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끈질기고 유연한 결정이다. 새로운 켄벤션 센터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상대가 퀸즈 입지의 접근성이 나쁜 것 때문에 결정을 주저 할 때나, 어디에서도 가져 올 수 없는 공항과의 직통 연결성 재고, 또는 루즈벨트 아일랜드 접근성을 위한 상상을 초월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거나(예를 들면 전기만 쓰는 이 섬에 가스 라인이 필요하다던가; 지금 여기의 쓰레기 처리는 압축 튜브로 한다.), – 이러한 상황의 출현은 위의 환상적인 건축물의 개관식 테이프 커팅 일정을 현재의 재임 기간을 훌쩍 지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남은 시민은 단지 다음번에 당선 될 시장이나 주지사가 현재 벌여 둔 이 엄청난 계획이 그 때도 더럽고 때 묻어 보이지 않고 아직 매력적으로 보여 사랑해 주며 끌고 가는 것을 기대 할 수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 인천 등 여러 메가 스케일 공약 프로젝트들 때문에 골칫거리인 상태이다. 그 공약의 주체가 누구이던 간에 이 비용을 대는 것은 국민과 시민이다. 이러한 거대한 공약이나 계획을 만들 때 에는 오랜 동안 끈질기게 사회적 공감대와 문제점 파악과 보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은 우리의 경우와 위의 뉴욕의 경우를 보면 더욱 확실히 보이며 이 를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윗 글의 일부는 www.archpaper.com의 기사 일부를 발췌, 인용 , 번역 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1년 12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491	5,491	93	186	8	24	5,592	5,701	1,637	1,637	230	460	52	156	26	104	21	139	1,966	2,496	7,558	8,197
서울	871	871	23	46	2	6	896	923	836	836	130	260	34	102	11	44	13	79	1,024	1,321	1,920	2,244
부산	468	468	13	26	2	6	483	500	106	106	20	40	2	6	2	8	2	14	132	174	615	674
대구	465	465	19	38	4	12	488	515	68	68	17	34	2	6	2	8	2	10	91	126	579	641
인천	275	275	3	6	0	0	278	281	67	67	6	12	1	3	0	0	0	0	74	82	352	363
광주	201	201	1	2	0	0	202	203	39	39	8	16	2	6	2	8	0	0	51	69	253	272
대전	247	247	5	10	0	0	252	257	34	34	5	10	5	15	0	0	1	15	45	74	297	331
울산	181	181	5	10	0	0	186	191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08	217
경기	780	780	1	2	0	0	781	782	234	234	20	40	2	6	3	12	1	5	260	297	1,041	1,079
강원	176	176	2	4	0	0	178	180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06	213
충북	218	218	3	6	0	0	221	224	36	36	3	6	1	3	2	8	1	9	43	62	264	286
충남	251	251	1	2	0	0	252	253	51	51	4	8	1	3	2	8	0	0	58	70	310	323
전북	247	247	4	8	0	0	251	255	22	22	3	6	1	3	1	4	0	0	27	35	278	290
전남	206	206	1	2	0	0	207	208	19	19	2	4	0	0	0	0	1	7	22	30	229	238
경북	374	374	5	10	0	0	379	384	38	38	4	8	0	0	0	0	0	0	42	46	421	430
경남	411	411	6	12	0	0	417	423	29	29	3	6	0	0	0	0	0	0	32	35	449	458
제주	120	120	1	2	0	0	121	122	14	14	1	2	0	0	0	0	0	0	15	16	136	138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197	10	8,207	100%	23
서울	2,244	3	2,247	33.9%	10
부산	674	1	675	7.9%	9
대구	641	0	641	7.7%	0
인천	363	0	363	3.8%	0
광주	272	0	272	3.7%	0
대전	331	1	332	3.7%	0
울산	217	0	217	2.6%	0
경기	1,079	2	1,081	12.2%	2
강원	213	0	213	2.6%	0
충북	286	0	286	3.0%	0
충남	323	3	326	3.1%	0
전북	290	0	290	3.0%	0
전남	238	0	238	1.9%	0
경북	430	0	430	4.6%	1
경남	458	0	458	5.0%	1
제주	138	0	138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계	비고
회원수	5,701	2,496	-	8,197	
비율	69.54%	30.46%	-	100%	
사무소수	5,592	1,966	-	7,558	
비율	73.99%	26.01%	-	100%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